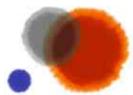


한글날 공휴일 지정에 관한 연구

2011. 6.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제 출 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한글날 공휴일 지정에 관한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1년 6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정갑영

목 차

	연구 개요	
I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2. 연구 범위 및 방법	4
	3. 연구 수행 체계	5
	4. 관련 용어 정리	7
<hr/>		
	한글날의 중요성과 관련 사례 분석	
II	1. 한글의 가치와 중요성	13
	2. 한글날의 가치와 중요성	19
	3. 국어문화 홍보 사례	23
	4. 언어 관련 축제 사례	40
	5. 소결	48
<hr/>		
	한글날 공휴일 지정의 필요성 및 쟁점 사항 검토	
III	1. 한글날 공휴일 지정의 경과	53
	2. 한글날 공휴일 지정의 주요 논점	60
	3. 한글날 공휴일 지정의 필요성	69
	4. 한글날 공휴일 지정의 쟁점 사항 검토	83
	5. 소결	97

IV	한글날 공휴일 지정의 효과 분석	
	1. 경제·사회문화적 영향 파급경로	101
	2. 경제적 효과	104
	3. 사회적 편익-비용 추정 및 비교 분석	109
	4. 사회문화적 효과 분석	122
	5. 국격제고와 국가홍보효과	131
	6. 소결	140

V	한글날 공휴일 지정의 법률 및 규정 검토	
	1. 현행 법률 및 규정	145
	2. 공휴일 관련 법률 및 규정 검토	151
	3. 한글날 공휴일 지정 입법(안)	156

VI	종합결론	
	1. 한글날 공휴일 지정의 당위성	159
	2. 향후 조치 사항	161

참고문헌	163
부 록	165

〈표 목차〉

<표 I-1> 휴일과 공휴일 관련 용어 정리	8
<표 II-1> 한스타일 사업에서의 한글문화정책 세부추진 과제 현황	25
<표 II-2> 국내·외 한국어 교육기관 현황	26
<표 II-3> 알리앙스 프랑세스의 주요 프로그램	31
<표 II-4> 일본 국제교류기금의 주요 프로그램	33
<표 II-5> 중국 공자학원의 주요 프로그램	34
<표 II-6> 독일 괴테 인스티튜트의 주요 프로그램	35
<표 II-7> 영국 브리티시 카운슬의 주요 프로그램	36
<표 II-8> 이탈리아 문화원의 주요 프로그램	37
<표 II-9> 이탈리아 단테 알리기에 협회의 주요 프로그램	38
<표 II-10> 스페인 인스티튜트 세르반테스의 설립 목적 및 주요 활동	39
<표 III-1> 국경일·공휴일 및 기념일 지정 현황	54
<표 III-2> 주요 국가의 공휴일 비교	55
<표 III-3> 한글날 지정 및 공휴일 지정의 경과	57
<표 III-4> 공휴일 및 한글날 공휴일 지정에 대한 입법 활동 및 경과추이 현황	59
<표 III-5> ‘한글’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	70
<표 III-6> 찬성응답자의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 이유	74
<표 III-7> 결혼 이주민 체류 현황	80
<표 III-8>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력 체류 현황	80
<표 III-9> 외국인 유학생 체류 현황	82
<표 III-10> 외국인의 한국어능력시험 응시 현황	82
<표 III-11> 주요국의 공휴일 및 휴일수 비교	84
<표 III-12> 우리나라 2010-2020년 공휴일 현황	85
<표 III-13> 공휴일 법제화 및 대체공휴일 도입에 의한 기업의 직접손실액	88
<표 III-14> 2009년 국가별 노동시간 및 노동생산성	93
<표 IV-1> 한글날 공휴일 지정에 의한 비용-편익	103
<표 IV-2> 한글날 공휴일 지정 네 가지 조건	104
<표 IV-3> 문화여가 및 관광여행 지출액	107
<표 IV-4> 공휴일 1일 증대에 의한 경제효과	108
<표 IV-5> 조건상황-2 와 조건상황-3에 의한 경제효과	109
<표 IV-6> 공휴일제도 시행 관련 이해관계자 비용-편익 구조 설명	110
<표 IV-7> 지불 의사액 추정을 위한 설문 형식	111
<표 IV-8> CVM 문항에 대한 응답자들의 반응	112

<표 IV-9> 지불의사액(WTP) 로짓모형 추정결과	113
<표 IV-10> 휴일근로수당 추가부담액 추정을 위한 근거 자료	116
<표 IV-11> 공휴일 법제화 및 대체공휴일제도 도입의 추가부담액	117
<표 IV-12> 공휴일 법제화 및 대체공휴일제도 도입시 퇴직금 추가부담액	118
<표 IV-13> 공휴일제도 개선에 따른 생산차질액	119
<표 IV-14> 조건 상황별 인건비 산정 결과	120
<표 IV-15> 한글날 공휴일 지정의 편익과 비용 종합	121
<표 IV-16>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외국어 정책용어	127
<표 IV-17> 2010년 SERI-PCNB NBDO 국가브랜드 종합 순위	132
<표 IV-18> 국가브랜드위원회의 기능	133
<표 IV-19> 10대 문화상징의 대표성·기여도·활용 가능성	134
<표 V-1> 현행 「국경일에 관한 법률」	145
<표 V-2> 현행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147
<표 V-3> 현행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	149

<그림 목차>

[그림 III-1] 한글날 인지도 조사	71
[그림 III-2] 한글날 국경일 인지도 조사	71
[그림 III-3]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 찬/반의견	72
[그림 III-4] 공휴일 재지정이 필요한 국경일 조사	73
[그림 III-5] 한글날 공휴일 지정의 긍정적인 측면	75
[그림 III-6]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감 추이	80
[그림 III-7] 1인당 근로시간	93
[그림 III-8] 고급인력의 노동시간 비율	94
[그림 IV-1] 한글날 공휴일 지정의 사회문화, 경제적 영향 경로	101
[그림 IV-2] 공휴일 1일 증대에 따른 경제효과 분석 체계	105
[그림 IV-3] 한글날 공휴일 지정시 주 예상 활동	122
[그림 IV-4] 한글날 공휴일 지정시 업무집중도 예상	123
[그림 IV-5] 외국어로 된 상징구호 및 정책용어 사용문제	124
[그림 IV-6] 외국어로 된 상징구호 및 정책용어의 교체 필요성	125

1.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3. 연구 수행 체계
4. 관련 용어 정리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 한글은 창제 연월이 알려져 있는 문자로 한글 창제에 담긴 정신은 우리 민족의 집합적 가치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임과 동시에 민족문화의 정체성임. 한글날은 문화유산인 한글의 창제를 기념하는 날이지만 1990년에 생산성 향상과 국가발전이라는 경제적 논리로 공휴일에서 제외됨
- 2005년 한글날을 국경일로 격상시켰지만 공휴일에서는 여전히 제외되어 있어, 국민이 한글과 한국어 가치를 깨닫고 즐길 수 있는 한글날 관련 행사 및 프로그램 참여가 제한적임
- 한글날 공휴일 지정은 한글문화의 계승발전과 국민의 한글 관련 행사 및 프로그램 참여활동을 유도하여 한글날 제정 의미를 기념할 수 있으며, 부수적으로 휴일 수 증가로 휴가에 대한 행복권 추구, 친목도모, 문화·여가·관광 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 관련 소비지출로 내수 경기 진작 등 사회경제적 편익이 증대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글날 공휴일 지정에 대한 당위성이 제기되고 있음
- 최근 한글날 공휴일 지정과 동시에 대체공휴일제 도입에 대한 입법 활동이 전개되고 있으나 경제단체와 정부 부·처 간의 찬반 의견 대립으로 한글날 공휴일 지정의 실현 가능성은 불확실한 상황임
 - 2008년 이후 공휴일 관련 국회 입법 활동의 주요 내용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승격하고, ‘대체공휴일’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헌법의 행복추구권에 해당하는 ‘공휴일을 통한 휴식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고자 함
- 본 연구는 한글의 가치와 중요성 분석, 한글날 공휴일 지정에 대한 찬반 쟁점을 검토하고, 사회·문화·경제적 측면에서 한글날 공휴일 지정의 당위성에 대한 논리를 제시함

■ 연구 목적

- 한글날의 공휴일 지정에 대한 사회·문화·경제적 측면에서 한글날 공휴일 지정의 효과 분석
 - 한글날의 가치와 중요성 분석
 - 한글날 공휴일 지정에 의한 경제적, 사회문화적, 국가브랜드 제고 효과 분석
- 한글날 공휴일 지정에 따른 공휴일제도 조정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함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대안 제시

2. 연구 범위 및 방법

■ 내용적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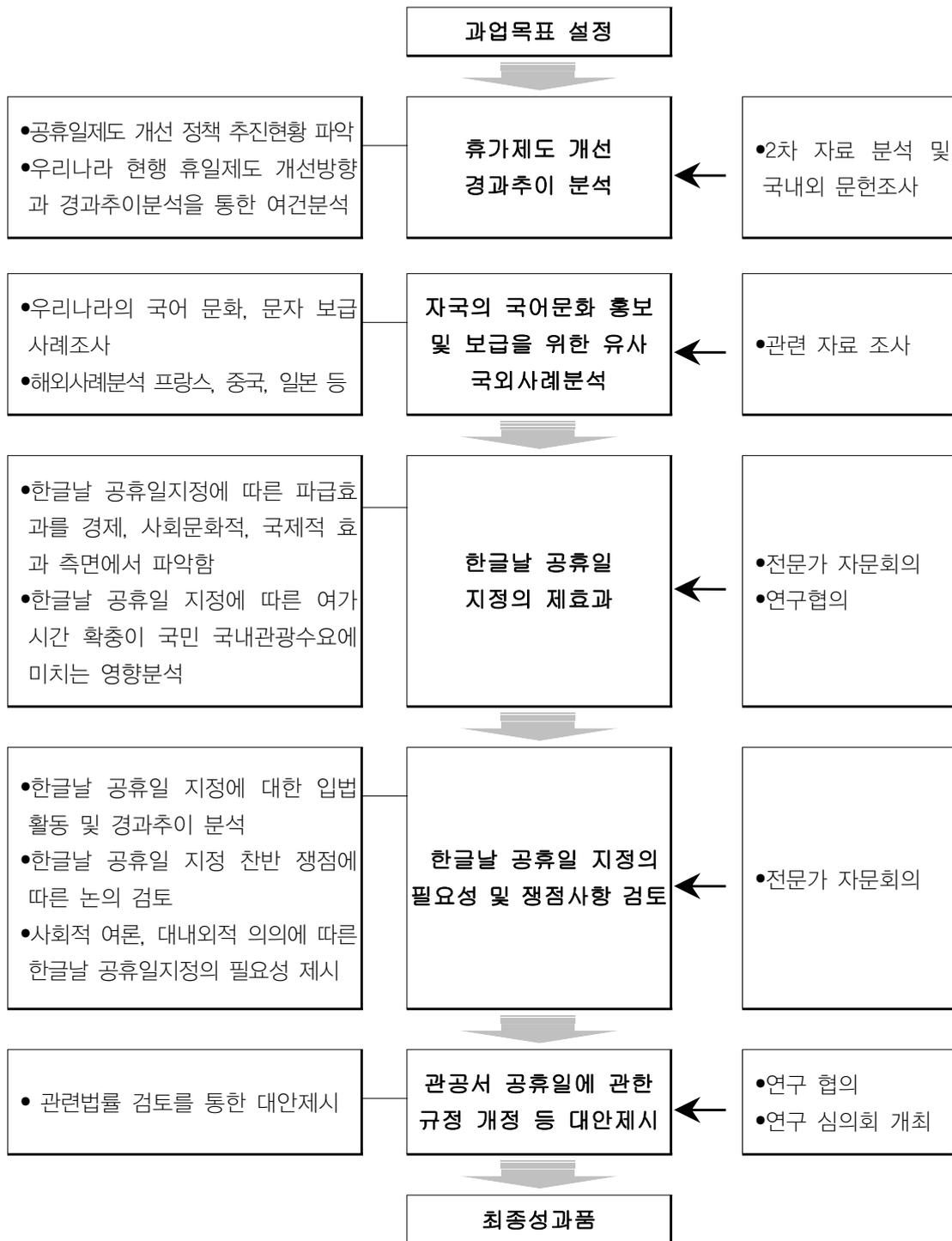
- 한글 및 한글날의 가치와 중요성 검토
- 우리나라 및 국외 자국어 문화 홍보 사례 분석
 - 우리나라의 문자, 국어 문화 보급 사례 조사
 - 언어 관련 국외 축제 사례 조사
- 한글날 공휴일 지정 관련 기관별 쟁점 사항 검토
 - 한글날 공휴일 지정에 대한 입법 활동 및 경과 분석과 찬반 쟁점 검토
- 한글날 공휴일 지정의 필요성 제시
 - 사회적 여론, 대내외적 의의에 따른 한글날 공휴일 지정의 필요성 제시
- 한글날 공휴일 지정으로 발생하는 예상 편익 및 비용 분석, 경제적 효과·사회문화적 효과·국격 제고와 국가홍보효과 분석
 - 한글날 공휴일지정에 따른 파급효과를 경제, 사회문화적, 국제적 효과 측면으로 파악
 - 한글날 공휴일 지정에 따른 여가시간 확충이 국민 국내관광수요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현행 휴일 관련 규정 및 법률 검토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시

■ 연구 방법

- 휴가 및 공휴일제도 관련 문헌 및 보고서 등의 선행연구를 검토 분석함
- 여러 나라의 언어 정책 사례와 국어문화 홍보 및 보급 관련 사례를 분석하여 한글의 보급 방안을 도출
- 전문가 자문회의, 연구협의회 및 전문가 심층 조사를 통해 한글날 공휴일 지정에 대한 의견 분석
- 공휴일제도 관련 「국경일에 관한 법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의 검토를 통한 대안 제시

3. 연구 수행 체계

- 본 연구는 연구 방향을 설정한 후 휴가제도 개선 경과추이를 분석과 자국의 국어문화 홍보사례 검토를 통해 한글날 공휴일 지정의 필요성 및 쟁점사항을 분석 함
- 선행연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한글날 공휴일 지정에 따르는 제 효과들을 파악하고,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의 당위성과 법률(안)을 검토함



4. 관련 용어 정리

가. 국경일, 공휴일, 휴일의 개념

■ 국경일

- 나라의 경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법률로 정한 경축일로 우리나라에는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있음(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

■ 공휴일

- 공휴일(公休日)은 국경일, 경축일, 일요일같이 국가나 사회에서 정하여 다 함께 쉬는 날이나 기관이나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약속에 따라 정기적으로 일제히 쉬는 날(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
 - 공적으로 늘 하던 일을 하루 또는 한동안 쉬기로 정한 날로서 대통령령으로 제정 공포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며, 법정 휴일과 약정 휴일의 성격을 지님

■ 휴일

- 휴일(休日)은 일요일이나 공휴일 따위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쉬는 날(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
 - 근로조건 자율결정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약속하여 정하는 ‘법정휴일’ 과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의 의무를 지지 않는 날로 정한 ‘약정휴일’ 이 있음

■ 대체휴일제도

- 대체휴일제도는 어떤 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치면 휴일이 아닌 날을 더 쉬도록 하여 공휴일이 줄어들지 않게 하는 제도(위키피디아, www.wikipedia.org)

- 대한민국에서는 1989년 한시적으로 실시한 적이 있으나 곧 폐지되어 현재까지 실시되고 있지 않으나, 입법 움직임이 있음
- 대체휴일제도는 대체공휴일과 비슷한 개념으로 혼용되어 사용됨

■ 휴무일

- 근로의무가 있는 것으로 정해진 날. 즉, 소정근로일이지만 근로의 의무를 면제해 준 날로 직무를 보지 않고 쉬는 날(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

■ 휴가

- 휴가(休暇)는 직장·학교·군대 따위의 단체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쉬는 일(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

■ 기념일

- 기념일(紀念日)은 축하하거나 기릴 만한 일이 있을 때, 해마다 그 일이 있었던 날을 기억하는 날(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
- 국가가 어떤 특정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날

<표 1-1> 휴일과 공휴일 관련 용어 정리

구 분	개 념
국경일	나라의 경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법률로 정한 경축일
공휴일	일요일이 포함되어 있어 관광서가 쉬는 날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국경일, 민속일, 탄신일 및 기타 기념일로 구성되어 있어 정부뿐 아니라 국민 전체가 참여하는 축일의 성격
휴일	취업 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근로의 의무가 없는 것으로 정해진 날,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
대체 휴일제도	대체휴일제도는 어떤 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치면 휴일이 아닌 날을 더 쉬도록 하여 공휴일이 줄어들지 않게 하는 제도
휴무일	직무를 보지 않고 쉬는 날
휴가	단체에서 일정기간 동안 쉬는 일
기념일	국가가 어떤 특정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날

나. 한글과 한국어의 개념

■ 한글

- 우리나라 고유 문자의 이름. 세종대왕이 우리말을 표기하기 위하여 창제한 훈민정음을 20세기 이후 달리 이르는 것으로, 1446년 반포될 당시에는 28 자모(字母)였지만, 현재는 24 자모만 사용함(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
 - 조선 제4대 임금인 세종이 1443년(세종25년)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는 이름으로 한글을 창제하고 1446년에 반포
 - 한글이 처음 만들어질 때, ‘백성을 가르치는 데 사용할 바른 소리(글자)’라는 뜻의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고 정함
 - 1894년 갑오개혁에서 한국의 공식적인 나라 글자가 되었고, 1910년대에 이르러 한글학자인 주시경이 ‘한글’이라는 이름을 사용함

■ 한국어

- 한국어(韓國語)는 한국인이 사용하는 언어로 형태상으로 교착어이고, 계통적으로는 알타이 어족에 속하며, 한반도 전역 및 제주도를 위시한 한반도 주변의 섬에서 씀. 어순(語順)은 주어, 목적어(또는 보어), 술어의 순이며 꾸미는 말이 꾸밈을 받는 말의 앞에 놓이는 것 따위의 특성이 있음(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

II. 한글날의 중요성과 관련 사례 분석

1. 한글의 가치와 중요성
2. 한글날의 가치와 중요성
3. 국어 문화 홍보 사례
4. 언어 관련 축제 사례
5. 소결

1. 한글의 가치와 중요성*

“한글은 가장 발달된 체계인 음소 문자에 해당되는 매우 과학적인 문자이다”

(국립국어원 누리집, www.korean.go.kr)

■ 민족 정체성으로서의 한글

- 대한민국은 한 민족이 한 나라를 이루며 단일한 언어와 단일한 문자를 사용하는 드문 국가에 속함
 - 현재 세계에는 수 천 개에 달하는 다양한 언어들이 있지만 이를 기록하는 문자는 수 백 여개를 넘지 않고 현재 사용되는 문자는 28개 내외에 불과함
 - 언어들이 문자를 갖고 있지 않으며 많은 언어들은 로마자나 그리스문자 등 몇몇 문자를 변용하여 사용함
 - 반면에 한글은 한국어를 표기하기 위한 유일한 글자이며, 대한민국의 공용문자임
 - 대한민국은 남한과 북한으로 나뉜 분단국가이지만 남북 모두 한국어를 사용하며 한글을 표기 수단으로 하여 한민족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한글 창제에 담긴 뜻

- 애민정신으로서의 한글
 - 「훈민정음」 서문에 따르면 세종대왕은 어리석은 백성이 글자를 몰라 곤란을 겪는 것을 안타까워하여 한글을 창제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 한글 창제가 단순한 의사소통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애민정신·민본주의를 바탕으로 깔고 있음
- 자주 정신의 확립(문화 독립)
 - 세종대왕은 한글 창제에 반대하는 당시 사대부들이 대대로 중국의 문물을 본받고 섬기며 사는 처지에 한자와는 이질적인 소리글자를 만드는 것은 중국에 대해서 부끄러운 일이라는 주장에 굴하지 않고 한글을 창제함

* ‘한글 및 한글날의 가치와 중요성’은 자문원고(박동근, 2011)에 의거하여 재작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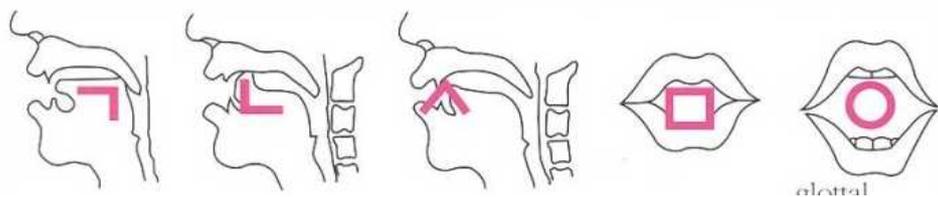
- 우리나라는 한글이 창제된 이후 비로소 국문학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음. 첫 성과로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반영한 ‘용비어천가’와 석가의 공덕을 찬양한 ‘월인천강지곡’ 등을 들 수 있으며, 허균의 ‘홍길동전’과 같은 한글 소설이 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음

■ 한글은 가장 발달된 문자 체계

- 세계에서 사용되는 문자는 크게 뜻글자와 소리글자로 구분되는데 한글은 발달된 소리글자임
 - 지금으로부터 5천년 경 황하,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등에서 발생한 문자는 흔히 상형문자라고 부르는 뜻글자들임
 - 시간이 지나면서 문자는 자연스럽게 표의문자, 음절문자, 음소문자로 발달하는데, 한글은 로마자와 더불어 소리글자 가운데 가장 발달한 음소문자임
- 최근 학자들은 한글을 음소문자에서 더 나아가 자질문자로 구분하는데 한글은 자질문자에 포함되는 우수한 문자임
 - 자질은 한 소리를 다른 소리와 구별해 주는 특징을 말하는 데 한글은 이러한 말소리의 특성을 고려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ㄴ, ㄷ, ㅌ’ 처럼 발음상 서로 관련이 있는 글자들이 자형면에서도 공통점을 갖고 있음
 - 즉 한글은 로마자와 같이 음소문자로 분류되지만 그보다 한 차원 높은 음소 자질문자라고 할 수 있음

■ 과학적이며 독창적인 창제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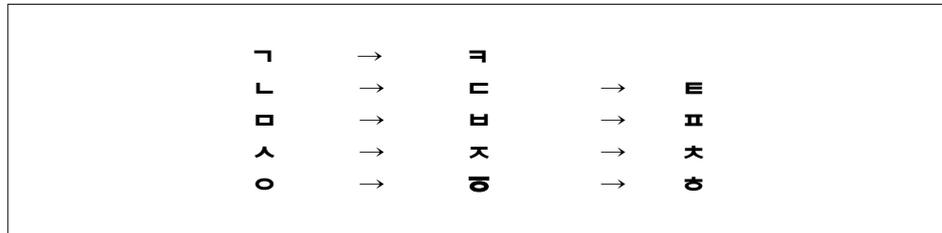
- 대부분의 문자가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데 반해 한글은 창제자가 알려진 몇 안 되는 문자 가운데 하나임
- 세종대왕은 발음기관에 대한 충실한 관찰과 말소리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 음과 같이 기본 글자를 창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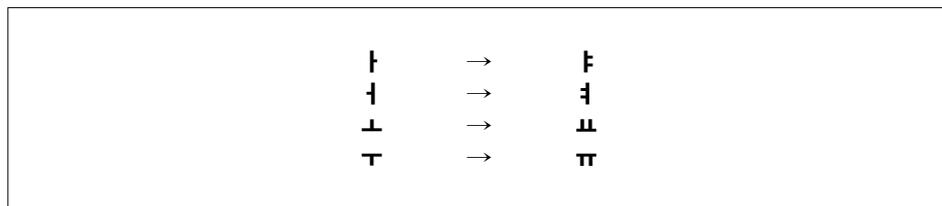
- 각 글자의 모양은 발음할 때 혀와 입술 등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딴 것으로, 매우 독창적이며 이상적인 제작 원리에 바탕을 둔 글자임

■ 체계적인 문자

- 한글은 글자와 글자 사이의 관계가 매우 정연하고 체계적인 글자로 자음은 기본글자에 소리의 세기에 따라, 가획의 원리에 따라 나머지 글자가 만들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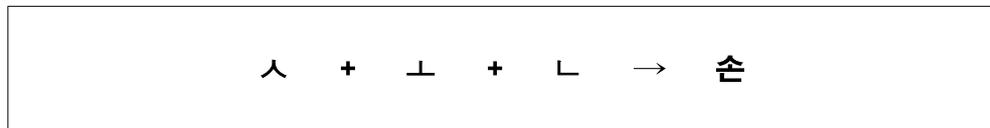
- 모음은 하늘과 땅, 사람을 본딴 ·, ㅡ, ㅣ의 기본자를 만들고 이들을 조합하여 나머지 모음을 만들었음



- 이는 로마자가 b : p, k : g, t : d, s : z와 같이 발음상 서로 관련이 있는 자음이나, a, e, i, o, u 등의 모음에서 자형상 일관성이 없는 것과 달리 한글이 매우 체계적인 자형을 갖고 있음

■ 글자 운용의 독창성

- 한글은 글자의 운용면에서도 다른 언어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독창성을 지님
 -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구분하여 적는 소리문자이면서도 로마자와 달리 가로로 풀어쓰지 않고 자음과 모음을 음절 단위로 모아쓰는 독특한 운용 방식을 갖고 있음
 - 한글의 모아쓰기 방식은 글자의 가독력을 높이고, 뜻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익히기 쉬운 문자

- 일반적으로 외국인의 입장에서 한국어는 다소 배우기 어려운 언어라고 여겨지는 반면에 한글은 그 어떤 문자보다 익히기 쉬운 문자로 알려져 있음
- 한글의 과학적인 창제 원리와 체계성, 독창적인 운용 방식은 한글을 배우기 쉬운 문자임
- 한글의 창제 원리를 설명한 「훈민정음」에는 한글에 대해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 나절이 되기 전에 이를 이해하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 만에 배울 수 있다” 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여러 사례를 통해 증명된 사실임

■ 조형성이 뛰어난 문자

- 한글은 자형의 조형면에서 뛰어난 예술성이 있는 문자로 인정받고 있음
 - 최근 한글은 문화나 예술 분야에서 새로운 매체로 관심을 받고 있어 다양한 부문에서 활용되어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한글 자형의 독창적인 아름다움에 매료됨

- 한글의 뛰어난 조형성은 글자체의 조화미와 균형성을 바탕으로 하는데, 최근에 패션 디자인이나 상품의 디자인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꾸준히 새로운 글자체가 개발되고 있음



■ 한국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 증진

- 한글은 우리나라 이미지를 높이고 상품화 할 수 있는 언어 문화 자원 임
 - 한글은 다른 나라와 변별력을 키우는 문화콘텐츠로서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음
 - 한글 이미지, 한글디자인 상품, 그리고 한글과 세종대왕을 알릴 수 있는 기념관 등을 통해 국가이미지 고취

■ 미래지향적인 글자

- 한글이 창제된 지 500년이 지났지만 한글은 시대를 뛰어넘어 미래를 내다본 미래 지향적 글자임
 - 지식 정보화 시대에 문자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데, 한글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잘 부합하는 글자임
 - 한글의 모두 24개의 자모로 이루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8개의 기본 글자를 가지고 나머지 글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10개에 불과한 핸드폰의 숫자판에 글자를 효과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한글 창제 원리인 가획의 원리를 이용하여 쉽고 빠르게 글자를 조합하여 입력할 수 있음

- 서구에서 개발한 전화기에 오히려 한글이 더 잘 활용되고 있는 예로, 한글의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단적으로 보여줌

1 	2 ·	3 —
4 ㄱㅋㄱ	5 ㄴㄹ	6 ㄷㅌㅌ
7 ㅂㅍㅂ	8 ㅅㅇㅅ	9 ㅈㅊㅈ
*	0 ㅇㅇ	#

■ 세계화 시대의 문화 매개체

- 세계화 시대는 세계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것을 세계로 알릴 수 있는 기회로 한글이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매개체임
 - 한글을 한류와 함께 한국을 알리는 도구이자 촉진제 역할을 함
 - 한글과 한국어는 한국문화를 창조하고 전달하는 도구임

■ 다문화 시대의 한글의 역할

-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 이주민이 200만 명을 넘은 다문화사회로 진입
 -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여 가정문제, 사회문제가 증가하는 실정임
 - 외국 이주민에게 한글에 대한 체계적 교육으로 그들이 한글을 국어로 인식하도록 노력하고 언어정체성을 확보하며 문화 홍보 매개체 역할을 하게 함

2. 한글날의 가치와 중요성

■ 한글의 가치 제고

- 한글은 문자사에 유래가 없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며 독창적인 문자로 한민족이 창제해 낸 여러 문물 중에서도 으뜸임
- 한글은 우리 문화 발전의 근간이 되었으며 짧은 시간에 근대화를 이룰 수 있는 초석이 되었으며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한 원동력으로 평가되고 있음
- 한글은 한민족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한글은 이미 세계 여러 석학의 평가에서 알 수 있듯이 세계인이 인정한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임

- 한국인은 국민들을 위해서 한글이라 불리는 전적으로 독창적이고 놀라운 문자 체계를 만들었는데, 한글은 세계 어떤 나라의 일상문자에서도 볼 수 없는 가장 과학적인 표기 체계이다(에드윈 라이샤워, 미국 하버드대 교수).
- 한글이 한국인을 위해 생각해 낼 수 있는 모든 문자들 가운데 최고이든 아니든 간에, 한글은 의심할 여지없이 인류의 가장 위대한 지적 성취 중 하나로 꼽혀야 한다(제프리 샘슨, 영국 서식스대 교수).

- 전문가 조사결과(2011. 5) 한글날 중요성에 관한 조사 결과 한글의 민족적 · 문화적 가치에 걸맞게 반포한 날을 온 국민이 기리고 높여 기념할 수 있도록 마땅히 공휴일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됨

■ 한글 창제의 정신 계승 발전

- 한글 창제에 담겨 있는 애민정신, 민본주의, 실용정신, 자주정신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요소로 한글날을 통해 한글의 창제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야 함
 -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의 뜻을 본받아 민본주의에 입각한 애민정신을 정치에 구현하고, 자주 정신을 함양하고 주체성을 갖고 있는 민족으로 자긍심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과학적, 독창적 사고의 계승·발전

- 한글 창제에서 보여주었던 탁월한 창의성, 과학적 사고를 계승 발전
 - 열악한 자연 자원과 어려운 국제 정세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세계의 IT 강국으로 우뚝 서 지금의 디지털 문화를 주도할 수 있는 것은 한글을 창제해 낸 민족으로서 뛰어난 창의성과 과학적 사고가 밑바탕이 되었기 때문임
 - 우리가 잠재적으로 이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한글에 대한 정확한 이해

- 한글날을 통해 한글의 소중함과 자부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글에 대한 국민들의 잘못된 지식을 바로 잡는 기회로 삼아야 함
 - 한글은 세종대왕이 발음 기관을 보고 창제했다는 분명한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한글의 창제 원리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음
 - 한글이 세종대왕의 창작이 아니라 한반도 고대부터 있었다든가, 일본의 문자를 본떴다든가 하는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의외로 많아 한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함
 - 방송이나 행사 등을 통해 한글 창제의 의미를 살리고 한글의 창제 원리에 대한 이해를 통해 국민들이 한글 사용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함

■ 한국어에 대한 인식 제고

- 한글은 언어인 한국어와 구별되는 문자이지만, 한글은 한국어를 표기하는 유일한 문자이므로 한글을 통해 한국어의 중요성이나 가치를 되새기는 기회가 되도록 함
 - 한글날은 문자인 한글 창제를 기념하는 날이지만 한글 창제 정신을 통해 언어인 한국어 사용에 대해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음
 - 무분별한 은어, 비속어의 사용, 차별적 표현의 사용 등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언어 생활을 반성
 - 적절하지 않은 통신언어 사용 등 우리말과 글을 왜곡하는 언어 사용에 대해 되돌아 보는 기회로 삼아야 함
 - 정확하지 않은 언어 사용, 무분별한 외래어, 어려운 한자어 사용에 대해 자각하는 기회

■ 언문일치의 경제적 가치

- 한글날을 공휴일로 정하는 데 반대하는 가장 큰 논리는 휴일에 근무에 따른 기업의 비용 부담과 노동생산성 저하임
- 하지만 1443년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한자를 사용하거나 부득이 로마자 등을 차용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을 것으로 한글이 가져다 준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야 함
 - 지금까지 뜻글자인 한자를 사용하고 있다면 언문의 불일치로 인한 의사소통의 불편함에 대한 경제적 비용은 계산이 거의 불가능함
 - 차선책으로 소리글자인 로마자를 차용했다고 하더라도, 로마자의 음운 체계와 한국어의 음운 체계가 달라 근본적으로 로마자는 우리말 소리를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는 문자 체계가 되지 못해, 의사소통에 불편함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 기업의 인건비 증대와 노동생산성 저하를 근거로 한글날 공휴일을 반대하는 것은 한글이 가져다 준 천문학적인 경제 효과를 간과하는 것임

■ 한글날 공휴일 폐지에 따른 후유증

- 한글날은 1970년 6월 15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제정·공포하여 공휴일로 정했으나 1990년 기념일로 바뀐 후 한글에 대한 경시 풍조가 발생됨
 - 1998년 영어 공용화 논쟁
 - 1999년 한자 병용 논쟁(초등학교 한자교육, 주민등록 한자 병기, 공문서 한자 병용 등
 - 2002년 통신언어 사용 극성
 - 2010년 6월 국립국어원 조사에서 지역 슬로건의 외래어(외국어) 남용, 기업 이름의 외국어화와 같은 낯선 정책명 처리 시간 비용은 연간 약 114억원으로 추산되어 경제적 비용이 발생
- 2006년부터 기념일에서 국경일로 승격되었지만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은 국민들의 기념일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함

■ 국가 브랜드 가치로서의 한글

- 최근 한류를 통해 한국어와 한글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로 한글날을 기념하는 모습을 통해 한글에 대한 한국인의 자부심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여러 한글날 기념 행사를 통해 한글에 대한 세계인의 인지도 증대 효과 모색
- 한글날 공휴일 지정은 한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를 통해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

3. 국어문화 홍보 사례

가. 우리나라 국어문화 홍보 사례

1) 국어문화 홍보 사례

가) 한글문화 정책 현황

- 한국 언어는 2009년 5월을 기준으로 국립국어원에서 주관해 온 국어 정책 중 순수 정책 기능이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 국어 정책과 관련된 과제가 이원화 됨
 - 국립국어원은 어문 정책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 연구하여 정책의 기반을 조성, 공공 언어 환경 개선,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한국어 교육 진흥을 위한 교재 개발 등 한국어 발전과 국어 생활의 향상 추구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어정책과는 문화정책이라는 큰 틀에서의 국어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국어의 보존과 발전에 관한 법령·제도 정비, 어문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등 제도적 기반구축 등에 관한 업무 수행
 - 국어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국어 정책 중 한글날 행사, 한글 산업화, 한글 가치 확산 및 진흥-홍보, 한국어 보급기관의 설치·지원 등 한국어 보급, 한국어 교원 자격제도, 외국인·다문화 가정에 대한 한국어 교육 정책 등이 새롭게 추가됨

■ 국어기본법

- 국어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기본법령으로서 2005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국어의 발전과 보전,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인위적 규제 및 단속 등의 규정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었음
- 국어기본법 시행령은 전문 19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 국어발전기본계획

- 국어기본법에 의거하여 5년마다 국어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언어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를 제시

- 2005년 1월에 국어기본법이 제정되어, 제1차 국어발전기본계획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립됨

■ 기타 정책 및 제도

- 국어기본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국어책임관 제도와 국어문화원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국어책임관 제도’는 중앙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며, 전국의 각 공공기관에서 국어책임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국어문화원’은 전국 16개소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어문 규범·문법 등 국어와 관련된 궁금증에 대한 답변에서부터 지역 언어문화의 보존·발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나) 국어 문화 홍보 사례

- 한글주간(2009)에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글을 세계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가장 힘써야 할 부분으로 ‘한글의 가치를 알리는 축제나 행사개최(33.4%)’라고 응답하였고, ‘세계 각국에 한글 교육기관 확대(30.0%)’, ‘한글에 관한 기념관(23.8%)’, ‘다문화 가정에 대한 한글교육 강화(11.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다양한 사회계층이 참여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글자인 한글과 단일 언어인 한국어의 가치를 확산하도록 다양한 홍보사업을 실시해야 함을 언급

■ 한스타일 사업

- 한스타일 사업은 한국의 고유성에 기반을 두어 세계적 보편성을 갖는 콘텐츠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의 고유문화를 브랜드화 하여 국가이미지를 높이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글, 한식, 한복, 한옥, 한지 한국음악(국악)의 6대 분야를 선정하였음

○ 문화체육관광부의 총괄하에 한스타일 지원협의회 구성

- 한글부분은 한류지원 및 해외보급 확대, 한글 교육 기반구축, 한글의 산업적 활용 및 정보화 촉진 등 한글 보급과 한글문화 콘텐츠 개발의 세부추진과제로 구성하여 한글의 위상을 향상

○ 문화관광부(2007) 보고서에 의하면, 한글부분은 한류지원 및 해외보급 확대, 한글교육 기반 구축, 한글의 산업적 활용 및 정보화 촉진 등 한글 보급과 한글문화 콘텐츠 개발에 국한된 6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표 II-1> 한스타일 사업에서의 한글문화정책 세부추진 과제 현황

구분	추진과제	주요 사업내용	관련기관
한류 지원 및 해외 보급 확대	해외세종학당 개설 및 운영 지원	해외대학 한글(교육)과 개설 지원 한류확산지역 세종학당 개설 및 운영	외교부, 문화부 (국립국어원), 한국국제교류재단
	국내외 한글전문가 양성 및 초청 교육	국외 한글교사 초청 교육 한글교육전문가 국외 파견 교육 한글교육능력 검정시험 활성화 온라인 국내외 한글교사 재교육시스템 구축	문화부 (국립국어원) 관련기관
한글 교육 기반 구축	해외실정에 맞는 맞춤형 한글교육자료 개발	한글초급교재를 현지 언어로 번역 출간 드라마 등 한류상품의 교육자료 개발 한글 초급학습자를 위한 학습 부교재 개발 해외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글 교재 보급	문화부 (국립국어원) 관련기관
	이주민 대상 한글 교육	국제결혼 이주여성 대상 한글교육 이주노동자 대상 한글교실 운영 한글교육전문가 양성, 자원봉사자 연수 이주외국인 교육 교재 개발 이주외국인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미취학다문화가정자녀 한국어문화 교육 지원 이주외국인을 위한 www.glokorean.com 운영	문화부 (국립국어원)
한글의 산업적 활용 및 정보화 추진	한글 디자인 상품 공모 및 개발 사업	한글이미지화 공모전, 전시회 개최 다양한 한글폰트 개발 지원 한글이미지화 전문가 협의체 구성 한글 상품의 마케팅 전략 개발	문화부 (국립국어원) 관련기관
	한글 전자 학습 체계 구축	한글 전자학습 체계 구축 한글교육전문가 웹커뮤니티 개설 및 운영	문화부 (국립국어원) 관련기관

자료 : 문화관광부(2007), '한스타일' 육성 종합계획

■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보급

- 한국어 학습자 수요 증가에 따라 범용성 있는 교재와 학습자 특성에 맞는 교재를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 다양한 한국어 교재가 보급되고 있음
- 한국어 초급, 중급1, 중급2 등 일부 교재는 개발 및 현지화 작업을 거쳐 6개 언어로 출판되었으며, 이들 교재는 특히 한국문화와 현지 문화가 적절히 배합된 쌍방향의 교재로 개발·보급함으로써 현지 문화와 마찰 없이 학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등 여러 정부 부처와 관련 기관들이 국내·외에서 한국어 교육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 국외의 재외동포와 현지 외국인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 사업은 주로 문화체육관광부, 외교통상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으로 진행 중이며, 결혼이민자나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노동부, 법무부가 지원하는 여러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표 11-2> 국내·외 한국어 교육기관 현황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기관명	한국문화원*	세종학당	한국교육원	한글학교
기관수	11개국 11개소	5개국 19개소	14개국 39개소	114개국 2,111개소

부처	문화체육 관광부	복지부	법무부	교육과학 기술부	노동부
기관명	국어문화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주민센터/ 다문화이해센터	다문화교육 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기관수	14개소	100개소	13개소	5개소	5개소

주)* : 재외문화원 중 세종학당으로 한국어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3개소를 제외한 수치임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0), 한국어 교육기관 실태 및 수요 조사

■ 한국문화원

-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문화원은 한국문화의 국외 홍보 및 국가 이미지 제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11개국 14개가 운영되고 있음
- 주재국의 한국문화 수요를 고려하여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문화예술, 관광, 콘텐츠 등 한국 문화 소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세종학당이라는 브랜드로 한국어 강좌를 운영하고 있거나 할 계획임

■ 세종학당

- 세종학당은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국어와 문화를 교육하는 기관 또는 프로그램임
- 세종학당은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가 가속화 되면서 각국의 언어가 정보소통의 핵심요소로 역할이 강조되고, 한국어 학습 수요의 급증과 수요층의 다양화에 대응하고자 정부 주도로 설립되었음
 - 동 기관의 설립목적은 상호주의 문화 교류를 통한 국가 간의 협력 확대, 실용 한국어 교육의 확산, 한국 문화 교류 확대를 통한 언어와 문화 다양성의 실현 등임
- 세종 학당은 사회교육원 형태의 현지 한국어 교육 문화시설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통합적으로 교육하며, 누리 세종학당은 인터넷을 통하여 세종학당 교원들 간의 네트워크 기능과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함
- 세종학당 브랜드화를 추진함에 따라 한국어 교육기관과 프로그램에 대한 표준화된 관리를 통해 한국어 교육기관의 인지도와 접근성 향상을 이끌 수 있으며, 한국어뿐 아니라 한국 문화의 우수성과 역량을 대내외적으로 알려 국가 브랜드 제고에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
 - 국립국어원(2007c)의 발표에 따르면, 세종 학당 설립 및 운영을 통해 유·무형의 경제적 효과를 모두 포함하면 연간 약 1조 8천 268억 원 정도의 직·간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한국교육원

- 한국교육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외 교육기관으로서 재외공관의 부속 기관 형태로 14개국에 39개 원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주재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 및 한국문화, 역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원하는 교육기관임(문화체육관광부, 2010)
 - 이밖에 주재국 재외동포 및 현지인에 대한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 지원 사업 추진, 유학원 상담실 운영, 주재국의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총괄, 모국 초·중·고등학교 배치 원어민 교원 채용 업무 등을 수행

■ 한글학교

- 외교통상부에서 관할하고 재외동포재단의 지원을 받고 있는 한글학교는 114개국에 2,111개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대부분 자생적으로 설립되어 재외 동포 또는 재외국민 자녀의 한국어 교육 사업에 주력하고 있음
 - 재외동포나 재외국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미국에 1,059개와 러시아·CIS 독립국가에 472개로 가장 많은 수가 분포되어 있음

■ 국어문화원

- 국어문화원은 본래 국어 연구 활동과 올바른 국어 교육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시설이나 국제결혼으로 가족을 이룬 다문화가족의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이해를 돕기 위해 2008~2009년에는 지방문화원과 공동사업의 형태로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였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지원으로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사업을 통한 한국어 교육 서비스 등과 같은 각종 사회·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기타 한국어 교육기관

- 법무부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재한 외국인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빨리 익히고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지역 사회에 쉽게 융화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교육과학기술부의 다문화가정교육지원센터는 현재 지자체 교육청 지원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 자녀와 어머니에 대한 한국어 및 문화 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노동부의 재정 지원을 받고 산업인력공단에서 관할하는 외국인근로자센터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한국어 및 한국 문화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2) 한계점 및 시사점

■ 국어와 관련한 대국민 차원의 관심 제고 방안 필요

- 현재 국어의 정확한 사용이나 올바른 활용에 관한 정책에 집중하고 있으나, 이외에도 시대적 변화에 따른 국어의 발전에도 전반적 정책에 관심이 요구됨
- 특히, 한국인에게 한국어의 사용은 일상화되어 언어의 보전이나 발전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소극적인 국민들의 태도를 전환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한국어 관심 제고 방안이 필요함

■ 현지 일반 대중을 위한 교육체계 개선 방안 필요

- 해외에 설립된 한국어 교육기관 중 현지 대학에 개설된 강좌의 경우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우며, 재외 한국문화원에 집중되고 있는 한국어 강좌는 시설 및 무자격 강사들로 인하여 교육의 질적 수준 저하가 우려됨
- 따라서 해외 한국어 교육기관의 홍보를 통한 수요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의 재정이나 인력과 같은 제반여건 마련을 통하여 한국어 강좌의 질적 수준을 증진시켜야 함.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 등의 수단을 통한 지원이 필요함

■ 체계적인 한국어 국외 교육 진흥을 위한 예산 필요

- 교육과학기술부와 외교통상부의 한국어 국외 교육 사업비의 대부분은 재외 국민과 재외 동포의 제도권 교육 지원 사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2010년 한국어 교원양성 및 교육자료 개발에 투입되는 예산은 1,466백만원에서 1,393백만원으로 73백만원 감소하였음
- 따라서 ‘세종학당’의 본래 추진 목표인 세계 속의 언어로 한글을 발전시키고 한국어 학습 수요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진흥을 위한 현실적인 규모의 예산 책정이 요구됨

■ 경제·산업적 측면에서의 한글의 역할 강화 방안 필요

- 한글을 단순히 문자나 도구로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경제·산업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며, 한글과 관련한 다양한 상품들을 개발하여 한글의 경제적 산업적 가치를 제고해야 함
- 이러한 한글의 역할 변화에는 민간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정부에서 한글의 경제 및 산업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민간 부분에서의 노력에 대한 주요 사례로는 이상봉 디자이너의 한글 디자인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언어의 전파를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다른 상품/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시킬 수 있어 정부 차원의 노력이 요구됨

나. 국외 자국어 문화 홍보 사례

1) 프랑스

■ 프랑스 학술원(Académie Française)

- 프랑스 학술원(Académie Française)은 프랑스어를 관찰하여 언어 정화와 관련 활동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 프랑스어의 정화 활동으로 프랑스 학술원은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동의 유산을 만들기 위해 프랑스어를 정화하려고 사전(辭典) 편찬에 몰두함
- 프랑스어 관련 활동의 후원 활동은 기부금에 의해 충당되는 후원금으로 매년 약 60개의 문학상을 수상함. 특히 1986년 이후 매년 시상되는 ‘프랑스어권 대상(Grand prix de la Francophonie)’은 세계에서 프랑스어 위상을 드높이기 위한 프랑스 학술원의 노력을 보여주며, 그 밖에 문인 협회, 학술 협회, 우수 문예 작품, 우수 문인 또는 그 가족에 대해 보조금 지원

■ 프랑스어 연합(Alliance Française)

- 프랑스어 연합(Alliance Française)의 설립 목적은 ‘프랑스어 연합’의 명칭을 사용하여 전 세계 기관망을 통해 국경을 넘어서 프랑스 언어와 문화를 전파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설립
 - 현재 136개국에 1,040개의 프랑스어 연합이 있는데, 매년 45만 명 이상이 프랑스어를 배우러 오고, 6백만 명 이상이 문화 활동에 참여
 - 파리 프랑스어 연합은 프랑스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공공 영리 기관이지만 외국의 프랑스어 연합은 설립과 운영에 주도권을 가진 파리 프랑스어 연합 본부의 프랜차이즈 성격을 가지고 있음
 - 프랑스어 연합의 주요 사업으로 프랑스어와 문화를 교육하여 프랑스 교육부에서 공인하는 소정의 수수료율을 발급해 주고 있음
 - 연간 운영 예산은 약 144억 원이며, 이 가운데 95%는 자체 수입이며 5%만 국고 보조를 통해 운영되고 있음

<표 II-3> 알리앙스 프랑세스의 주요 프로그램

구분(교육 과정)		목적
교육과정	정규 과정	- 성인 학습자 대상으로 일반 언어 학습 코스 운영 - 수준에 따라 A1/2, B1/2, C1/2로 구분
	특별 과정	- ‘정규 과정’과 비슷하나 특화된 주제에 따라 ‘토론, 신문 강독, TV 청취, 말하기 듣기’ 등의 반이 운영
	현지 특화 과정	- DELF시험 준비를 목적으로 하거나 학문 목적의 글쓰기 등의 주제로 개설
시험주관		- 프랑스 정부에서 인정한 어학능력증명 평가 기관 (DELF, DALF, TCF, TEF, BULATS)

자료 : 알리앙스 프랑세스 누리집. www.alliancefr.org

2) 일본

■ 국립국어연구소(國立國語研究所)

- 일본의 ‘국립국어연구소(國立國語研究所)’는 기존의 일본어 연구를 바탕으로 하면서, 연구의 국제 거점으로 대학 연구 기관과 협력하여 대규모 이론적 실증적 공동 연구를 전개함. 언어의 연구를 통해 인간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일본어 특질의 전모를 알림
- 연구소의 공동연구의 성과 및 관련 연구 문헌 정보를 사회에 널리 제공하고, 연구를 통한 일본어 교육, 자연어 처리 등 다양한 응용 부분을 알리는데 기여

■ 국제교류기금(國際交流基金)

- 일본의 ‘국제교류기금(國際交流基金)’은 독립행정법인 형태로 운영되며 국제문화 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해외에서 일본어 보급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1972년 설립당시에는 외무성 소관의 특수법인 형태로 시작하였음
- 설립 초기에는 예술 교류나 해외 일본 연구의 진흥을 중시하였으며 일본어 보급은 해외에서 일본 연구를 진흥하기 위한 보조 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었으나, 90년 이후 해외 일본어 학습자 수의 급증으로 현재에는 일본어 보급을 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주요 사업은 일본어 교육 전문가 파견, 각국의 일본어 교육기관 지원, 일본어 능력시험, 일본어 교육 연수 사업, 교재 개발, 일본어 교육 정보 자료 제공 등 일본어를 전 세계에 전파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2011년 현재 19개국 20개소의 거점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133개국 약 300만 명이 일본어를 수강하며 연간 약 170억 엔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음(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누리집. www.jpfr.or.kr)
 - 주요 재원으로는 정부보조금 약 85%, 운용수익, 기부금 등의 자체수입 9%, 민간기부금 6%로 이루어짐

<표 II-4> 일본 국제교류기금의 주요 프로그램

구분	사업 내용
일본어 교육 전문가 파견	- 세계 각국의 일본어 교육 전문 기관이나 기금의 해외 사무소에 일본어 교육 전문가 파견
세계 각국의 일본어 교육기관 지원	- 세계 각국의 교육기관에서 일본어 강사를 고용하거나 일본어 말 하기 대회를 개최할 경우 필요 경비 지원 - 교사회, 학회 등이 심포지엄을 개최할 경우 경비 지원
일본어 능력시험 (JLPT)	-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본어 능력을 측정, 인정하는 시험 실시
일본어 교육/연수 사업	- 세계 각국의 일본어 교수, 연구자 등의 전문가나 일본어 학습자 를 일본으로 초빙, 교수법의 습득이나 일본어 능력 향상을 도모 하는 연수 실시
일본어 교재 개발 및 제작 지원	- 일본어 교재 작성용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 - 해외 현지의 일본어 교육기관에서 일본어 교과서 등을 제작할 경우 경비 지원
일본어 교육 정보 자료 제공	- 세계 각국의 일본어 교육 학습의 동향을 조사하여 그 정보를 간 행물, 전자 미디어 등을 통해 공개 - 부속 일본어 연수시설 및 해외 사무소 도서관에서 관련 자료 열 람 및 대출 실시

자료 :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누리집, www.jpfr.or.kr

3) 중국

■ 교육부 언어문자 응용연구소

- ‘교육부 언어문자 응용연구소’는 1984년 설립된 언어 정책 전문 기관으로 중국 정부의 표준어 보급화 정책을 비롯한 각종 국가 언어 정책에 이론적이며 학술적인 근거를 제시함
- 중국의 ‘국가언어문자작업위원회’는 국가언어문자작업의 방침 및 정책의 초안을 작성하여 언어문자의 중장기계획을 편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표준어 작업을 지도하여 중국어를 보편화 시키고자 함
 - 전세계 중국어의 부흥과 도전을 위한 연구와 국가언어위원회의 현대 중국 언어 데이터베이스 소개에 관한 연구를 진행시킴

■ 공자 학원

- 공자학원은 세계화 물결 속에 중국문화의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통적 문화요소를 통해 새로운 국가적 정체성을 모색하는 과정 속에서 설립되었음
 - 중국정부는 ‘공자학원’을 세계 구석구석에 설립하여 중국어를 널리 알리고, 자국문화, 정치이념, 정책을 소개하여 중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음
- 동 기관은 2004년 12월 한국을 시작으로 2010년 말 96개국 322개의 공자학당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추가로 50개국의 250여개의 기관이 공자학당 설립허가 신청을 받기 위해 준비 중임(서울공자아카데미 누리집. www.cis.or.kr)
 - 단기간에 급속도로 공자학당이 진행되어 전체적인 규모의 확산은 이루어졌으나, 교재의 낮은 질과 전문 교원의 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중국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원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고 있음
- 최근 공자학당은 중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중국 비즈니스, 중국 의학 등 다양한 종류의 학습형태를 모색하기 시작하였으며, 대면식 수업뿐만 아니라 라디오와 인터넷을 사용하는 등 다양한 교육 방식을 추진하고 있음

<표 II-5> 중국 공자학원의 주요 프로그램

구분	사업 내용
어학 교육	- 일반 중국어 어학 프로그램
특별 교육 프로그램	- 중국어 교육 이수 후 중국 대학에 편입 프로그램 운영 - 비즈니스 관련 지식을 배우는 ‘비즈니스 공자학원’ 운영 - 중국 의학을 배우는 ‘한방 공자학원’ 운영 - 라디오와 인터넷을 이용한 ‘라디오 공자학원’, ‘인터넷 공자학원’ 운영
교재 개발	- 멀티미디어 사용 교재 개발(2003년부터) - 중국어 학습교재 長城漢語(장성한어) 제작 -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
어학 인증	- HSK 시험(어린이용 / 비즈니스용 / 여행 업무용)
중국어 홍보	- 세계 대학생 중국어 콘테스트, 세계 중국어 대회 개최

자료 : 서울공자아카데미 누리집. www.cis.or.kr

4) 독일

■ 괴테 인스티튜트(Goethe Institute)

- 독일의 괴테 인스티튜트(Goethe Institute)는 국제 사회에서 국가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독일인 스스로 자신의 문화를 자각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발한 독일 아카데미를 그대로 계승한 단체로 1951년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음
 - 괴테 인스티튜트는 긍정적인 독일 문화의 업적을 소개함으로써 독일어 학습의 동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독일에 대한 신뢰를 되돌리는 것’을 모토로 하였음
- 설립 당시에는 주로 외국에 있는 독일어 교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첫 번째 목적으로 하였지만, 그 후 독일어 교육시설을 설립하여 독일의 문화를 소개하는 문화 프로그램과 상대국과의 문화교류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음
- 2009년 현재 88개국 153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매년 약 2,900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약 17만 5천 명 이상을 교육하고 있음
 - 주요 재원은 정부보조금 67%, 독어 교습비 등의 자체수입 33%로 이루어짐

<표 II-6> 독일 괴테 인스티튜트의 주요 프로그램

구분	사업 내용
어학 교육	- 언어 단계별 과정 운영 - ‘정규과정’ : A1~C2까지 각 단계별 72시간으로 구성 - ‘특별강좌’ : 집중 강좌, 원격 강좌 - ‘현지 특화 과정’ : 직장인을 위한 비즈니스 코스, 어학증명 코스

자료 : 주한독일문화원 누리집, www.goethe.de/seoul

5) 영국

■ 브리티시 카운슬(British Council)

- 브리티시 카운슬(British Council)은 영국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영어의 구체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1935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외무성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비정부 공익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음
 - 동 기관은 정부 정책의 입안과 결정에 관여하고 보조를 맞추면서도 단체의 독립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성격을 유지하며, 언어·문화 교육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 현재 110개국에 238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200개가 넘는 영국의 해외 대사관과 109개 국가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운영 예산은 약 1조 521억 원에 달함
- 2010년 브리티시 카운슬의 annual Report에 따르면 2009년 한해 약 50만 명 정도가 영어를 배우러 왔으며, 오프라인으로는 약 1,840만 명, 온라인을 통해서는 6,520만 명에 달하는 많은 사람들이 동 기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음(브리티시 카운슬 누리집)
- 2009년 1년 예산은 약 705백만 파운드이며, 이중 서비스 제공 비용 등을 통한 수입이 51%(362백만 파운드), 기금을 통해 조성된 금액이 30%(211백만 파운드), 이 밖에 계약 및 기타 수익 등을 통해 19%(132백만 파운드)가 조성되어 운영됨

<표 II-7> 영국 브리티시 카운슬의 주요 프로그램

구분		사업 내용
교육 과정	정규과정	- 어린이/성인 학습자 대상 프로그램 운영 - 수준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지 특화과정	- 취업 목적을 위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 시험 준비를 목적으로 한 IELTS 시험 준비반 - 유학 준비반
어학시험 주관		- IELTS(국제 영어능력평가시험) - YLE(케임브리지 어린이 영어 시험) - BULATS(기업 및 기관 대상 비즈니스 영어 시험) - FCE/CAE/CPE(영국 학교 진학을 위한 국제 영어능력인증시험)
문화 전파 활동		- 영상물 및 각종 문화 프로그램을 통한 활동 등 영국 문화에 대한 체험 기회 제공

자료 : 브리티시 카운슬 누리집, www.britishcouncil.org

6) 이탈리아

■ 이탈리아 문화원(Instituto Italiano di Cultura)

- 이탈리아 문화원은 이탈리아 언어와 문화의 보급을 추진하고 외국과의 지적 교류를 발전시킨다는 목적을 가지고 법률에 따라 1926년 설립되었으며, 외무부 산하 기관으로 대사관, 영사관의 문화 활동 분야를 담당하고 있음
 - 현재 세계 60개국에 90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각 국가에 설립된 이탈리아 문화원은 개인의 의지에 의해 설립된 경우도 있음
- 다른 국가의 단체와 다르게 이탈리아 문화원은 문화 분야와 연계되는 다양한 사람들의 만남과 활동의 장이며, 재외 이탈리아인과 그 나라의 시민들에게 이탈리아와의 연계를 깊게 하기 위한 장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표 II-8> 이탈리아 문화원의 주요 프로그램

-
- 문화인과 예술인 등 문화 분야와 관계되는 사람들의 만남과 활동의 장소
 - 재외 이탈리아인과 현지 국민들에게 이탈리아와의 연계 강화를 위한 장소
 - 예술, 음악, 영화 등 이벤트의 기획 및 개최와 이탈리아어와 이탈리아 문화 코스의 개최
 - 도서관의 운영
 - 이탈리아어 교수법 자료의 제공
 - 국제 수준의 문화 교류
 - 이탈리아 각 기관/관계자의 연락 구축 혹은 기반 조성 등
-

자료 : 주한이탈리아문화원 누리집, www.iicseoul.esteri.it

■ 단테 알리기에리 협회(Societa Dante Alighieri)

- 단테 알리기에리 협회(이하 단테 협회)는 1889년에 자발적인 정치적 요구를 가지고 설립되어 국가를 대신하여 국내·외에서 이탈리아 언어와 문화 교육 활동을 담당함
 - 2008년 현재 81개국 519개의 지부를 두고 운영되고 있으며, 지부의 경우 이탈리아 내에서는 50명 이상, 국외에서는 25명이상일 때에 설립할 수 있음

- 단테협회의 지부 활동은 국내외로 나뉘어 정해져있는데, 외국의 경우 이탈리아 언어·문화 코스 지원, 문화적인 요소를 지닌 행사 추진, 장학금 지급 등이며, 이탈리아 국내에서는 언어 및 문화보급, 이탈리아인에 의해 만들어진 제품을 보급하기 위한 사업의 진행 등임

<표 II-9> 이탈리아 단테 알리기에 협회의 주요 프로그램

구분	사업 내용
국내 지부	- 이탈리아 언어, 문화 보급 - 이탈리아 인에 의해 만들어진 제품을 보급하기 위한 사업 개최
외국 지부	- 학교, 도서관, 동아리, 이탈리아어 코스, 문화 코스 등 지원 - 출판물의 보급, 문화적 요소를 지닌 여행, 전시회 등 개최 지원 - 각종 장려금 및 장학금 지급

자료 : 주한이탈리아문화원 누리집. www.iicseoul.esteri.it

7) 스페인

■ 인스티튜트 세르반테스(Instituto Cervantes)

- 인스티튜트 세르반테스는 1991년 3월 그 설립법이 공포되었고, 외무부가 소관 하는 대외 언어·문화 정책을 위한 공적기관으로써 스페인어와 문화의 보급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 동 기관은 언어 교육 및 문화 보급을 위한 도구로서만이 아니라 대화와 의견의 교류, 상호 문화 이해 및 문화 간의 만남, 협력의 장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자국어 브랜드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주요 성과로는 브라질에서 의무교육 항목으로서의 스페인어 과목 설치, 그리스·터키의 스페인어 과목 설치, 미국 내에서의 스페인어 화자의 증가 등의 꾸준한 수요 창출 및 활동 전개라고 할 수 있음
- 현재 해외에 설립된 인스티튜트 세르반테스 해외 거점 지부는 42개국 72개소이며, 이와 유사한 인준기관으로 인스티튜트 세르반테스 연맹기관(Centro Asociado al Cervantes)은 스페인 국내에 75개소, 해외에 15개소

가 운영되고 있음

- 동 기관은 인터넷을 통해 스페인어를 학습할 수 있는 스페인어 버추얼 수업(Aula Virtual de Espanol, 이하 AVE)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접속자수는 2006년에 약 1,300만 건에 이르렀음
 - 이밖에도 스페인 방송협회의 국제방송을 통해 라디오 및 텔레비전 스페인어 관련 방송이 제공되기도 함
- 주요 재원은 정부보조금 40%와 스페인어교습비 등의 자체수입 60%로 구성됨

<표 II-10> 스페인 인스티튜트 세르반테스의 설립 목적 및 주요 활동

구분	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페인어 교육, 연구 및 사용을 전 세계에 장려하고 이 활동을 통한 보급과 질의 향상에 공헌하는 모든 것의 진흥을 도모함 - 국가가 관할하는 다른 조직과 연계하여 국외의 스페인 문화의 보급에 기여함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을 설치하고 스페인어 교육 강좌를 조직, 촉진시킴 - 교육문화부에 의해 교부된 공적 자격 취득을 위한 스페인어 검정 시험을 운영함 -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및 시청각 교재를 통해 스페인어의 전파, 교원 양성, 언어 교재를 지원하고 이것을 위해 교재의 간행과 이를 유도하는 활동을 촉진하고 실현함 - 스페인어 연구와 그 교육을 장려하고, 스페인 연구자와 외국의 연구센터를 위해 협력하며 이를 지원하는 조직으로서 기능함 - 인스티튜트 세르반테스의 목적에 따라 문화적인 활동을 실행 - 그 목적을 공적/사적, 국내/외의 구분 없이 동등하게 두고, 대학이나 기타 기관과 협력하여 협정을 맺음 - 목적 수행으로 이끄는 기타 어떠한 활동이라도 성실히 수행함

자료 : 주한스페인문화원 누리집, www.spain.or.kr

4. 언어 관련 축제 사례

가. 한글날 관련 행사 및 프로그램 사례

■ 한글주간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글 반포 제562돌을 기념일을 맞이하여 2008년 10월 4일부터 11일까지 한글 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고, 2008년 이후로 한글날 주간을 한글주간으로 지정하여 한글관련 프로그램을 구상하여 행사를 개최함
- 한글날 큰잔치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는 국립국어원과 한글학회,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외솔회, 한글문화연대, 우리말로 학문하기 모임 등 한글 단체와 국립국악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문화 예술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전국 각지에 다양한 한글 관련 문화예술 행사를 마련
- 2008년의 한글날 행사는 경복궁 수정전에서 기획 전시로 ‘한글, 스승전 : 어머니 품으로 돌아온 훈민정음’ 이 개최되어 세계문화유산 훈민정음, 특별한 글자 한글, 한글을 빛낸 인물들, 다양한 한글꼴의 등장 등 12개의 테마로 진행됨
 - 문화유산으로의 한글 전시를 통해 한글의 참 가치와 우수성, 한글정신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널리 실천됨을 기대함
- 2009년의 한글주간 행사는 ‘한글, 세상을 담은 아름다운 그릇’이라는 주제로 한글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일곱 가지의 한글 테마 행사를 개최했음
 - 크게 한글날 경축식과, 한국어교육자대회, 전시와 학술대회 및 문화 행사, 아름다운 우리말 100선 선정, 세종대왕 문해상 수상자 초청 행사 등이 준비되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한글의 가치를 알림
 - 한글날을 기념하는 학술 대회가 개최되어 한글을 지키고 가꾼 초창기 한글 학자들의 생애와 사상을 살피고, 정보화 사회에서 더욱 빛이 나는 한글의 발전 방향을 제시함
- ‘한글, 세상과 어울림’이라는 주제로 2010년에는 한글의 가치와 의미를 조명

하는 각종 행사와 대회를 마련

- ‘한글 글꼴전’은 한글날을 맞이하여 ‘글꼴’을 중심으로 한 한글의 문자로서의 가치를 알리고 한글의 무한한 창조적 가능성을 보여줌
- 한글의 전통 글꼴에서부터 현대의 개성적 글꼴, 정보화에 부응한 응용 글꼴에 이르기까지 한글 글꼴의 역사와 미래를 보여주고, 내외국인들이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과 조형적 아름다움과 잠재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나. 국외 언어 관련 축제 사례

1) 프랑스

■ 세계 프랑코포니의 날

- 프랑코포니(La Francophonie)란 프랑스어를 주로 쓰는 국가들로 구성된 국제 기구이며, ‘국제 프랑스어 사용국 기구’를 뜻함. 국제 무대에서 프랑스어의 위상을 지키고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프랑스를 중심으로 창설
 - 프랑스어는 영어가 국제언어로 급부상하기 전인 제1차 세계대전까지 유럽의 유일한 외교언어였음
- 1990년 이래 전세계 프랑코폰(프랑스어를 말하는 사람들)들은 매년 3월 20일을 세계 프랑코포니의 날로 정해서 축제를 개최
 - 3월 20일을 세계 프랑코포니의 날로 정한 이유는 1970년 나이지리아의 니아미에서 현 ‘국제 프랑스어 사용국 기구(OIF)’의 전신인 문화 기술 협력 기구(ACCT) 창설 조약에 사인을 한 날을 기념하며 프랑스어 축제일로 지정

- 매년 3월에는 프랑스어를 쓰는 5개 대륙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와 음악회, 회의, 오락, 전시회 등 축제 행사들이 열림
- 전세계 2억명의 프랑스어 사용자와 ‘국제 프랑스어 사용 기구(OIF)’에 속해있는 68개국 8천 3백만명이 모여 자축하는 날
 - 프랑스어 사용자들에게 다양한 다른 문화속에서 더불어 살고 싶어 하는 희망과 연대감을 확인하는 기회임
- 우리나라에서는 세계 프랑코포니의 날을 맞아 알리앙스 프랑세스 · 프랑스 문화원에서 다양한 행사들을 개최함
 - 지정된 프랑스 단어가 들어간 글짓기 대회, 받아쓰기 대회, 프랑스 요리 교실, 프랑스 영화 상영, 프랑스 노래교실, 한국 사회에서 사용되는 프랑스 이름 전시회, 프랑스 포도주와 치즈의 밤 등의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었음



2) 불가리아

■ 슬라브 문자 및 문화의 날(5.24)

- 슬라브 문자 및 문화의 날은 슬라브어를 창제한 불가리아의 끼릴과 메토디 형제를 기리는 날로, 불가리아 국경일 중 가장 성대한 축제일이며 불가리아 국민들의 민족적 자부심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기념일임
 - 매년 5월 24일, 주한불가리아대사관과 한국외대 불가리아어과는 공동으로 이 축제일을 준비해 오고 있음
- 우리나라 한국외대 용인캠퍼스의 불가리아어과 학생들도 끼릴과 메토디

의 업적을 기리는 슬라브 문자 및 문화 창제의 날 축제를 개최함

- 한국외대 슬라브어 문자 및 문화 축제에 참가한 키티포브 대사는 세계 최초로 불가리아의 성인 끼릴과 메토디가 창제한 고대 불가리아 문자가 세계와 유럽 문명 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하였고 축제를 통해 문화와 역사를 이어가야 함을 언급
 - 축제에서 불가리아어과 학생들의 불가리아 전통 춤, 노래 공연, 불가리아어 말하기 대회 등의 행사 참여로 슬라브 문자 창제의 날의 의미를 되새김
- 불가리아 외에 슬라브 문자를 사용하는 러시아에서도 슬라브 문자와 문화의 날을 맞이하여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됨. 총 주교 키릴이 주례하는 모스크바 크레믈리 우스펜스키 사원에서의 예배와 슬라브 문자의 창시자들이며 계몽자들인 끼릴과 메토디 기념비에 대한 교회행진을 함



3) 스페인

■ 스페인어의 날 행사

- 매년 6월 18일 전 세계 각지의 ‘인스티튜트 세르반테스’와 ‘스페인 대사관’의 지원을 받아 전 세계 두 번째로 많은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인 스페인어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 개최
- 인스티튜트 세르반테스가 스페인어와 스페인 문화의 전파를 위하여 2009년부터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전 세계에 있는 기관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비공식적인 형태의 축제임

-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6월 18일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스페인어 문화권인 아르헨티나, 칠레, 코스타리카 등의 대사관에서 공동으로 지원을 받아서 국내 최초로 스페인어의 날 행사가 개최되었음



4) 터키

■ 터키어 올림피아드 2011(Turkish Olympiad 2011)

- 터키어 올림피아드는 다양한 나라와 문화를 넘어 130개국에서 온 약 1,000명의 학생들로 구성됨. 매년 15,000명의 학생들이 터키어 올림피아드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함
- 터키어 올림피아드는 ITEA(International Turkish Education Association)를 중심으로 개최됨
 - 개최시에 “One language, 5 billion people“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공통의 언어를 공유하고 있음을 되새기며 결속력을 다짐
- 대학, 공립학교, 그리고 미국 내에 있는 RTH(Raindrop Turkish House) 16개 지점에서 터키어를 수강하는 약 6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터키어 올림피아드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노력함
- 주최측은 터키어 올림피아드에 참가하는 학생들이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 130여 개 국에 돌아가 터키어를 홍보하고 터키 문화를 전달하는 매개체라고 생각함
- 또한 터키어 올림피아드는 터키어의 정치적, 학문적, 문화적 중요성을

참가자뿐만 아니라 올림피아드를 지켜보는 2500명의 관중들에게도 전달하는 계기임

- 터키어 올림피아드의 개최 목적은 터키어가 예술과 문화에 세계적인 언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터키어 올림피아드에서 학생들의 시와 노래 등의 과목 테스트 목적 외에도 터키어의 교육을 통해 문맹률을 낮추고 모든 사람이 지식을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자 하고자 함



5) 에스페란토

■ 언어축제(Language Festival, Esperanto)

- 에스페란토는 자멘호프(Lazaro Ludoviko Zamenhof)박사가 1887년 폴란드에서 모든 사람이 자기 민족어 이외에 공통된 제2 언어를 가지도록 하기 위한 ‘계획적 국제공통어’로 발표한 것임
- 세계에스페란토협회 (Universala Esperanto - Asocio)는 62개국에 가맹국협회가 있고, 약 120개국에 개인회원이 있음. 판매되는 교과서와 각 지방 에스페란토회의 회원 수로 미루어 보아 에스페란토를 사용하는 사람은 수백만 명으로 추정됨. 중국, 일본, 브라질, 프랑스, 불가리아 등에 특히 에스페란토 사용자가 많음
- 매년 약 100회의 크고 작은 국제회의가 통역 없이 에스페란토로 개최되고 있음.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세계에스페란토대회인데 1994년에는 서울에서 개최되었고, 2002년에는 브라질, 2003년에는 스웨덴, 2004년에는 중국, 2005년에는 리투아니아에서 개최됨. 아랍 에스페란토 심포지엄이

2000년 요르단의 암만에서 개최되었고, 제5차 미주대회가 2001년 멕시코에서, 제3차 아시아대회가 2002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등 에스페란토 대회는 꾸준히 개최되고 있음

- 2007년도에는 8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 세계 50~70개국의 3,000명의 참가자들이 통역이나 번역 도움 없이 영어가 아닌 만국공통어 “에스페란토”로 축제를 벌이는 세계에스페란토대회가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렸음



6) 말레이시아

■ 세계 언어 축제(International Language Festival 2011)

- 세계언어축제는 말레이시아 대학생들의 세계화를 위한 행사로서, 강의를 통한 언어교육 이외에도 학생들에게 말레이시아어를 직접 체험을 하게 하고 참여토록 권장함으로써 타 언어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축제임
- 2011년에는 3월 8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말레이시아 국립대학교 UKM에서 개최되었으며, 언어 관련 프로그램 이외에도 전통 무용, 음악, 음식, 영화축제 등 각 나라의 문화 관련 행사가 동시에 개최되었음
 - 2011년에는 한국어를 포함한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아랍어, 일본어, 태국어, 중국어 등 7개 언어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며, 각 나라의 전통 문화를 알리는 행사가 동시에 개최되었음



7) 국제 언어 축제 (International Language Festival)

- 세계 각국에 있는 대학교와 언어 교육기관에서는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매년 국제언어축제를 개최하고 있음. 언어축제를 통해서 각국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됨
- 각 학교와 언어 교육기관에서 행해지는 국제언어축제에서는 말하기, 읽기, 쓰기뿐만 아니라 언어를 습득하고 체험하면서 그 나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음식과 복식 체험, 영화상영 등의 다양한 행사가 참여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개최됨

FIRST SHEFFIELD UNIVERSITY INTERNATIONAL LANGUAGES FESTIVAL
SATURDAY - 12th March - Hicks Building
 INTLANGFEST.UNION.SHEF.AC.UK

ROOM	SECTION	10:00 AM	11:00 AM	12:00 PM	1:00 PM	2:00 PM	3:00 PM	4:00 PM	5:00 PM	6:00 PM	7:00 PM
LT 02	Sp. Lang + Esperanto	Esperanto 1	Sign Language 2	Esperanto 2	Braille 2	Esperanto 3	Braille 2	Sign Language 2	Indo-European 1	Sign Language 3	Sign Language 2
LT 03	Chinese	Mandarin 1	Shanghai 2	Yunnan 2	Henan 2	Mandarin 1	Cantonese 2	Taiwan 2	Nanchang 2	Mandarin 2	Changsha 2
LT 04	English	Middle English 1	American 2	Midlands 2	New Zealand 2	English Idioms 2	Scottish 2	Cherokee* 3	Pidgin English* 3	Geordie 2	Irish 2
LT 05	European	Italian 1	French 1	Manx* 3	Spanish 1	Flemish* 2	Welsh 2	Portuguese 2	Hebrew 2	German 1	Catalan* 2
	Writing	Russian Cyrillic 2	Burmese 2	Japanese 1	Chinese 1	Korean 1	Thai 3	Mongolian 1	Tamil 1	Hebrew 1	Tibetan 3
LT 06		Arabic (Syria) 2	Arabic (Morocco) 2	Arabic (Jordan) 2	Arabic (Iraq) 2	Arabic (Gulf) 2	Arabic (standard) 2	Arabic (Palestine) 2	Arabic (Egypt) 2	Arabic (Libya) 2	
LT 09	Indian	Marathi 2	Assamese 2	Bangla 2	Sanskrit 2	Hindi 2	Gujarati 2	Tamil 2	Konkani 2	Punjabi 2	Kannada 2
LT 11	Spn. + Ger. + Fr.	Austrian German 1	Peru-Mexico 2	Canadian French 1	Venezuela-Mexico 3	Chile-Mexico 3	German Idioms 3	French Idioms 3	Colombia-Mexico 3	Savoy German 3	Guatemala-Mexico 3
SR F20	African	Lue 1	Kisumu 1	Shona 1	Biblic 1	Ndebele/Zulu 1	Shona 1	Kinyarwanda 1	Twi 1	Igbo 1	Kis 1
SR F24	European	Hungarian 2	Sicilian* 3	Finnish 2	Swedish 2	Polish 2	Norwegian 2	Luxembourgish 3	Icelandic 3	Galician* 3	Russian 1
SR F28	South-East Asian	Burmese 2	Indonesian 2	Tagalog* 3	Vietnamese 2	Thai 2	Burmese 2	Brunel-Malay 2	Bengali 2	Tanna* 3	Sinhala 2
SR F30	African	Swahili 1	Yoruba 1	Swahili 1	Chichewa 1	Ibo/Agba 1	Creole French 1	Kamba 1	Pidgin English 1	Izani 1	Kikuyu 1
SR F35	European	Romanian 2	Macedonian 1	Lithuanian 1	Slovenian 2	Malawi 1	Nigeria 1	Mauritius 1	Kenya 1	Nigeria 1	Lithuanian 2
SR F38	Central Asian	Japanese 2	Urdu 2	Farsi 2	Afghani(pashto) 2	Kurdish 2	Mongolian 1	Turkish 2	Tibetan 1	Azari 1	Kazakh 1
LT 07H	Presentations	Smart School 4	Esperanto Association 1	No Umh presents... 4	University-Wide Language Scheme 4	Confluxus Institute 4	Smart School 4	No Umh presents... 4	SCCEC 4	Tibet Foundation 4	Smart School 4

*For LT11 some prior knowledge of French, Spanish or German is necessary. **For information on presentations held in LT 02, please see overview!

***LANGUAGES WITH AN ASTERISK?**

- *Catalan - spoken in Spain (e.g. Barcelona, Valencia)
- *Cherokee - Native American language
- *Flemish - spoken in Belgium
- *Galician - spoken in the North-West of Spain
- *Manx - spoken on the Isle of Man
- *Pidgin English - Basama, spoken in Vanuatu (close to Fiji)
- *Sicilian - spoken in Sicily, Italy
- *Tagalog - spoken in the Philippines
- *Tanna - tribal language spoken in Vanuatu (close to Fiji)

LOTTERY

for example: Swedish

Next to each session there is a digit indicating the number of points you will receive after attending the class - the points will allow you to enter the Festival prize draw and win some amazing prizes which include free language courses, Collins dictionaries, classical music recordings, calendars, T-shirts, vouchers, cups, pens - all provided by our sponsors.

More information at the Reception Desk.

FOOD AROUND THE CAMPUS

There are a variety of options for eating at Sheffield University. The **Interval** and **Bar One** are open at 10am on Saturday and 11am on Sunday and stay open until late. The Interval is located on level 2 of the Students' Union and serves **snacks and larger meals**. Bar One is in the Union on level 1 and serves bar food and snacks.

For a **heartier meal** there is the **University Arms** which is open 9 to 6 on Saturday but is unfortunately closed on Sunday. It is located on Brook Hill. There is also a cake sale next to LT 02 and 04.

5. 소결

■ 한글(날)의 가치와 중요성

- 한글은 창제 연월이 알려져 있는 문자로 한글 창제에 담겨 있는 애민정신, 실용정신, 자주정신이 담겨져 있는 민족문화의 정체성임. 한글의 창제로 인해 언문 불일치로 발생하는 의사소통의 불편함을 없앨 수 있었음. 한글날은 문자인 한글 창제를 기념하는 날이지만 한글 창제 정신을 계승하고 우리말과 글 사용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함

■ 우리나라 국어 문화 홍보 사례 분석

- 한글과 한국어는 국어기본법과 국어발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한국문화원, 세종학당, 한국 교육원, 한글학교 등의 기관을 국내·외에 설치하여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 홍보 활동을 지원함. 그러나 우리나라 언어 정책은 한국어 강좌 시설과 교육자의 자격의 질적 문제, 재정/예산 미흡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됨

■ 국외 자국어문화 홍보 및 언어 관련 축제 사례

- 해외 주요 기관의 경우 자국의 언어와 문화를 확산시키고 다양한 민족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언어 및 문화에 대한 교육과 홍보, 상대국과의 문화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 등이 중요함을 인식함.
- 국가의 경제적 지원을 바탕으로 언어의 수준별 교육 프로그램, 어학 시험 프로그램, 그리고 글쓰기 프로그램 등이 운영 되고 언어와 문화 교육을 위해 전문가를 파견하여 교수법과 학습법을 전달하기도 하며, 자국의 언어를 홍보하기 위한 축제를 개최하거나 공통언어 사용자가 언어를 중심으로 모여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기도 함

■ 한글날 공휴일 지정의 필요성

- 한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했으나 1990년 생산성 향상과 국가발전이라는 경제적 논리로 공휴일 폐지는 한글과 한글날의 경시 풍조와 같은 부정적 현상이 만연하게 함. 따라서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을 통하여 한글과 한국어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자국의 언어와 문화를 보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한글 문화콘텐츠 개발과 국가 브랜드 증진

- 최근 한글은 한류의 열풍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아름다운 조형성을 인정받아 다양한 상품에 사용되고 있음. 이처럼 한국의 문화콘텐츠로 한글의 가치와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한글을 문화상품으로 개발하는 전략을 모색하고 한국 문화를 홍보하여 국가 브랜드를 증진시키는 방안이 필요함

Ⅲ. 한글날 공휴일 지정의 필요성 및 쟁점 사항 검토

1. 한글날 공휴일 지정의 경과
2. 한글날 공휴일 지정의 주요 논점
3. 한글날 공휴일 지정의 필요성
4. 한글날 공휴일 지정의 쟁점 사항 검토
5. 소결

1. 한글날 공휴일 지정의 경과

가. 공휴일 및 국경일 현황

■ 우리나라 공휴일 및 국경일 현황

○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

- 일요일, 국경일 중 3월 1일 삼일절, 8월 15일 광복절, 10월 3일 개천절, 1월 1일, 설날(음력 12월 30일[음력 12월 30일이 없는 작은달인 경우 음력 12월 29일]~1월 2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추석(음력 8월 14~16일), 성탄절(12월 25일)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의 선거일, 그 밖에 정부에서 지정한 날이 포함됨
- 「기타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은 대통령 취임일·국장일 등이 있어 공휴일은 법정과 약정 휴일의 성격을 모두 가짐

○ 국경일은 지정 기준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 53호의 제1조는 “국가의 경사스런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을 정한다” 이고, 제2조는 “국경일은 아래와 같다.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임

○ 3.1절, 광복절, 개천절은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나, 제헌절과 한글날만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음

- 한글날은 국경일로서 법률에 제정되어 있는 날이지만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인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휴일이 아님

<표 III-1> 국경일·공휴일 및 기념일 지정 현황

구 분	날 짜 및 명 칭	근 거
국 경 일 (5일)	- 3.1절 (3월 1일) - 제헌절(7월 17일: 공휴일이 아님) - 광복절(8월 15일) - 개천절(10월 3일) - 한글날(10월 9일: 공휴일이 아님)	국경일에 관한 법률
공 휴 일 (14일)	- 국경일(3월 1일, 8월 15일, 10월 3일) - 1월 1일 - 설날전날, 설날, 설날다음날 (음력 12월말일, 1월 1일, 1월 2일) -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 5월5일(어린이날) - 6월6일(현충일) - 추석전날, 추석, 추석다음날 (음력 8월 14일, 8월 15일, 8월 16일) - 12월25일(기독탄신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기 념 일	- 식목일(4월 5일), 4.19기념일(4월 19일), 스승의날(5월 15일), 국군의날(10월 1일) 등 40일이 기념일로 지정 - 해당부처 주관 기념행사 거행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 해외 주요국과 공휴일 비교

- 토요일 및 일요일을 포함했을 경우 우리나라 휴일은 총 118일로 명목상으로 미국과 독일의 114일, 프랑스의 116일 보다는 많으나, 일본의 124일, 중국과 대만의 120일보다는 적은 수준임(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9)
 - 토요일 휴일은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업체만 해당하며, 미시행 업체의 경우 토요일은 휴일에서 제외되어 실제 휴일 수는 118일보다 적은 수준임
- 해외 주요국의 공휴일 제도는 시행방식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음(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9)
 - 해외 주요국은 요일제 공휴일 제도를 시행하여 일부 공휴일을 월요일로 지정하여 ‘토·일·월’의 연속 휴일 구축
 - 토·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의 경우 대체공휴일제(미국 등은 토·일요일 모두 대체공휴일제로 적용하고, 일본은 일요일만 적용) 시행

Ⅲ. 한글날 공휴일 지정의 필요성 및 쟁점 사항 검토

- 일본 및 미국 등은 휴일 사이 비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샌드위치 데이’ 를 시행(일본은 국민휴일이라는 명칭을 사용)

<표 Ⅲ-2> 주요 국가의 공휴일 비교

구분	한국	일본	중국·대만	러시아	프랑스	미국·독일
공휴일	14일	20일	16일	14일	11일	10~18일
토·일 포함	118일	124일	120일	118일	116일	114일
대체 공휴일제	시행안함	일요일만 적용(월)	토/일요일 적용(월)	토/일요일 적용(월)	-	토/일요일 적용(금/월)

주) : 1) 우리나라의 경우 토요일의 휴일 포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 40시간 근무제(주 5일제 근무)를 적용했을 경우임
 2) 일본의 공휴일은 연말연시 휴일(12.29~1.3) 5일을 포함시켰을 경우임
 3) 미국 및 독일은 주 별로 공휴일 수의 차이가 존재함(연방공휴일10일+주(state)단위 공휴일 4~8일임)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9), 국내 관광수요 확대를 위한 휴가 공휴일 제도 개선방안 재인용

나. 한글날 공휴일 지정의 경과

○ 음력 1923년 12월 훈민정음 창제 8회갑 기념식

- 1443년 12월이 ‘세종 25년 12월(음력)’ 으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날로 여김
- 이는 「세종실록」의 “이 달에 임금께서 친히 언문 28자를 지으시다. … 이를 훈민정음이라 하시다.” 라는 기록을 근거로 삼음
- 음력으로 ‘1923년 12월’ 은 ‘1443년 12월(음력)’ 로부터 480년 되는 해로 8번째 회갑(60년×8)임

○ 1926년 음력 9월 29일 훈민정음 반포 8회갑 기념 ‘가갸날’ 제정

- 1926년 조선어연구회에서 음력으로 9월 29일을 ‘가갸날’ 로 정하고 세상에 알렸으며, 이 날이 오늘날 ‘한글날’ 의 뿌리가 됨
- ‘가갸날’ 제정의 근거는 「세종실록」의 제113권의 ‘세종 28년 9월’ 조에

“이 달에 훈민정음이 이루어지다.” 라는 기록을 토대로 훈민정음이 1928년 9월에 반포된 것으로 해석한 것임

- 가나날 제정은 우리 겨레의 보람인 한글에 대한 행사를 성대하게 가짐으로써 우리말에 대한 애호사상을 불러일으키고 겨레 넋을 살려내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었음

○ 1928년 ‘가가날’ 에서 ‘한글날’ 로 이름을 바꿈

- ‘가가날’ 의 세 번째 기념식인 1928년 9월 29일(음력)에 ‘한글날’ 이라는 새 이름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한글이란 낱말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음

○ 1931년 양력 10월 29일과 1934년 10월 28일로 변경의 과정을 거쳐 1945년 10월 9일로 날짜 확정

- 한글날이 10월 9일로 변경은 1940년 「훈민정음」 해례본의 발견으로 훈민정음이 음력 9월 상순에 반포됨을 확인
- 조선어학회는 ‘음력 9월 10일’ 을 반포일로 잡고 현재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10월 9일 한글날’ 로 정해짐

○ 1946년 500돌 한글날 공휴일 지정

- 1946년은 훈민정음 반포된 지 500돌이 되는 해로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였고, 조선어학회에서는 다양한 기념행사를 거행함
- 한글날의 지위가 국경일로 높아졌으나 1949년까지 명문화된 규정은 없었으며 정부의 뜻에 따라 그때그때 공휴일로 지정되었음
- 1949년 6월 4일 대통령령 제 124호(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를 제정·공포하여 한글날이 법령에 근거한 영속적 공휴일이 되었으나, 10월 1일 법률 제53호(국경일에 관한 법률)의 제정·공포에서는 제외됨

○ 1990년 공휴일에서 제외됨

- 노는 날이 많아 경제 활동에 지장이 있다는 경제 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한글날을 공휴일에서 제외한 대통령령 제13155호(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를 공포
- 1990년부터 2005년까지 한글날은 공휴일에서 제외된 채로 ‘기념일’ 로만 명맥을 유지해 옴

○ 2005년 국경일로 격상

Ⅲ. 한글날 공휴일 지정의 필요성 및 쟁점 사항 검토

- 한글날이 우리나라 민족유산을 기리는 날로 가치가 있지만 국경일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한글날을 국경일로 정하자고 건의
- 국경일에 관한 법률(제53호, 1949. 10. 1)의 제2조에 한글날을 국경일로 추가한다는 개정안이 2005년 12월 8일에 국회를 통과하여 12월 29일 법률 제 7771호로 공포됨
- 국경일로 지정되면서 한글과 우리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애정이 깊어졌으나 공휴일은 아니어서 한글날 관련 행사 개최 및 참여에 제약이 있음

<표 Ⅲ-3> 한글날 지정 및 공휴일 지정의 경과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력 1923년 12월 훈민정음 창제 8회갑 기념식- 1926년 음력 9월 29일 훈민정음 반포 8회갑 기념 '가가날'제정- 1928년 '가가날'에서 '한글날'로 이름을 바꿈- 1931년 양력 10월 29일과 1934년 10월 28일로 변경- 1945년 10월 9일로 날짜 확정- 1946년 500돌 한글날 공휴일 지정- 1990년 공휴일에서 제외됨- 2005년 국경일로 격상 |
|---|

다. 한글날 공휴일 지정에 대한 입법 활동

■ 일반 공휴일 관한 법률 개정안 발안

- 2008년 이후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발안으로는 공휴일규정 일반법제화 공휴일 추가 지정과 대체휴일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음
 - 공휴일 추가지정에 대한 논의로 강기정 의원(2009. 5. 4)은 근로자의 날, 양승조 의원(2009. 5. 6)은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현행 공휴일 수를 하루 늘리고, 이와 함께 대체휴일제 도입할 것을 주장
- 대체휴일제도 논의와 입법 움직임이 대한민국에서는 1989년 한시적으로 실시되고 곧 폐지되어 현재까지 실시되고 있지 않으나, 최근 관련 제도에 대한 입법 움직임이 있음
 - 음력 설 공휴일을 확대하면서 1989년 1월에 대통령령으로 대체휴일제도를 실시하기 시작

- 이 해부터 음력 설에 2일 간을 공휴일로 하여 설 당일인 양력 2월 6일과 그 전일인 2월 5일을 공휴일로 하되, 2월 5일이 일요일이어서 2월 7일까지 하루 더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대체휴일제도를 시행
- 1989년 당시 공휴일이던 국군의 날(10월 1일)도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을 공휴일로 하였으며, 그 다음 날인 10월 3일은 개천절인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3일 연휴가 되었음
- 그러나 이 해에 설날과 추석 연휴 확대로 공휴일의 증가와 대체 휴일 제도까지 추가되어 쉬는 날이 너무 많다는 의견이 확대되어 그 다음해부터 국군의 날을 공휴일에서 제외하고 설날과 추석 연휴는 3일로 고정하면서 대체휴일제도는 21개월 만에 폐지됨
- 장제원 의원(2010. 2. 17)은 국민여가권 존중 차원에서 대체휴일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 대체휴일제도 도입을 통해서 국민의 여가권 보장과 행복추구권 보호해야 함을 주장하지만 우리 경제상황이나 공휴일 수용능력을 감안해야 한다고 언급함
- 정부가 외국에 비해 휴일 수가 많아 노동생산성이 저하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민주당 김충조 의원은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 시간이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많음을 간과하고 있음을 지적
 - 연간 근로시간이 우리나라는 2천 시간이 넘는 반면 선진국들은 1천 800시간 수준이므로 전체 일하는 시간과 주중·월중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고려되어 함을 주장

■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에 관한 입법 활동

- 한글날은 지난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후 2005년 국경일로 격상되었으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공휴일에서 제외된 국경일로 지정됨
- 한글날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유는 외국에 비해 휴일 수가 많아 노동생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휴일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함. 그러나 노동시간과 생산성과의 연관관계는 낮아 논리적인 설득력이 떨어짐

○ 한글날을 공휴일로 재지정 법률안 발의뿐만 아니라 대체휴일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음

- 전병헌(2010. 10. 1) : 한글날을 공휴일로 정하고,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 하루를 공휴일로 하는 법안을 추진 중
- 박선영(2009. 10. 8) : 국경일을 모두 법정 공휴일로 정하고, 해당 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을,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대체휴일제도 도입을 주장
- 홍장표(2008. 7. 22) : 공휴일에 한글날과 제헌절을 추가를 법안 발의하였으나, 대체휴일제 도입은 불필요하다고 언급

<표 III-4> 공휴일 및 한글날 공휴일 지정에 대한 입법 활동 및 경과추이 현황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배경 및 내용

*	공휴일					한글날		
	윤상현	강기정	양승조	박은수	박상돈	홍장표	박선영	전병헌
제안 일자	'08. 12. 10	'09. 5. 4	'09. 5. 6	'09. 9. 30	'09. 6. 11	'08.7. 22	'09. 10. 8	'10.10.1
공휴일 법률화	○	○	○	○	국경일법 개정	국경일법 개정	국경일법 개정	국경일법 개정
대체 휴일제 도입	○ (모든 공휴일 일요일과 중첩시)	○ (모든 공휴일 일요일과 중첩시)	×	○ (설날·추석 연휴 한정, 토·일 중첩시)	× (국경일 요일제)	× (국경일 전부 공휴일 지정)	○ (국경일 전부 공휴일 지정)	○ (모든 공휴일 일요일과 중첩시)
공휴일 수 추가 여부	현행유지 (14일)	근로자의 날 추가 (15일)	어버이 날 추가(15일)	현행유지 (14일)	현행유지 (14일)	제헌절· 한글날 추가(16일)	제헌절· 한글날 추가(16일)	한글날 추가

2. 한글날 공휴일 지정의 주요 논점

- 2008년 이후 공휴일 제도 개선의 초점은 국경일로 지정되어 있지만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모든 국경일 (제헌절과 한글날)에 대해 공휴일 지정과 동시에 모든 공휴일에 대해 대체 공휴일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 입법 활동의 주요 내용임
- 입법 활동의 주최인 국회에서 대체공휴일제도 도입과 동시에 공휴일의 법제화를 발의함에 따라 이해관계 주체 및 정부부처간에 찬반 의견으로 나타나게 됨

가. 공휴일 확대 및 대체공휴일에 대한 관련 기관의 논점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글날 공휴일 지정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으나, 국민 국내관광수요 확대 및 휴식을 통한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공무원 및 기업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공휴일제도 개선 등을 추진함(문화체육관광부, 2010c)
 - 휴가문화 선진화는 공무원 및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제고하고, 휴가 기간 중 관광 및 옥외위락활동 등의 적극적 여가활동 참여를 유도함. 근로자의 휴가사용에 대한 경직적 사회분위기 전환을 의미
 - 공무원에게는 연가사용 확대 및 공휴일제도 개편을 위한 관계부처와 협력을 추진하고, 민간기업 근로자의 연차휴가 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함
 - 2010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는 소속 공무원들이 부여된 전체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는 방침을 마련하여 분기별 각 2~3일 연가 사용 및 월례 휴가 사용 권고함
 - 또한 공휴일 법제화 및 대체공휴일제도 도입 추진과 휴일정책의 정책 타당성 검토 및 휴일을 활용한 내수관광 활성화 방안을 검토함

■ 행정안전부

- 2000년 12월 국회 행정자치위에서 ‘한글날 국경일 지정을 위한 국경일 제정법 개정안’의 논의에서 한글날 국경일 지정을 반대함
 - 행안부 관계자들은 국경일 법 1조 본문보다는 2조 규정을 바탕으로 국경일은 국가의 독립이나 국권 수호의 기념일로 정한다는 근거에 의함
 - 국경일은 국권회복 운동이나 건국 등 나라의 기초를 세우는 데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날로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는데 한글날은 그 법에서 어긋나고 경제에 악 영향을 미친다는 논거에 의함
- 공휴일 확대 및 대체공휴일제 도입에 대해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휴일 지정이 의미를 되새기는 날로 국민정서에 부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할 때까지는 현 체제를 유지해주고 다음에 검토할 때 반영하겠다고 함. 또한 기본 휴일 수를 보면 우리나라와 유사한 조건의 나라에 비해 결코 적지 않음을 언급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함 (문화체육관광부, 2010c)
 - 근로 조건에서 우리나라는 야간 근무나 잔업이 많아 구체적인 시간 계산을 하지 못했지만 기본 휴일 수는 비슷한 조건이라 하였음
 - 추후 검토 시 근로자들의 실질 근무시간과 경제 발전 단계를 고려하여 평가
- 정창섭 행안부 1차관은 2010년 3월 18일 ‘대체공휴일제 의원 입법 진행상황’에 대해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제정하는 부분은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힘
 - 법률 제정시, 민간 규율로 석유·철강·유통 분야에서 최소 1조 3,900억원의 인건비가 증가하고 대체휴일제 근무와 관련하여 민간기업의 임금·휴일근로수당이 ILO권고기준 25%의 2배인 50%로 높은 비용 발생할 것으로 경총의 자료를 제시함 (문화체육관광부, 2010, 내부자료)
 - 기본 공휴일 수에 있어도 미국·독일보다 한국이 많고, 휴가부여일수가 대기업은 20일, 중소기업은 17.8일, 전체평균 18.6일 (문화체육관광부, 2010, 내부자료)
- 한편 행정안전부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 개정을 통해 공무원이 매월 및 분기별로 연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함

- 공무원 개인이 월 1회 연가사용계획(월례휴가) 및 분기별 연가사용 계획수립(분기별 휴가)과 활용을 보장하고 있음
-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가일수의 1/2 범위 내에서 다음 연도 연가 사용을 가능하게 하고, 연가 허가권자는 공무수행에 특별히 지장이 없는 한 연가신청이 있을 경우 연가를 허가해주고 있음

■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는 공휴일 수 추가 지정 및 대체휴일제도에 반대하는 입장임
 - 14일의 공휴일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주어져야 하지만 경총 측은 4일간의 휴가를 더 준다면 1조4,000억원의 인건비가 늘어남을 주장하며 공휴일 추가 지정 반대
-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소비활성화에 중점을 둔 내수 진작방안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하여 국민의 국내관광수요확대를 위한 직장인 연차휴가사용 활성화 방안 추진 중임(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9)
- 대체공휴일제도의 도입은 현재 사회적으로 찬반 논란이 존재함에 따라 외부연구용역의 검토를 통한 시행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입장임
 - 대체공휴일제도의 시행은 사회 및 정부 부처 간에도 이견이 있어 국내총생산 등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검토 의견을 제시함

■ 국회

- 홍장표 의원(2008. 7. 22)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해 국경일인 3·1절과 제헌절,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등 5일을 법정공휴일 지정 발의, 박선영 의원(2009. 10. 8) 및 전병헌 의원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발의(2010.10.1)으로 한글날 공휴일 지정에 대한 입법 발의를 제안함
- 반면에 신지호(2010. 2. 17) 한나라당 의원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조사한 연차유급휴가 부여 통계와 실제사용일수를 언급하며 대체휴일제도 추진을 반대함

Ⅲ. 한글날 공휴일 지정의 필요성 및 쟁점 사항 검토

- 한국노동연구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통계에 한국 15~25일, 일본 10~20일, 영국·독일 24일, 포르투갈 7~14일인데 한국이 유럽에 비해 적지 않음
 - 우리나라 근로자 1인당 평균 연차휴가 부여일수가 18.6일이지만 실제 사용일수가 7.6일(34.2%)에 불과 하는 것으로 보아 연차수당을 보상받기 위해 연차휴가를 안 쓰는 것이라 주장
 - 현재 연차유급휴가는 34%만 쓰고 66%는 연차수당으로 챙기고 있는 노동현실에서는 대체휴일제 시행 시 임금 상승이 크게 증가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
 - 그 이유로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시의 통상임금 가산율이 ILO 권고치는 25%, 일본은 휴일 35%·연장근로 25%·야근 25%, 독일은 모두 25%, 우리나라만 50%를 적용하는데, 이는 ILO 권고치의 2배 수준으로 휴일 근무 시 추가수당 금액이 높음
 - 대체휴일제 시행 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이 늘어날 것인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함. 현재 선진국의 2배에 달하는 50% 휴일 근로수당이 개정되지 않는 한 연차 휴가 사용이 늘어나지 않을 것임
 - 2009년 OECD 근로자 시간당 평균 생산성이 평균에 밀도는 20.4로 장시간 노동으로 발생하는 생산성 저하를 줄이기 위해 대체휴일제를 추진하자는 논리는 맹점이 있음을 지적
-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2010. 2. 17)은 공휴일 문제는 국경일을 휴무로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생산성의 문제의 발생을 지적
- 선진국이 국경일을 공휴일로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법으로 국경일을 공휴일로 의무화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미흡함
 - 따라서 선진국을 보면 여름휴가가 우리에게 비해 상당히 길어 노동 일수에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우리도 공휴일 지정으로 지정된 휴일제가 아닌 여름휴가 등 생산성이 떨어질 때 휴가를 많이 주는 탄력적 대안이 적합할 것이라고 주장
- 유선호 의원은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전면적 대체공휴일 도입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알고 있으나, 대체휴일제 도입에 대한 정부 부처 간 이견이 크고 국회에서도 관련법에 관한 논의가 안 되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지적
- 유선호 의원 및 민주당 지도부는 대체휴일제가 도입되면 주말과 이어지는 연휴가 늘어나 여가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관광 업계 등은 활성화되지만 경영계의 인건비 부담은 전반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

■ 경제계

- 산업계는 전반적으로 한글날 공휴일제 지정과 관련하여 인건비 상승과 생산성 약화 등을 우려하는 의견을 제시함
-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2010. 3.24)에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법률화에 따른 기업의 비용부담은 두 가지 측면에서 발생
 - 일요일(52일)을 무조건 휴일로 간주, 평일에 주휴일을 부여하더라도 일요일 근무에 대해 50%의 휴일근무수당을 가산 지급하는데 따르는 비용의 증가
 - 대체공휴일 도입에 따르는 휴일 수 증가로 인한 생산 차질
- 대체휴일제 도입에 회의적인 입장으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공휴일 증가 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라는 의견을 제시
 - 글로벌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노동시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공휴일제 법률 제정은 기업투자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마저 어렵게 만들고, 민간의 휴일을 법으로 통제함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혼란 야기
 - 주5일 근무 시행으로 연간 104일을 쉴 수 있고, 법정 연차일수도 19일에 달해 법정 공휴일이 며칠이 주말과 겹친다 해도 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임
-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한국의 법정공휴일은 미국 등 경쟁국과 비교해 비슷하거나 다소 많은 편임을 언급하며,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대책 마련 없이 그냥 휴일 수만 늘리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함
- 공휴일 법률화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증가와 이에 따른 퇴직금 추가부담액은 각각 3조 4,107억원, 1조 8,169억원에 달함
 - 개별기업의 휴일은 기업내 노사관계나 경영의 패턴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일요일 영업을 불가피한 유통업이나 365일 24시간 공장가동이 불가피한 장치산업의 경우 공휴일인 일요일에 휴일을 부여하지 않고 평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부여하는 경우가 대다수
 - 따라서 공휴일인 일요일에 일을 하게 될 경우 50%의 휴일 근무수당을 가산 지급해야 하며, 이에 연동해 퇴직금이 추가 상승
- 대체공휴일이 도입될 경우 광업 및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연간 평균 생

산 차질액은 6조 7,25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향후 10년간 대체휴일제 도입에 따른 평균 휴일증가 : 2.2일
- 생산차질액은 2.2일을 모두 휴일 증가로 이어질 경우를 가정하여 추정
 - ※ 전체 경제손실 : 12조 963억원(=생산차질액×광공업 생산유발계수 1.7986)

○ 경영계와 노동계는 휴일 및 휴가제도와 연관된 시간외 근로수당,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유급주휴제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논의가 필요함*

- 시간외 근로수당 부문에서는 경영계는 시간외 근로수당의 할증률을 50%에서 20%로 인하를 주장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누진할증률 도입 등의 할증률을 인상하는 방안을 모색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에 대해 경영계는 단축된 근로 시간만큼 임금을 삭감하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제시하였지만, 노동계는 시간단축의 실효성을 위해 임금 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노동계는 유급 주휴제 부문에서 무급으로 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노동계는 현행 유급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함

나. 한글날 공휴일 지정에 대한 논점

■ 주요 입법 활동

○ 박선영 의원(2009. 10. 8)은 한글은 세계 역사상 문자의 창시자와 창시목적의 알려지고 있는 유일한 표음문자라는 점에서 한글을 보다 세계화하기 위해서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해 한글의 우수성과 역사성을 세계만방에 알려야 한다는 입법취지를 밝힘

-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한글창제의 참뜻을 기리고 후세와 만방에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함
- 국경일 지정은 가족들과 국경일의 의미를 되새김으로써 후세에 그 의미를 전달하고 관련 행사 및 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참가 유도를 위한 정책적 장치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이 필요함
- 국경일 중 일부만 공휴일로 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국경일보다 상

* 국회행정안전위원회(2010. 3.24).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정성이 떨어지는 기념일 등은 공휴일로 하면서 국경일을 공휴일로 하지 않는다면 국민통합의 기제로서 국경일의 역할과 의미, 교육적 효과 등에서 문제점으로 작용할 가능성 존재

- 외국에 휴일 수가 많아 노동생산성이 저하될 우려가 제기되지만 국제노동기구(ILO)의 조사결과 노동시간이 많다고 노동생산성이 비례해서 증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휴일의 탄력적 조정이 필요함
- 박선영 의원은 한글날 공휴일 지정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이유를 정부와 국민들의 한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재계의 압력으로 인한 노동 생산성의 문제임을 언급. 앞으로 한글의 브랜드화를 통해 산업적 콘텐츠로 활용하는 방안 모색을 위해 반드시 공휴일로 지정되어야 함을 주장

○ 전병헌 의원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발의(2010. 10. 1)에서 한글날을 공휴일로 정하고,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하루를 공휴일로 한다는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을 주장

- 한글이라는 우리말과 글은 우리 민족문화의 요체이며, 문자 창제는 국가 건립과 동등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음
-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한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 민족사에 가장 빛나는 문화유산으로 기리는 날로 승화시켜 국민의 자긍심 고취해야 함
- 한글날에 대해서는 외국에 비해 휴일 수가 많아 노동생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휴일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한글날의 공휴일 제외 이유로 논리적인 설득력이 떨어짐
- 따라서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공휴일을 법률로 정하고,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 주중에 대체 휴일을 실시하자는 의견과 제헌절과 한글날, 어버이날,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추가 지정하자는 내용도 있음

○ 홍장표 의원(2008. 7. 22) 등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해 국경일인 3·1절과 제헌절,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등 5일을 모두 법정 공휴일로 정하고자 함

- 국경일의 공휴일 지정은 국경일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정책적 장치'이므로 근시안적 정치 및 경제논리가 아닌 시대와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쪽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
- 정갑윤 의원은 홍장표 의원의 발의에 대해 제헌절과 한글날 등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날이라는 점에서, 또 여타 국경일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니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

- 법률안 발의에서 이은재 의원은 한글날 공휴일 지정으로 많은 사람이 영어를 쓰는 지금 시대에 한글을 만들어 지정·공포한 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가치가 있다고 함
- 윤상현 의원(2010. 2. 17)은 공휴일을 통한 휴식권의 보장으로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확보하고 휴일 수 증가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하여 국민경제에 기여할 것임을 언급
 - 공휴일을 늘리자는 게 아니고 단지 잃어버린 공휴일을 되찾자는 의미이고, 헌법상의 국민 기본적 권리인 휴식권과 행복추구권을 법률적 근거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주장
 -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임
 - 공휴일에 대한 법안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는 노동생산성의 차질로 비용이 발생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휴일 수 증가로 인해 경제적 파급효과 및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여 추계 비용이 다름을 지적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은 공휴일의 보장을 위해 국경일이면서도 비공휴일인 한글날과 제헌절은 공휴일로 지정하고 대체휴일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함
 - 대체휴일제도 공청회에서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 상황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전면도입은 시기상조이지만, 공휴일의 증가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국경일이면서도 비공휴일로 지정된 한글날과 제헌절은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

■ 일반 국민의 여론

- 일반국민 1,50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한글날 공휴일 지정에 대해 찬성하는 응답자는 68.8%로 공휴일 지정의 효과로 한글의 의미를 더 생각할 수 있다고 78.8%가 응답하였음(한글주간, 2009)
 - 기타 의견으로는 여러 행사를 개최해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 마련(14.2%), 설 수 있음/업무효율성 높임(8.1%), 한글날을 쉽게 기억할 수 있음(9.4%), 한글

에 대한 관심 높임(4.6%), 국가/역사/조상에 대한 자부심(3.3%), 기타(3.0%), 모름/무응답(0.7%)의 순서로 나타남

- 2011년 일반국민 1,000명을 조사한 한글날 관련 여론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 관련 설문에서 찬성비율 76.3%로 2009년 보다 7.5%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건국 60주년 기념 국어사랑 큰잔치 행사 결과 보고서(국립국어원, 2008)에서 한글날의 공휴일화에 관련하여 시민은 한글의 얼과 정신을 지키고, 행사를 통해 한글날의 인식을 고취하고 나라 축제일로 지정 의견을 제시함
 - 한글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얼’을 지키는 일로 한글날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해야 함
 - 한글날에 대한 인식 없이 넘어가므로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국가 축제일로 삼아야 함
 - 한글날을 휴일로 지정하여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과학적인 언어임을 되새기고 홍보해야 한다는 주장
- 청년의사(www.docdocdoc.co.kr)에서는 공휴일에 대한 의사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한글날이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과반수가 응답함
 - 135명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한때 공휴일이었지만 현재는 휴일이 아닌 날 중 다시 휴일로 지정해 기념해야 할 필요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날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서 한글날을 꼽은 비율이 68.8%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제헌절(17.7%), 식목일(9.6%), 국군의 날(3.7%) 등의 순임

3. 한글날 공휴일 지정의 필요성

가. 일반국민의 여론조사 결과

- 일반 국민들의 여론조사에 대한 분석은 한글주간(2009)과 문화체육관광부(2011.5), 전문가의견 조사(2011)를 바탕으로 한글날 공휴일 지정의 필요성을 분석함

■ 문화유산으로 한글에 대한 자긍심

- 일반국민 1,000명에게 ‘한글’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 그 생각이나 느낌을 물어본 결과, ‘세종대왕’ 과 ‘우리글/모국어/고유언어’ 가 각각 24.5%와 22.4%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고, ‘자부심/자신감/자존심’ (4.9%), ‘훈민정음’ (4.2%), ‘우리의 정신/민족성’ (3.6%)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음(문화체육관광부, 2011)
- 한글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세종대왕이 창제한 우리글과 언어로써 자긍심을 심어주는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인식되고 있음
 - 전문가 조사 결과(2011)에 따르면 한글은 세종대왕이 과학적 원리에 따라 만든 독창적이고 체계적인 언어이고, 한글날은 한민족에게 문화민족으로의 자긍심을 인식시켜주는 날로 평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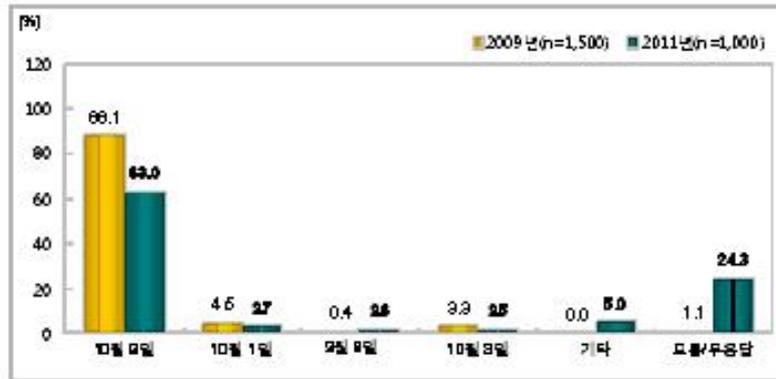
<표 III-5> '한글'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

항 목	응답자수(명)	백분율(%)
세종대왕	245	24.5
우리글/모국어/고유언어	224	22.4
자부심/자신감/자존심	49	4.9
훈민정음	42	4.2
우리의 정신/민족성	36	3.6
대한민국/우리나라	34	3.4
과학적이다	27	2.7
자랑스런 전통문화유산	23	2.3
한국을 대표하는 얼굴	21	2.1
우수하다, 쉬운 글	19	1.9
가나다라/ㄱㄴㄷㄹ/자음과 모음	17	1.7
세계의 글	16	1.6
창의적/독창적, 소중하다	12	1.2
아름답다	10	1.0
문화	10	1.0
한국문화의 정체성, 편안하다, 언어 표현의 다양성, 소리글자라 배우기 쉽다	7	0.7
위대하다, 어렵다	6	0.6
지켜나가야 한다, 부모님(아버지, 어머니), 편리하다	5	0.5
기타	121	11.4
없다/모름/무응답	119	11.9
합 계	1,000	100.0

■ 한글날의 가치와 중요도 인식 확대 필요

- 일반 국민들이 한글을 우리 고유의 글과 언어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나 한글날을 언제로 알고 있는지 물은 결과, 63.0%의 응답자만 한글날의 정확한 날짜(10월 9일)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반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비율은 12.8%로 나타남
- 2009년 조사결과(n=1,500/면접조사)와 비교해보면, 한글날에 대한 인지도는 2009년 88.1%에서 2011년 63.0%로, 25.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2009년 여론조사 결과에 비해 한글날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졌음을 알 수 있음
- 한글날 인지도 조사에서 특히, 20대(35.0%), 학생(28.3%)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아 한글날 공휴일 지정과 함께 다양한 행사 및 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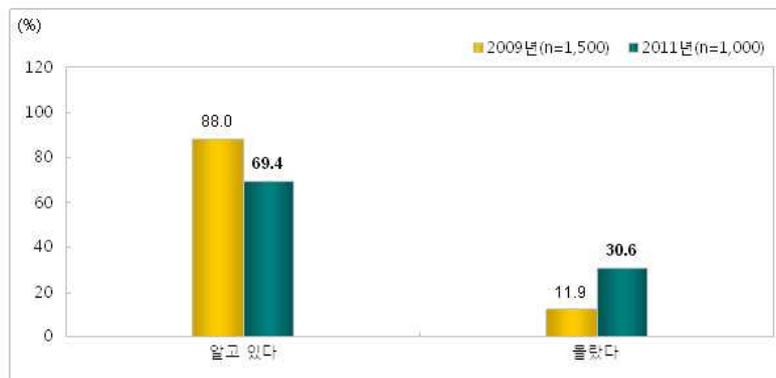
그럼을 개최하여 젊은층에게 한글날의 중요성과 한글의 가치를 인식시킬 필요성이 제기됨



[그림 Ⅲ-1] 한글날 인지도 조사

■ 국경일로의 한글날 인식 확산

- 한글날이 국경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9.4%는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국민 10명 중 7명은 한글날이 국경일인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한글날이 국경일에 지정된 사실을 ‘몰랐다’라고 30.6%가 응답하였음
- 2009년 한글날 국경일 인지여부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알고 있다’는 비율은 2009년 88.0%에서, 2011년 69.4%로 18.6%p 감소하여 한글날 국경일의 인지도는 낮아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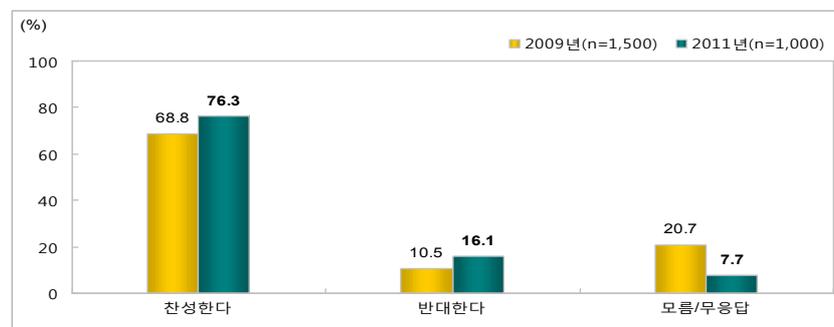


[그림 Ⅲ-2] 한글날 국경일 인지도 조사

- 한글날의 국경일 인지도 역시 한글날의 날짜에 대한 낮은 인지도를 보인 20대(51.4%), 학생(50.8%) 층에게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을 통한 다양한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여 한글날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가져 오는 것이 필요함

■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의 국민여론 반영

- 한글날을 다시 법정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찬성 한다’는 의견이 76.3%로 ‘반대 한다’ (16.1%)에 비해 4배 이상 높게 응답되었음
- 2009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찬성 한다’는 응답은 2009년 68.8%에서 2011년 76.3%로 7.5%p 증가하여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에 관한 국민 의견이 높아짐을 알 수 있음
- 국민 여론을 반영하여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 필요성이 제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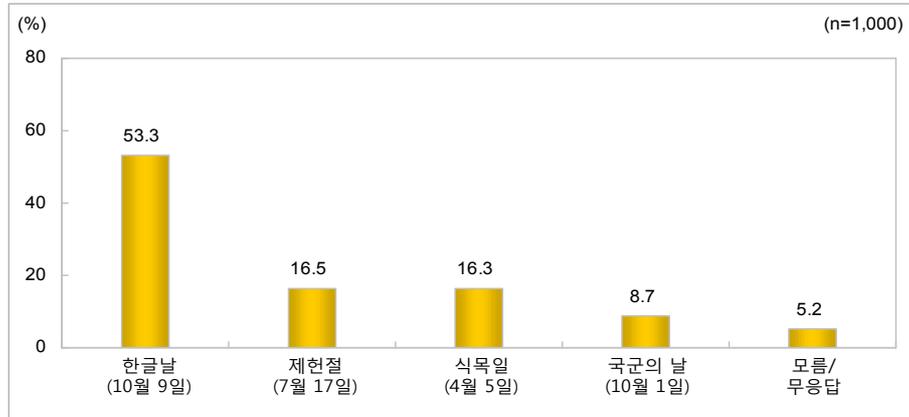


[그림 III-3]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 찬/반의견

■ 공휴일 재지정이 필요한 국경일

- 한때 공휴일이었지만 현재는 휴일이 아닌 날 중 다시 휴일로 지정하여 기념해야 할 필요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되는 기념일로는, 과반 수 이상인 53.3%가 ‘한글날’을 꼽은 것으로 나타나 한글날의 국경일 재지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임
 - 그 밖에 ‘제헌절’ (16.5%), ‘식목일’ (16.3%), ‘국군의 날’ (8.7%)의 순으로 응답되었으며 ‘모름/무응답’은 5.2%였음

Ⅲ. 한글날 공휴일 지정의 필요성 및 쟁점 사항 검토



[그림 Ⅲ-4] 공휴일 재지정이 필요한 국경일 조사

- 한글날의 법정공휴일 재지정에 찬성하는 응답자(n=763)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우리민족 고유의 언어로 한글은 중요해서’ (27.5%), ‘쉬거나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어서’ (16.5%), ‘한글날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서’ (12.1%), ‘소중한 우리글을 만든 날이어서’ (10.7%)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 그 밖에 전문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휴일 수 증가로 자기계발 및 여가 시간을 확보하여 삶의 질 향상과 가족화합에 기여하는 사회문화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한민족에게 의미 있는 날인 한글날을 공휴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이 필요함을 언급

<표 III-6> 찬성응답자의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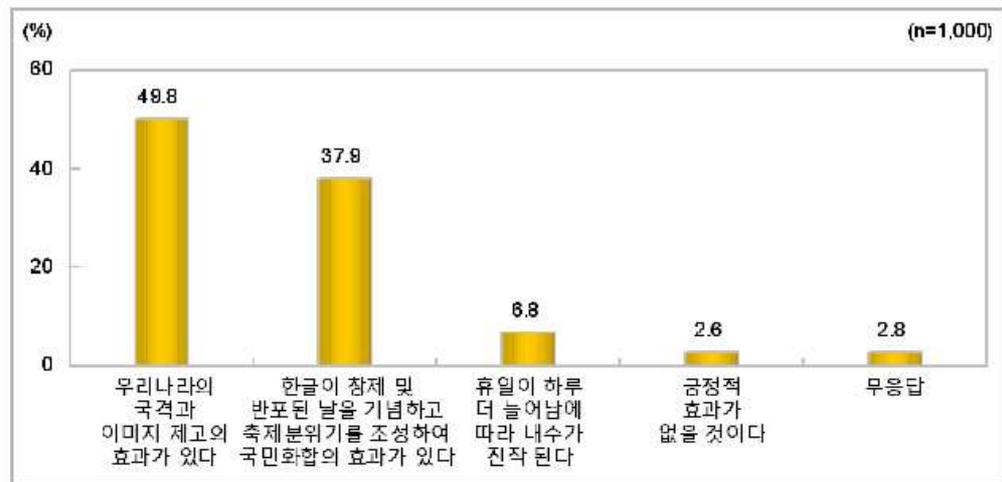
(단위 :명, %)

전 체	응답자수	백분율(%)
우리민족 고유의 언어로 한글은 중요해서	210	27.5
쉬거나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어서	125	16.5
한글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서	93	12.1
소중한 우리글을 만든 날이어서	82	10.7
공휴일로 정하면 기억하기 쉬워서	58	7.6
원래 국경일이고 공휴일이었으므로	34	4.5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날이어서	34	4.4
아이들을 위한 교육적인 목적으로	32	4.1
전세계적으로 고유한 언어여서	22	2.9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자랑하기 위해서	21	2.8
문화적으로 한글을 기념하기 위해서	20	2.7
민족의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18	2.3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을 기리기 위해서	13	1.7
공휴일이 부족해서	11	1.5
한글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10	1.3
한글의 세계화를 위해서	9	1.2
한글날 관련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서	8	1.1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6	0.8
더욱 더 다양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어서	3	0.4
외래어 범람으로부터 한글을 보호하기 위해서	2	0.3
휴일 근무 시 특근수당을 받을 수 있어서	1	0.1
없다/모름/무응답	24	3.2
합 계	763	100.0

- 한글날의 법정공휴일 재지정에 반대하는 응답자의 경우(n=161), 한글날의 공휴일 재지정 반대 이유로 48.4%가 ‘공휴일이 너무 많아서’ 를 꼽음

■ 한글날 공휴일 지정의 긍정적 효과

-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를 묻는 질문에, 87.7%의 응답자가 ‘한글의 세계화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국격과 이미지 제고의 효과가 있다(49.8%)’ 와 ‘사회/문화적 효과(37.9%)’ 를 꼽음
 - 한글날 공휴일 지정으로 인해 국가브랜드 제고 효과와 한글이 창제 및 반포된 날을 기념하고 축제분위기를 조성하여 국민화합의 효과라는 사회문화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그 밖에 휴일이 하루 더 늘어남에 따라 내수가 진작 된다’ 는 경제적 효과는 6.8%로 나타남
- 반면, ‘긍정적 효과가 없을 것이다’ 는 2.6%에 불과하였으며 ‘모름/무응답’ 은 2.8%였음



[그림 III-5] 한글날 공휴일 지정의 긍정적인 측면

- 전문가 의견 조사결과에서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의미를 되새기고, 다양한 한글날 프로그램 개최 및 참여를 통하여 여가활동과 문화생활의 기회 증가라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언급

나. 한글날 공휴일 지정의 필요성

■ 한글의 우수성과 자긍심 고취

- 한글은 세계 역사상 문자의 창시자와 창시목적이 알려져 있는 문자로 한글을 세계화하기 위해서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해 한글 창제의 과학적 우수성과 국민을 사랑하는 애민정신과 같은 창제 정신의 역사성을 세계만방에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 한글날의 국경일 지정은 가족들과 한글의 의미를 되새김으로써 후세에 한글 창제의 의미를 전달하고 관련 행사 및 축제와 같은 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참가 유도를 위한 정책적 장치가 되어 한글과 한국어 사용의 저변확대를 모색함
 -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한글창제의 참뜻을 기리고 한글 우수성을 널리 알리며,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여 뜻을 되새기며 한글 및 한국어 사용을 확대
 - 한글날보다 상징성이 떨어지는 기념일 등은 공휴일로 하면서 국경일을 공휴일로 하지 않는다면 국경일의 역할과 의미, 교육적 효과 등에서 문제점으로 작용할 가능성 존재함
- 세계화로 인해 많은 사람이 영어 중요시 여기고 혼용하는 현 상황에서 한글을 만들어 지정·공포한 날인 한글날을 기념하며 한글의 가치와 중요성을 되새기는 의미가 있음

■ 한글 정책의 일관성 회복

- 국어기본법에 의해 국어 관련 국가 차원의 예산은 증가하고 다양한 한글 사업을 지원하여 국가브랜드로써 한글의 세계화 추진전략을 모색하고 있으나 경제적 이유로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음은 국가 국어정책의 일관성에 어긋남
 - 박물관 설립, 세종대왕 동상 설치, 세종학당 지원 등의 다양한 한글 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비용발생으로 한글날은 아직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고 있음
 - 한글박물관 설립 투자는 한글의 우수성을 재현하며 한글 정신과 문화를 알리고 교육한다는 목적 아래에 한글 전시, 교육연구, 연구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음. 한글 보급 노력과 상반되게 경제적 이유로 한글날 공휴일 미지정은 논리에 맞지 않음

-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의 제정 후 시행령에 따라 매년 10월을 문화의 달로 지정하여 관련 기념행사, 학술행사, 한민족예술교류 등의 행사를 열고 있으나 한글날은 국경일에만 지정되어 있고 공휴일에는 제외되어 문화관련 행사 개최 미흡한 실정임
 - 매년 10월에 문화예술에 크게 기여한 분들의 노고를 기리는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으나 한글날은 공휴일에 지정되지 않아 기념식과 다양한 참여 행사 개최 횟수가 적고 국민 참여율도 저조함
- 국어 관련 예산이 증가되고 있으나 문화체육관광부나 국립국어원 사업이 연구자 및 연구기관과 원활히 연계되지 않음도 문제점으로 제기됨

■ 국경일과 공휴일의 형평성 문제

- 한글날이 국경일이면서도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됨
 - 제헌절과 한글날 등은 국가적 의미 있는 날이지만 국경일 중 두 날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 한글날의 공휴일 지정을 검토해야함
 - 기념일의 경중을 따지는 것에 절대적인 기준이 있지는 않겠으나 일부 종교인의 축일인 성탄절이나 석가탄신일에 비해 전국민의 축제일이자 문화유산 탄생일인 한글날이 공휴일이 아닌 것은 공휴일 지정의 형평성에 크게 어긋남
-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한글이 국민 생활에 함께하고 다양한 한글 행사 및 여가문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 국경일은 국민이 다함께 의미를 되새기며 경사스런 날을 기념해야 하지만 한글날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국가적인 행사나 단체별, 지역별, 기관별 기념행사에 국민들이 참여하기 어려움
 - 국민들의 한글날 행사에 참여하여 한글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여가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여 새로운 수요 창출 필요성 제기

■ 국민 여론의 요구 증대

- 국민들은 한글을 우리글과 언어를 문화의 기본으로 민족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게 하는 소중한 유산으로 여기고 있음

- 한글날 공휴일 지정의 찬성 의견은 국민여론 조사대상자의 과반수인 76.3%로 보임
-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한글날 공휴일 지정이 이루어지면 휴일 수 증가와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한 노동생산성 약화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됨
 - 경제계에서 우려하는 휴일 수 증가로 인한 노동생산성 약화는 국민여론 조사 결과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동근로시간이 많은데 비해 노동생산성은 낮은 문제점이 있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국민 휴식권 증가의 열망 반영 필요성 제기

■ 문화여가관광 지출 증대에 따른 내수 경기 활성화

- 2010년 대체휴일제 시행으로 4일의 휴일 증가 시 관광활동은 약 1.5일(37.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국민이 1.5일을 추가 관광할 경우 약 2조 8,239억 원의 관광비용 추가 지출 기대(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 약 2조 8,239억원의 추가 관광지출로 인해 생산유발효과 4조 9,178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조 1,642억원, 고용유발효과 8만 5,282명 등의 파급효과 발생 기대
- 여가시간의 확대로 문화관광 활동 관련 지출액 증가로 관련 산업 발전, 신규고용창출, 국민소득 증대 등 국민경제활성화에 기여

■ 노동 스트레스 완화 및 생산성 향상

- 외국에 휴일 수가 많아 노동생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지만 국제노동기구(ILO)의 조사결과 노동시간이 많다고 노동생산성이 비례해서 증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휴일의 탄력적 조정이 필요함
 - 정부 및 경영계는 외국에 비해 휴일 수가 많아 노동생산성이 저하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노동시간과 노동생산성 간에 정비례하는 것은 아님
- 공휴일 지정 및 대체휴일제도 도입으로 근로자들의 여행 및 여가활동 기회 제공으로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함께 국내관광수요를 성장시켜 노동 생산성을 향상에 기여

■ 행복추구권과 휴식권 보장

-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 시간이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많아 외국에 비해 휴일 수가 많다는 주장은 옳지 않음
 - 우리나라는 연간 근로시간이 2천 시간이 넘는 반면 선진국들은 1,800시간 수준임
 - 단순한 휴일 수의 비교가 아니라 전체 일하는 시간 또는 연간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고려되어 함
- 한글날뿐만 아니라 제헌절과 어버이날,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국민의 휴식과 행복추구권을 보장을 주장하자는 의견이 제기됨
 - 한글날 및 제헌절과 같은 날 공휴일을 제정하여 의미 있는 날에 대해 보상하여 국민들이 국경일에 쉬고자 하는 국민 의견 반영 필요
- 국민여가권 존중을 위해 국경일이면서도 비공휴일인 한글날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대체공휴일제를 도입에 대한 논의 제기
 - 공휴일의 증가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국경일이면서도 비공휴일로 지정된 한글날과 제헌절은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
 - 대체휴일제 도입에 관한 논의는 공휴일이 연간 평균 3일 이상 휴일과 중첩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휴식권과 여가권을 보호 및 증진하기 위함
 - 한글날을 공휴일로 추가 지정하고 공휴일이 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공휴일 다음 첫 번째 평일을 공휴일로 하자는 의견도 제시됨
 - 정부 기관 및 일부 의원의 대체공휴일 제도 공청회에서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경제위기 상황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전면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음

■ 다문화 시대에서 한국어의 수요 증대

- 국내 외국인의 체류 현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국제결혼으로 이주해오는 이주민의 체류 현황도 증가하고 있음
 -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한글과 한국어의 올바른 인식 형성과 언어를 효과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습득하도록 단순히 언어습득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문화의 장 마련



[그림 III-6]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감 추이

<표 III-7> 결혼 이주민 체류 현황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0.12월
인원(명)	25,182	34,710	44,416	57,069	75,011	93,786	110,362	122,552	125,087	141,654
증감률 (전년 대비,%)	-	37.8	28.0	28.5	31.4	25.0	17.7	11.0	2.1	13.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1), 내부자료

- 2004년부터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한글 및 한국어 수요와 단기 시험대비과정 학습자의 증가

<표 III-8>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력 체류 현황

구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6월
총계(명)	104,348	199,620	362,460	454,431	461,203	458,497
일반(E-9)	52,305	115,122	134,012	156,429	158,198	164,494
동포(H-2)	52,043	84,498	228,448	298,002	303,005	294,00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1), 내부자료

- 다문화 시대와 외부적 요인에 의한 한국어 사용자 증가는 한글 및 한국어 홍보 매개체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님

■ 한국문화 전파와 사회교육으로의 한국어 학습 수요 증대

- 한류와 한국어의 위상이 상승함에 따라 유학생, 어학연수생이 증가하고 외국인의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율도 증가하고 있음
- 한국의 대외적 역량강화, 한국기업의 해외활동 증가 등으로 한국 및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인해 한국어 학습수요의 발생 증가
- 한류의 확산에 따른 한국문화의 관심이 증대하여 한글과 한국어 수요자가 늘어나 민족의 말과 글로써 한국어와 한글의 가치 및 중요성에 대한 자긍심이 고취됨. 따라서 한글날 공휴일 지정으로 한글의 세계 확산 효과 증대를 모색하고 세계 속의 한국어로 자리매김
 - 한국 배우들에게 한국어로 팬레터를 보내고 드라마를 한국어로 듣고 이해하기 위해서 한국어 학습열기가 높음
 - 일본의 NHK 교육방송의 한글강좌 시청률이 급상승했고 문화센터에서 실시하는 한국어 강좌 수강생도 증가했으며, 시중의 일반 어학원에 한국어 강좌가 신설됨
 - 한글과 한국어에 대한 일시적인 학습에 그치지 않고, 한글능력검정시험에 응시하는 등 지속적인 학습으로 연계됨
 - 한류 문화 확산으로 한글·한국어 학습자 증대는 한글과 한국어 세계 보급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 한글과 한국어 학습자 증가는 한국문화 및 개인적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고, 잠재적으로 한국어 학습자군의 확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한글과 한국어 사용인구수 증대는 한글날의 위상을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표 III-9> 외국인 유학생 체류 현황

(단위 : 명)

연 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0.12월
합 계	9,705	17,023	24,797	38,649	56,006	71,531	80,985	97,480
유학(D-2)	9,705	41,407	20,683	30,101	41,780	52,631	62,451	69,600
국어연수(D-4·1)	-	2,616	4,114	8,548	14,226	18,900	18,534	17,880
증감률 (전년대비,%)	33.2	75.4	45.7	55.9	44.9	27.7	13.2	8.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1), 내부자료

<표 III-10> 외국인의 한국어능력시험 응시 현황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시행국가 및 지역	28개국 73지역	28개국 83지역	31개국 101지역	35개국 124지역	39개국 139지역
응 시 자	30,270명	72,292명	142,804명	170,507명	149,650명
S-TOPIK	30,270명	44,139명	63,460명	75,141명	92,607명
증감률	-	45.8%	43.7%	18.4%	23.2%
B-TOPIK*	-	28,479	79,344	95,366	57,043
증감률	-	-	178.6%	20.1%	▽40%

주)* : B-TOPIK(방문취업체 관련 실무 능력 평가): '07년~'10년 시행, '11년부터 폐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1), 내부자료

4. 한글날 공휴일 지정의 쟁점 사항 검토

- 본 절은 문화체육관광부(2010c, 81~115쪽)의 관련 선행연구 ‘2010 휴가문화 선진화 및 공휴일제도개선을 통한 내수관광 활성화 방안’의 내용 중 본 연구와 관련성이 있는 부분을 정리 한 것임
- 한글날 공휴일 지정 관련 주요 쟁점 사항은 선행연구에서 검토한 사항과 동일한 범위와 수준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휴일 1일 증대 및 대체공휴일 도입과 관련된 휴일 수, 인건비, 노동생산성 등의 내용 분석에 초점을 두어 검토함

가. 휴일 수 및 연차 일수

1) 쟁점 사항

- 한글날 공휴일 추가 지정으로 공휴일 수가 현재 14일에서 15일로 하루 늘어나게 됨에 따라, 경제단체에서는 공휴일 수가 많다는 이유로 한글날 공휴일 지정을 반대할 것으로 예상됨. 문화체육관광부(2010c) 연구에 의하면 경총 및 경제단체에서는 휴식시간이 필요하면 연차휴가 활용을 주장함
- 한글날 공휴일 지정의 찬성측은 우리나라 공휴일제도의 법제도적 미비로 해외국가보다 실제 휴일 수가 적은 수준이고, 근로자의 휴식시간도 부족한 실정으로 한글날이 공휴일이 지정과 함께 대체 공휴일제 도입을 동시에 필요한 것으로 주장함

2) 관련 내용 및 사례 분석

■ 주요국과 휴일 수 비교

- 2010년 기준 일요일을 제외한 우리나라 연간 공휴일 수는 10일이고, 연휴를 포함하는 경우 총 14일이며(추석 및 설날은 각각 2일씩의 연휴 추가),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연간 총 공휴일은 15일이 됨
- 해외 주요국과 공휴일수를 비교해 본 결과 우리나라는 영국(8일), 프랑스(12일), 호주(12일)보다는 많으나, 일본(15), 독일(10~15), 미국(10~14) 등

의 국가와는 유사하거나 적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일본은 연말연시 5일의 연휴를 포함하는 경우 공휴일 수는 총 20일로 우리나라보다 많음
- 미국 및 독일은 연방공휴일 외에 지방 공휴일이 별도로 존재하므로 지역별로 공휴일 수의 차이가 발생

<표 III-11> 주요국의 공휴일 및 휴일수 비교

구분	한국	일본	독일	러시아	미국	프랑스	호주
공휴일 수(A)	현행: 14	15	10~15	16	10~14	11	12
	한글날공휴일 지정시: 15						
대체휴일제 도입 여부	×	○ 일요일	×	○ 토요일 일요일	○ 토요일 일요일	×	○ 토요일 일요일
토·일요일 중첩 공휴일(B)	6	0	2~7	-	-	4	-
실제 공휴일수 (A-B=C)	8	15	8	16	10~14	7	12
연차휴가 부여일수(D)	19 (10년 근로시)	20 (6.5년 근로시)	30 (1년 근로시)	-	20 (10년 근로시)	25 (1년 근로시)	-
실제공휴일수 + 연차휴가 부여일수	27	35	38	-	30~3 4	32	-
공휴일 사이 샌드위치데이 요일제공휴일	-	국민 휴일	-	-	-	-	-
요일제공휴일 도입여부 (3일 연휴)	×	○	○	○	○	○	○
정규·비정규직 근로자 연평균 노동시간 (‘07년, OECD)	2,316 (289일)	1,785 (223일)	1,433 (179일)	- (비회 원국)	1,798 (224일)	1,553 (194일)	1,717 (214일)

자료 : 국회행정안전위원회(2010).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2010.3.24

Ⅲ. 한글날 공휴일 지정의 필요성 및 쟁점 사항 검토

- 우리나라의 경우 공휴일제도가 날짜지정방식을 취하고 있어 실제 공휴일 수는 3일~8일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 날짜지정방식이 아닌 공휴일의 요일제 지정 혹은 대체휴일제 시행을 통해 공휴일의 중첩 현상을 방지하고 있어, 실제 공휴일 수는 외국보다 많다고 할 수 없음
 - 2010년의 경우 6일의 공휴일이 토요일 및 일요일과 중첩됨으로써 실제 공휴일 수는 총 8일 임
 - 2010 ~ 2020년 기간 공휴일과 토요일과 일요일 중첩수를 보면, 2010년 6일 2011년 3일 등으로 매 5년 주기로 6일의 공휴일과 토요일과 일요일 중첩 현상이 나타남 (<표 Ⅲ-23> 참조)

<표 Ⅲ-12> 우리나라 2010-2020년 공휴일 현황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토·일 중첩수 (현행 공휴일제도)		6	3	5	3	3	6	3	3	3	3	6
한글날 공휴일 도입시 토·일 중첩수		7	4	5	3	3	6	3	4	3	3	6
1. 1		금	토	일	화	수	목	금	일	월	화	수
설날	음력 12월말	토 (2.13)	수 (2.2)	일 (1.22)	토 (2.9)	목 (1.30)	수 (2.18)	일 (2.7)	금 (1.27)	목 (2.15)	월 (2.4)	금
	음력 1.1	일 (2.14)	목 (2.3)	월 (1.23)	일 (2.10)	금 (1.31)	목 (2.19)	월 (2.8)	토 (1.28)	금 (2.16)	화 (2.5)	토
	음력 1.2	월 (2.15)	금 (2.4)	화 (1.24)	월 (2.11)	토 (2.1)	금 (2.20)	화 (2.9)	일 (1.29)	토 (2.17)	수 (2.6)	일
3·1절		월	화	목	금	토	일	화	수	목	금	일
어린이날(5.5)		수	목	토	일	월	화	목	금	토	일	화
석가탄신일 (음력4.8)		금 (5.21)	화 (5.10)	월 (5.28)	금 (5.17)	화 (5.6)	월 (5.25)	토 (5.14)	수 (5.3)	화 (5.22)	일 (5.12)	목 (4.30)
현충일(6.6)		일	월	수	목	금	토	월	화	수	목	토
광복절(8.15)		일	월	수	목	금	토	월	화	수	목	토
추석	음력 8.14	화 (9.21)	일 (9.11)	토 (9.29)	수 (9.18)	일 (9.7)	토 (9.26)	수 (9.14)	화 (10.3)	일 (9.23)	목 (9.12)	수 (9.30)
	음력 8.15	수 (9.22)	월 (9.12)	일 (9.30)	목 (9.19)	월 (9.8)	일 (9.27)	목 (9.15)	수 (10.4)	월 (9.24)	금 (9.13)	목 (10.1)
	음력 8.16	목 (9.23)	화 (9.13)	월 (10.1)	금 (9.20)	화 (9.9)	월 (9.28)	금 (9.16)	목 (10.5)	화 (9.25)	토 (9.14)	금 (10.2)
개천절(10.3)		일	월	수	목	금	토	월	화	수	목	토
기독탄신일 (12.25)		토	일	화	수	목	금	일	월	화	수	일

3) 검토 결과

- 우리나라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연간 15일~25일의 연차유급 휴가를 부여받음. 단 최소 1년 근로의 경우에 한해서만 15일의 휴가가 부여되며, 근속연수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혹은 기업 재량에 따라 2~3일의 휴가를 부여함 (문화체육관광부,2010c, 84쪽)
- 유럽연합(EU) 평균 근로자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총 25.9일로 1년 근속 근무 후 각 국가별로 최소 20일~최대 33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연차휴가 상한 일수인 25일을 부여받기 위해서 요구되는 근속연수는 평균 15년 정도임
- 우리나라 근로자의 경우 20일의 휴가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최소 11년을 근속 근무해야 하므로 휴가 총량부문에서 유럽 주요국과 미국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보여지며, 우리나라 근로자의 휴가환경이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여 휴가 양적인 측면에서 우월하다고 볼 수 없음
- 우리나라 휴가 여건에 관한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0b)의 자료에 의하면 직장인은 업무과다, 직장 내 분위기로 인해 전체 휴가의 61.3%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휴일 수가 충분하지 못함
 -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업무과다(26.9%), 직장 내 분위기(23.7%), 주말 이외 휴가 불필요(15.9%), 연차수당 등 추가 소득(15.6%), 대체인력 미확보(11.9%) 순으로 나타남
- 직장인의 휴가 미사용 이유는 경제계에서 주장하는 연차보상에 따른 경제적 이유보다는 휴가 가기에 어려운 직장 분위기 때문임
 - 직장인들의 경우 연차보상을 폐지해도 휴가 사용일수는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공식적인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경제적 보상이 아니라 휴가를 가기에 어려운 직장분위기와 실제 업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나. 기업의 인건비 및 생산 차질 비용

1) 쟁점사항

-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 2010c, 88쪽)
 - 근로기준법 제55조 규정에 의거 휴일근로의 경우 법정휴일은 물론 약정휴일에도 가산수당을 지급
 -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외 연장근로수당을 별도 지급
 - 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휴일은 특정일을 지정하지 않으며, 1주일 중 1일 이상의 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만 규정
- 문화체육관광부 (2010c, 88쪽)에 의하면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주장은 24시간 기계 설비를 가동해야 하는 장치산업과 고용인원 수가 적은 중소기업, 특히 부품 제조업은 수주량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함. 따라서 휴일이 현재보다 확충되는 경우 기업의 인건비 지출증가 및 생산차질에 따른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임
- 반면에 대체공휴일제도 시행은 국민경제 측면에서 휴가·휴식의 사회적 편익이, 공휴일 근무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상승의 비용을 상회하고 공휴일 1일 추가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이 있다는 반론이 있음

2) 인건비 및 생산차질 손실 비용

- 문화체육관광부(2010c, 105쪽)의 한국경영자총협회(2010) 자료에 의하면 공휴일 1일 증가시 중소기업, 대기업 손실액과 생산 차질액은 8조 2,846억원, 공휴일 2일 증가 시 11조 3,416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음

<표 III-13> 공휴일 법제화 및 대체공휴일 도입에 의한 기업의 직접손실액

(단위 : 억 원)

구분		중소기업	대기업	계
휴일근로수당 증가 (1)		19,701	14,406	34,107
퇴직금 추가부담 (2)		9,045	9,124	18,169
공휴일 1일 증가에 따른 생산차질액 (3)		13,546	17,024	30,570
기업 손실액 합계	공휴일 1일 증가시 (1+2+3)	42,292	40,554	82,846
	공휴일 2일 증가시	55,838	57,578	113,416
	공휴일 2.2일 증가시	58,547	60,983	119,530

자료: 한국경영자총협회(201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공휴일제도 개선에 대한 공청회 발표자료 인용 (문화체육관광부, 2010c, 105쪽)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공휴일의 법제화 및 대체공휴일이 시행되는 경우 휴일확충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지급과 근로시간 감축의 영향으로 인해 최대 11조 3,416억원의 기업 직접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함
 - 공휴일 법제화 및 대체공휴일 도입에 의한 기업 손실은 휴일근로수당과 이에 따른 퇴직금 추가부담액 및 생산차질액의 합계
- 또한 대체공휴일제도 도입으로 휴일이 현재보다 약 2.2일 확충될 때 생산이 중단됨에 따라 발생하는 기업의 생산차질액은 약 6조 7,254억원으로 계산함
 - 공휴일 증가에 따른 광업 및 제조업 부문 생산차질액
 = 광업 및 제조업 출하액 ÷ 365일 × 휴일증가일수

3) 검토 결과

-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공휴일 법제화 및 대체공휴일 도입에 의한 기업 손실은 휴일근로수당과 이에 따른 퇴직금 추가부담액, 그리고 생산 차질액의 합산하고 있음. 하지만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한다는 전제하에서 인건비를 산정하여 계산하고 있으므로 생산 차질은 일어나지 않음으로 생산차질액을 기업의 손실에 포함하는 것은 중복 계산이 됨
- 한편 중견기업 및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재량적 휴일제도의 시행이 가능하도록 대체인력 배치 및 교대근무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생산손

실은 과대추정으로 볼 수 있으며, 퇴직금 충당 부담금을 추가비용을 공휴일 제도개선과 연계하여 산정하는 데 부적절함을 지적함 (문화체육관광부(2010c))

- 공휴일 1일 추가 및 대체공휴일 제도 도입에 따른 편익-비용 분석에서 공휴일제도 도입은 사회적인 편익이 비용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사회경제적 편익에서 한글날 공휴일제도 도입도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음. (문화체육관광부, 2010c)

다. 휴일의 내수 경기 활성화 효과

1) 쟁점사항

- 한글날 공휴일 지정의 찬성 입장은 휴일 증대의 경우 문화, 여가 및 관광활동을 통하여 민간소비 활성화 국민 국내관광 수요 진작 등이 편익효과를 강조하며, 재정지출을 통한 의도적인 경기부양책보다 경제적 부작용이 적은 점을 지적함
 - 프랑스와 미국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시행했던 휴일 확대 정책이 실효를 거둔 바 있으며, 일본에서도 민간소비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 하에 2003년 ‘해피먼데이’ 공휴일 제도를 도입한 사례가 있음
- 재계 및 경제단체에서는 휴일 증대와 국내총생산 증가와 민간소비 활성화 간에는 관련성이 낮으며, 따라서 휴일이 증가하더라도 소비활동이나 생산이 증대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냄

2) 관련 사례 검토

■ 주 5일 근무제의 소비 지출 효과

- 문화체육관광부 (2010c, 94~99쪽)의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주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으로써 근로자들의 자유시간이 비교적 증가되었을 때 국민들의 여가부문에 대한 소비지출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관련 산

업들의 매출이 성장한 것으로 분석함

- 주40시간 근무제 시행 후 교양, 오락, 잡비(용돈), 외식비 등의 가계지출은 월평균 약 2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식비 및 잡비 등 전 소비부문에서 지출이 증가함(이지평, 2005)
- 주40시간 근무제 시행 후 소비부문별로는 교양·오락서비스 및 외식 부문의 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옥외 레저 활동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주40시간 근무제 시행 업체 근로자의 교양·오락서비스 부문의 지출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
- 교양·오락서비스, 외식, 옥외 레저 부문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면서 유통업, 엔터테인먼트, 여행업 등 관련 산업의 매출이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는 홈쇼핑 및 백화점 등 유통업 부문에서의 매출이 크게 증대되었으며, 다음으로 레저용품 및 여행상품의 판매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또한 TV시청시간이 증가하면서 업계 자체적으로 상품구성의 다양화 및 신상품 개발 등의 내실경영체제를 유지하면서 TV 홈쇼핑의 수익성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 2010c)

■ 공휴일 1.5일 추가 여행지출 효과

- 전 국민이 대체 공휴일 지정으로 1.5일을 추가될 경우 약 2조 8,239억원의 관광비용 추가 지출 기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내부자료)
- 2조 8,239억원 = 1.5일 × 38,519원(1일 관광 지출액) × 48,875천명(2010년 추계인구)
 - 관광일수 1.5일 증가는 국민들의 여행일수(2008년 연간 10.07일)를 약 14.9% 증대시키는 효과
 - ※ 산식 관광지출액 = 순증대여행일수(1일) × 38,519원(1일 관광 지출액) × 2010년 추계인구 × 여행참여율 (66.0%)
- 약 2조 8,239억원의 추가 관광지출로 인해 생산유발효과 4조 9,178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조 1,642억원, 고용유발효과 8만 5,282명 등의 파급효과 기대

- 전 국민이 한글날 공휴일 지정으로 1일을 추가 관광할 경우 선행연구의 산식을 적용할 경우 약 2조 8,239억원의 관광비용 추가 지출 기대

3) 검토 결과

- 문화체육관광부(2010c)에 분석결과 주40시간 근무제 시행 전후 및 휴가·연휴기간 동안의 여가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민간소비와 관련 사업체의 매출액이 증대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특히 민간 부문에서의 여행 여가 문화비 지출 증대에 따른 내수경기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휴일이 증대된 주 40시간 근무제 이후 대형마트, 백화점, 할인점 등을 중심으로 한 유통업이 성장세를 나타내었으며, 여행업 및 레저 관련 산업도 국민 여가활동 증가의 영향으로 매출이 신장된 것으로 파악됨. 여행 및 레저 용품 판매고 증가는 관련 산업의 매출신장도 촉진시킨 것으로 분석됨 (문화체육관광부, 2010c, 99쪽)

라. 휴일 증대와 노동생산성 간의 관계

1) 쟁점 사항

- 공휴일 증대를 반대하는 측은 우리나라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은 주요 선진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므로,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의 생산손실을 초래하며, 낮은 노동생산성 만회를 위해서는 근로시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냄
- 휴일확대를 찬성하는 측은 우리나라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이 낮은 원인으로 2,000시간을 초과하는 세계 최고수준의 근로시간 때문이며, 장시간 근로로 인한 신체적 및 정신적 한계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견 (문화체육관광부, 2010c, 99쪽)

2) 사례 분석

■ 노동시간과 노동생산성 비교

- 유럽 주요국의 근로시간에 대한 조사 결과 대부분 주당 40시간 수준이며,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은 주당 35시간~37시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
이에 따라 명목상 연간 총 근로시간은 약 1,820시간~2,080시간 수준임
 - 명목상 연간 총 근로시간 = 주당 근로시간 × 52주
- 단 각 국가별로 공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등에 의해 총 224시간~396시간의 휴식시간이 부여되며, 따라서 실제 연간 근로시간은 최소 1,568시간~최대 1,856시간 수준임
 - 실질 연간 총 근로시간
= (주당 근로시간 × 52주) - ((연차유급휴가일수+공휴일수) × 8시간)
- 우리나라의 경우 주40시간 근무제 시행기업 및 미시행 기업 소속 근로자의 명목상 주당 근로시간은 각각 2,080시간 및 2,288시간임
- 근로자의 실제 연간 근로시간은 명목상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2,134시간으로 조사된 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장의 노동시간으로 주 40시간 혹은 주44시간 근무가 준수되지 않으며 초과근로 혹은 휴일 근로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됨
- OECD(2011) 자료에 의하면 연간 근로시간과 노동생산성 간의 자료를 볼 때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25.2로 OECD 국가 평균 43.9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비교대상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OECD 국가의 노동생산성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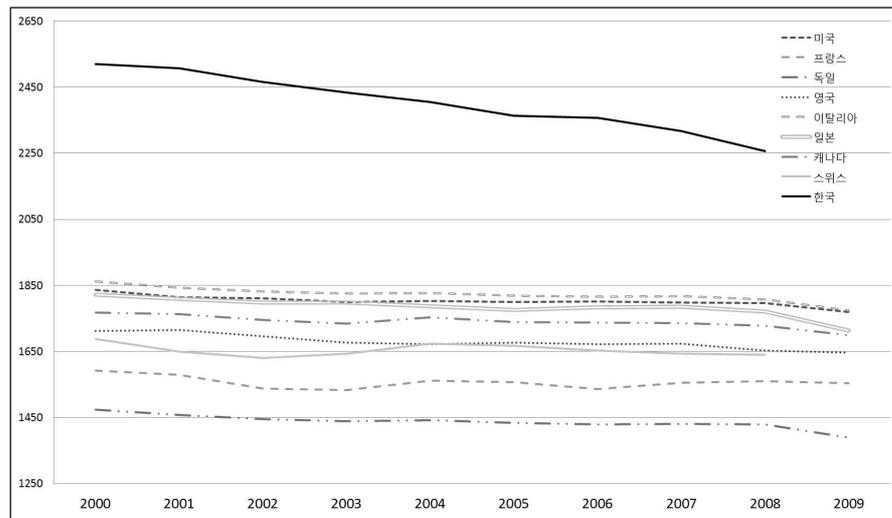
III. 한글날 공휴일 지정의 필요성 및 쟁점 사항 검토

<표 III-14> 2009년 국가별 노동시간 및 노동생산성

국가명	주당 평균 근로시간	연간 근로시간	노동 생산성*
미국	-	1,681	56.8
프랑스	38.0	1,554	54.7
독일	35.7	1,390	53.1
영국	36.6	1,646	45.8
이탈리아	38.0	1,773	44.3
일본	-	1,714	38.2
캐나다	-	1,699	43.8
스위스	35.1	1,640	47.1
한국	46.6	2,232	25.2
G7	-	1,648	50.3
OECD국가	-	1,706	4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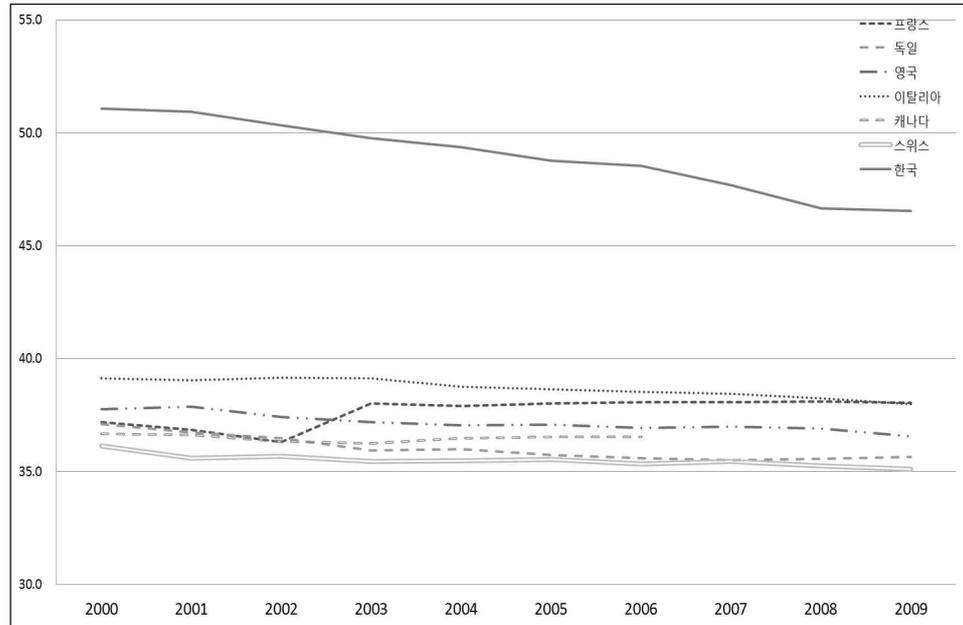
주)* : GDP per hours worked, current prices, USD

자료 : OECD(2011) 통계에 근거하여 재구성



[그림 III-7] 1인당 근로시간

자료 : OECD 통계자료를 통해 재구성



[그림 III-8] 고급인력의 노동시간 비율

자료 : OECD 통계자료를 통해 재구성

■ 노동생산성 관련 사례

- 삼성경제연구소(2008)는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 통념과 같이 근로자의 노동 강도를 강화하거나 자동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함 (문화체육관광부, 2010c, 101쪽)
 - 노동생산성과 근로시간은 역상관 관계에 있다는 분석결과에 근거
- 이규만 · 오홍재(2008)가 주5일 근무제가 구성원의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에서도 근로시간의 단축은 장기적으로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문화체육관광부, 2010c, 101쪽)
 - 근로자가 증가된 휴일 중 일부시간을 직업 능력개발에 활용할 수 있음으로써 인적자본 향상
 - 휴식보장을 통한 업무피로현상 감소
 - 산업재해 및 과로사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감소와 노동현장의 안전성 제고

■ 근무만족도 및 조직 몰입도

- 주40시간 근무제 실시기업 근로자의 직무만족도 및 조직몰입도가 더 높으며,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자기계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문화체육관광부, 2010c, 101쪽)
 -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기업 근로자의 직무만족도 및 조직몰입도가 더 높으며,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자기계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3) 검토 결과

-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근로자 휴식시간 보장 시 노동생산성, 근무만족도, 조직몰입도 등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근로자의 휴식시간 보장은 업무스트레스 완화 등과 같은 리프레쉬 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근로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게 되며, 자기계발에 투자하는 시간이 증가하여 근로자 능력을 증대시키게 되므로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킴
-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로 하여금 업무를 근무시간대별로 효율성 있게 분배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집중도 제고는 물론 결과적으로는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작용을 하게 되며, 더 나아가 기업 전체로서는 시간손실을 감소시키게 됨

바. 기타 쟁점사항

■ 한글날 공휴일의 법제화 및 일요일 유급휴일

- 우리나라의 경우 공휴일 및 토·일요일 유급휴일 임으로 공휴일을 법제화 할 경우 기업은 휴일근로수당 추가 지출로 기업비용이 증대하게 됨
 - 법률로 휴일을 유급으로 지정한 국가는 우리나라, 대만, 태국 임 (문화체육관광부, 2010c, 93쪽)

- 국가별로 노동법에서 국가공휴일을 규정하고 있는 사례와 관습적으로 휴일 제도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으나, 공휴일을 법제화 한 사례는 일부 국가임
 - 프랑스의 경우 노동법전에서 공휴일 지정, 영국의 경우 은행휴일법(Bank Holidays Act)에 의해 은행휴일을 공휴일로 지정

■ . 해외 여행수요 증대

- 한글날 공휴일 지정으로 휴일이 1일 증대 될 경우 국민 해외관광이 증가할 수 있으며, 국내관광수요 확대효과는 미미하거나 혹은 전무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 될 수 있음
 - 국민들의 해외여행 증가로 인하여 해외지출이 증가하는 경우 국내에서의 지출을 자제할 것이므로 민간소비활성화 효과도 작을 수 있음
- 반면에 국민해외여행 수요는 경기, 환율, 물가 등의 경제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되고, 단순히 휴일 1일 증대로 국민의 해외여행이 증가한다는 반대측의 의견은 근거가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한글날 공휴일 지정 시 타 공휴일 간의 대체

- 한글날이 공휴일 지정될 시 공휴일 수 증대에 따라 타 공휴일(예, 개천절 혹은 어린이 날 등) 1일을 축소하고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음
- 하지만 현존 공휴일 모두가 중요한 가치와 의미가 있으므로 공휴일 수 보다는 한글과 한국어의 가치와 중요성을 반영하여 한글날 공휴일 지정 검토가 필요함

5. 소결

■ 국경일, 공휴일, 기념일의 현황

- 국경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기념일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지정됨. 공휴일에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어린이날 등 14일이 지정되어 있고,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지정되어 있으나 이 중 제헌절과 한글날은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음

■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 논의

- 최근 한글날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날, 어버이날의 공휴일 추가 지정과 대체휴일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음. 노동생산성의 이유로 공휴일에서 폐지되었던 한글날의 공휴일 재지정 논의 외에도 대체휴일제도 도입을 통해 휴일과 겹치는 공휴일을 비공휴일 하루 공휴일로 하여 국민의 여가권 보장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하자는 주장이 제기됨

■ 한글날 공휴일 지정과 관련된 논점

- 한글날 공휴일 지정과 관련된 정부 부처 중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처 간 이견이 있음. 경제계는 생산성 약화와 추가 비용 발생으로 반대하지만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은 한글날 공휴일 지정으로 한글의 의미를 되새기고 휴식권 향상이라는 찬성의 입장을 보임
- 한글날 공휴일 지정에 대한 찬성측의 의견은 국경일과 공휴일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다양한 한글사업을 지원하면서 한글날을 공휴일로 미지정하는 한글 정책에 일관성이 결여됨을 주장하며,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연간 근로 시간이 선진국에 비해 많아 한글날의 공휴일로 추가 지정될 경우 국민의 휴식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 노동생산 스트레스를 완화 및 생산성 향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됨. 또한 휴일 수 증가에 따른 국민 여가문화 활동으로 인한 소비지출의 확대로 내수경기 활성화가 기대됨

- 한글날 공휴일 지정에 대한 반대측 논거는 연차휴가 제도 활용으로 휴식권이 보장되고 과도한 휴가일수에 의한 인건비 상승과 생산 차질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 정부 부처 간 논의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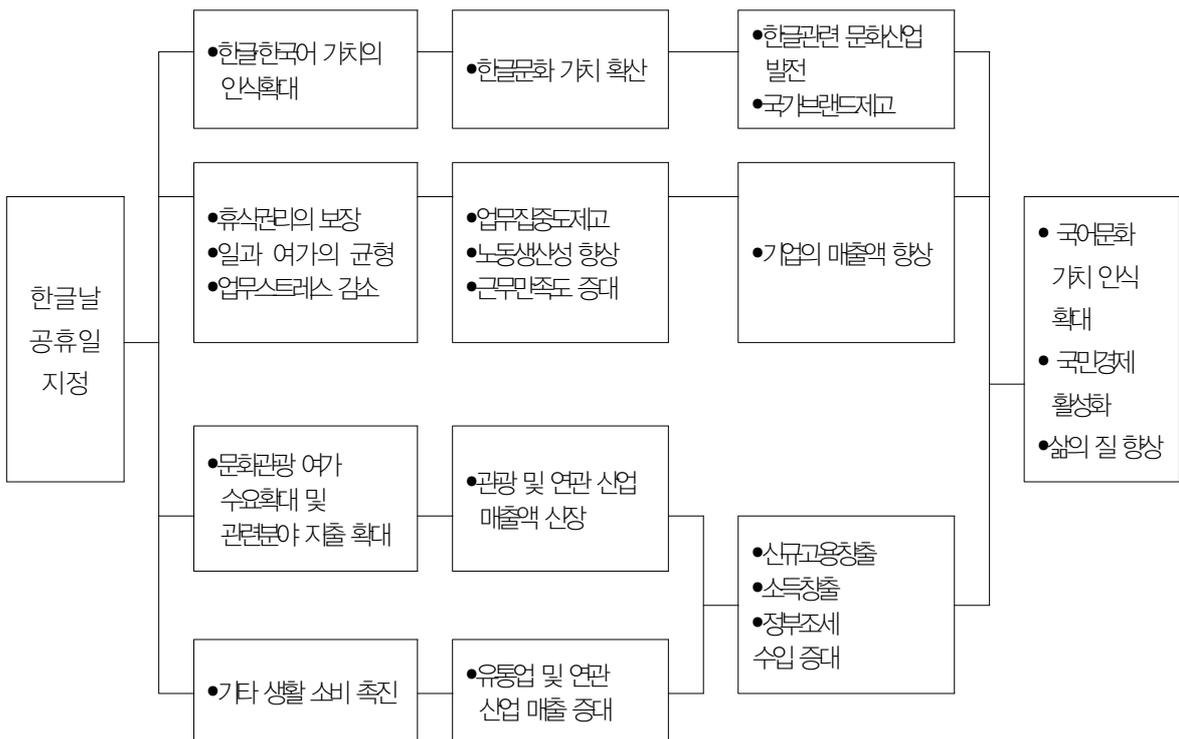
IV. 한글날 공휴일 지정의 효과 분석

1. 경제 · 사회문화적 영향 파급경로
2. 경제적 효과
3. 사회 비용-편익 추정 및 비교 분석
4. 사회문화적 효과
5. 국가브랜드 제고 및 국제적 효과
6. 소결

1. 경제 · 사회문화적 영향 파급경로

가. 경제·사회문화적 영향 파급경로

- 한글날 공휴일 지정으로 한글과 한국어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우리 언어문화에 대한 인식의 확대, 한류확산 등에 의한 한국 문화 이해를 위한 한글과 한국어에 대한 관심 증대로 국가브랜드 제고
- 휴식 권리의 보장으로 일과 여가의 균형으로 삶의 질 향상됨. 업무의 스트레스 감소로 건강 및 업무집중도 증진이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삶의 질이 향상됨
- 공휴일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 여가시간이 확대되는 경우 국민 관광 및 여가활동으로 연관 산업의 매출 및 생산이 증가함. 고용증대, 근로자 소득증대, 고용안정화와 같이 고용시장의 여건 개선 등으로 연결되어 경제적 편익효과 예상할 수 있음



[그림 IV-1] 한글날 공휴일 지정의 사회문화, 경제적 영향 경로

- 문화 여가관련 활동으로 발생하는 생활소비 증대는 사업체의 생산을 촉진하고 근로자의 고용과 소득 증대로 이어져 국민경제 활성화의 촉매제 역할이 예상된다

나. 관련 주체별 예상 편익 및 비용

- 한글날 공휴일 지정이 될 경우 가계부문은 여가시간의 확대로 여행 여가 문화 활동 증가하여 개인의 복리증진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짐. 반면에 관련 소비지출이 증가하고 근로시간의 감소로 개인 소득이 감소될 수 있음
- 기업체의 경우 근로자의 휴식 및 자기계발의 기회 증가로 인한 노동생산성 향상의 긍정적 효과가 있음. 반면에 공휴일 휴가근무수당의 증가로 기업의 인건비 가중이 예상된다
- 근로자 측면에서 노동과 여가의 균형에 접근함으로써 여가 복지향상의 기대효과 있지만 여가활동의 비용과 정·비정규직 수혜 불균형 발생의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정부 부문은 국민경제의 소비지출 증대로 관련 산업부문에서 조세수입 증대와 특히 부가가치세의 세수가 증대할 것으로 보이며, 공휴일 활동에 따른 교통 혼잡 등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휴일 수 증대에 따라 관광사업체의 경우 관광관련 사업체의 매출 신장으로 관광 및 연관 산업의 활성화가 예상되며, 인건비가 가중되는 연관 산업부문은 경쟁력이 저하될 것으로 전망됨. 지역차원에서 관광활성화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방문객의 증대를 전망할 수 있으나, 교통 혼잡, 소음과 환경 문제를 야기될 수 있음

<표 IV-1> 한글날 공휴일 지정에 의한 비용-편익

구 분	편익적 측면	비용적 측면
가계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가(휴식) 활동 증가, 자기계발 학습활동 등의 증가 •휴가권리의 강화로 여가 복지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시간 감축으로 개인소득 감소 가능성 •소득계층간의 휴가 불균형
기업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의 자기계발 제고 등으로 노동생산성 향상 •기업의 이미지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 •근로손실일수 증가(총산생량 저하 우려)
산업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 증가 산업부문(관광, 오락, 교육 등)의 생산 및 부가가치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건비 부담 가중되는 산업부문의 경쟁력 저하
정부(재정)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 부문 등의 조세 수입 증가 •소비활성화에 의한 부가가치세 증가 가능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건비 부담 가중되는 산업부문의 법인세 수입 감소 등 •관계기관간의 갈등으로 사회적 비용 증대(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회, 고용노동부 등)
국민경제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의 후생 증가로 인한 국민경제적 편익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의 비용증가로 인한 국민경제적 비용 상승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 여가복지 향상 •노동과 여가의 균형 •노동 생산성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가문화활동 증대에 지출증대 •소득계층간 관광여행 불균형 •정·비정규직 수혜 불균형
문화여가 관광 관련 사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문화 여가 관광 산업의 활성화 •새로운 여가관광 산업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수준에 따른 여가문화관광 활동의 불균형 •휴일 근무 사업체 근로 조건악화

2. 경제적 효과

가. 전제조건 및 분석 체계

■ 한글날 공휴일 지정 관련 조건 상황

- 한글날 공휴일 지정과 관련하여 <표 IV-2>와 같이 네 가지의 조건 상황을 설정할 수 있음

<표 IV-2> 한글날 공휴일 지정 네 가지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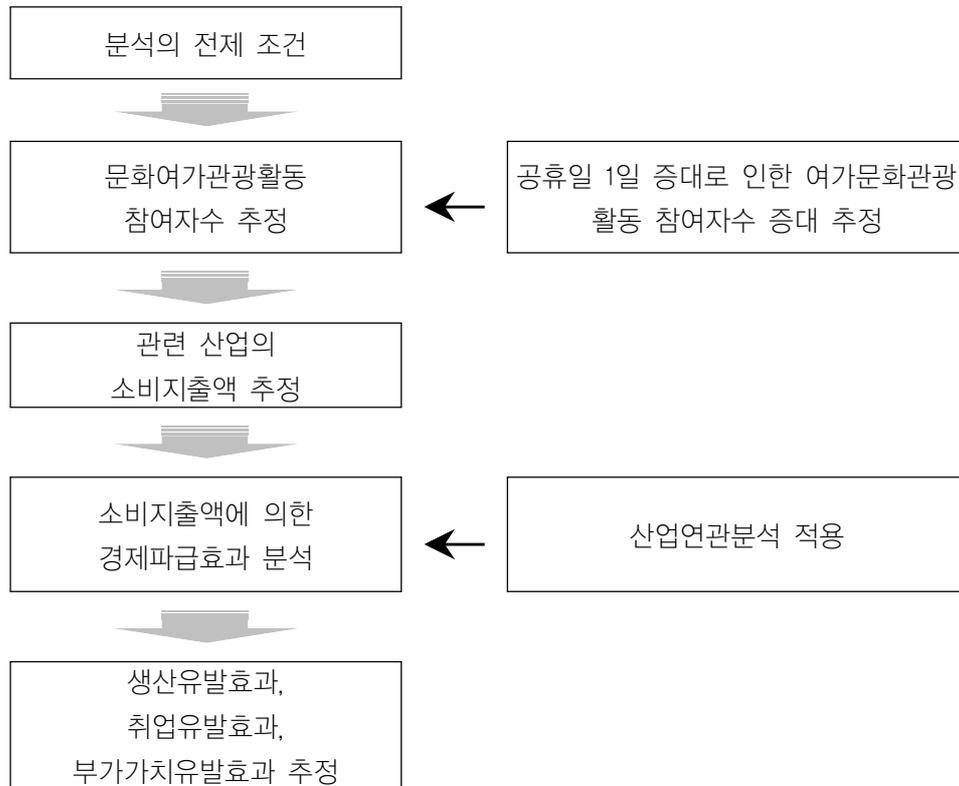
조건상황	내용	비고
조건-1	한글날만을 공휴일로 지정	공휴일 1일 증가
조건-2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한글날만 대체공휴일제 실시	10년간 평균 공휴일 수 기준 연간 공휴일 수는 1.2일 증가
조건-3	한글날을 공휴일 지정과 동시에 모든 공휴일을 대체공휴일제 실시	10년간 평균 공휴일 수 기준 연간 공휴일 수는 2.4일 증가
조건-4	한글날을 공휴일 지정과 동시에 모든 공휴일을 대체공휴일제 도입하고 공휴일을 법제화	연간 교대제 일요일 근무 일수는 35.6일 임

- 본 연구에서는 조건 상황 별로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했을 경우, 관련 문화여가활동 및 관광활동 관련 지출액을 산정하여 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함
 - 단, 조건 상황-4의 경우 추가적인 휴일 증대는 없으므로 경제파급효과 분석에서 제외함
- 한글날 공휴일 지정시 문화여가활동 및 관광활동 참여율은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관련 지출액은 ‘2010 국민여가활동조사(2010), 국민여행실태조사(2010)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함

■ 분석체계

- 한글날 공휴일(휴일 1일 증가) 지정에 따른 여가활동시간 확대에 따른 국민 국내관광수요 증대와 이에 따른 관광소비지출에 의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조건상황 별로 확대하여 경제파급효과를 분석함

- 문화체육관광부(2011)의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참여 수 증대의 관련 활동의 1인당 소비지출 분석
- 공휴일 1일 증대에 의한 총 관광소비 지출을 추정한 후 산업연관분석에서 관광산업의 생산, 취업, 부가가치 유발 등의 승수효과를 적용하여 경제파급효과를 추정함



[그림 IV-2] 공휴일 1일 증대에 따른 경제효과 분석 체계

나. 한글날 공휴일 지정 관련 지출액 산정

■ 공휴일 1일 증대에 따른 문화여가 관련 지출액 추정

○ 문화체육관광부(2011)의 한글날 공휴일 지정 될 경우 휴일 동안 주요 활동에 관한 설문결과 문화여가활동 관련 응답자 비율(45.9%)을 적용하여 전국민의 문화여가활동 참여자 수를 추정하고, 관련 지출은 ‘2010 국민여가활동조사(2010)의 문화여가 관련 지출액을 활용하여 지출액을 산정함

- 문화여가활동 비율(45.9%)

= 문화활동(28.2%) + 취미활동(12.3%) + 친목모임 참여(5.4%)

- 문화여가활동 1회당 지출액 (39,070원)

= 168,000원(2010년 기준 월평균 여가지출액) ÷ 4.3 일 (2010년 기준 월 평균 일요일 수)

○ 문화여가활동 관련 총 지출액

※ 산식 : 문화여가활동 관련 총 지출액 (876,476.5백만원)

= 공휴일증대일수(1일) × 39,070원 (1회 문화여가 관련 지출액)

× 2010 년 추계인구(48,875천명) × 문화여가활동 참여율(45.9%)

■ 공휴일 1일 증대에 따른 관광이동 총량 및 관광지출액 추정

○ 문화여가 관련 지출액 추정과 동일하게 문화체육관광부(2011)의 한글날 공휴일 지정 될 경우 휴일 동안 주요 활동에 설문결과 관광여행활동 관련 응답자 비율 ‘관광여행활동’ (5.8%)을 적용하여 국민전체에서 관광여행참여수를 산출하고 국민여행실태조사(2010) 자료를 활용하여 관광지출액을 산정함

○ 한글날이 공휴일 지정되었을 경우 이동 총량 및 지출액 추정 산식에 여행참여율을 추가하여 분석함

※ 산식 : 관광여행지출액

$$= \text{순 증대여행일수(1일)} \times 39,748\text{원(1일 관광 지출액)} \\ \times 2010 \text{년 추계인구}(48,875\text{천명}) \times \text{여행참여율}(5.8\%)$$

- 1회당(일) 관광지출액(39,748원)

$$= \text{만15이상 1인 연간 평균 여행지출액}(210,272\text{원}) \div \text{만15세이상 1인 평균여행횟수}(5.29\text{회})$$

- 공휴일 1 일이 추가 될 경우 1일 관광지출액 39,748원과 2010년 총추계 인구 중 여행 참여율 5.8%를 적용하여 추정한 결과 약 112,675.6백만원의 관광 지출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

※ 112,675.6백만원

$$= 1\text{일} \times 39,748\text{원}(1\text{회 관광 지출액}) \times 48,875\text{천명}(2010\text{년 추계인구}) \times \text{여행참여율}(5.8\%)$$

■ 문화여가 및 관광여행 관련 지출액

- 문화여가 활동 관련 지출액은 조건상황-1 (한글날 공휴일 지정으로 1일 휴일 증대)의 경우 876,476.5백만원, 관광여행 관련 지출은 112,675백만원으로 추정되어 한글날 공휴일 지정시에 문화여가활동 관련 지출액이 많은 것으로 분석됨. 한글날 공휴일 관련 문화여가부문과 관광여행부문을 합한 총계는 989,155 백만원으로 추정됨
- 한글날 공휴일 지정과 관련 주요 쟁점의 대상이 되는 조건상황-3의 경우 문화여가 및 관광 지출의 합계는 2조 373,984백만 원으로 추정됨

<표 IV-3> 문화여가 및 관광여행 지출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조건상황-1	조건상황-2	조건상황-3	조건상황-4
문화여가 관련 지출	876,476.5	1,051,778.1	2,103,556.1	-
관광여행 지출	112,678.5	135,214.2	270,428.3	-
계	989,155.0	1,186,992.2	2,373,984.5	-

주: 조건상황-4는 공휴일을 법제화 할 경우로 휴일 수의 증가와는 관계가 없음으로 분석에서 제외함

다. 한글날 공휴일 지정의 경제효과

- 2008년도 산업 연관표(한국은행, 2010)를 활용하여 분석한 문화여가 관련 산업과 관광산업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세수유발효과 등의 승수를 적용하여 공휴일 1일 증대에 대한 경제 파급효과 분석함
- 조건상황-1의 경우 한글날 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문화여가 부문과 관광여행 관련 지출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1조 8,01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8,186억원, 취업유발효과 17,919명, 세수유발효과 590억원의 파급효과 발생될 것으로 추정됨

<표 IV-4> 공휴일 1일 증대에 의한 경제효과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계(1+2)	문화여가 부문 (1)		관광 부문(2)	
		문화여가승수*	파급효과	관광승수	파급효과
1. 생산유발효과	1,800,999.7	1.8356	1,608,860.3	1,7052	192,139.4
2. 취업유발효과(명)	17,919	0.0175	15,338	0.0229	2,581
3. 부가가치유발효과	818,632.2	0.8422	738,168.5	0.7141	80,463.7
4. 세수유발효과	59,025.9	0.0549	48,118.6	0.0968	10,907.3

주)* : 문화여가부문의 관련 승수는 산업연관표에서 문화예술 부문의 승수를 적용함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0a). 관광산업의 경제효과 분석

- 조건상황-3의 경우 (한글날 공휴지정과 동시에 모든 공휴일을 대체공휴일제 적용) 생산유발효과는 4조3,224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조 9,647억원, 취업유발효과 43,005명, 세수유발효과 1,416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추정됨 (<표IV-5> 참조)

<표 IV-5> 조건상황-2 와 조건상황-3에 의한 경제효과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계(1+2)	문화여가 부문 (1)	관광부문(2)
조 건 상 황 2	1. 생산유발효과	2,161,211.1	1,930,643.8	23,0567.3
	2. 취업유발효과(명)	21,502	18,406	3,096
	3. 부가가치유발효과	982,364.0	885,807.5	96,556.5
	4. 세수유발효과	70,831.3	57,742.6	13,088.7
조 건 상 황 3	1. 생산유발효과	4,322,422.1	3,861,287.7	461,134.4
	2. 취업유발효과(명)	43,005	36,812	6,193
	3. 부가가치유발효과	1,964,727.9	1,771,615.0	193,112.9
	4. 세수유발효과	141,662.7	115,485.2	26,177.5

주 : 조건상황-2는 한글날 공휴일을 지정하고 한글날만 대체공휴일제 실시로 연간 평균 휴일수 1.2일 증대를 전제로 함, 조건상황-3은 한글날을 공휴일 지정과 동시에 모든 공휴일을 대체공휴일제 실시로 연간 평균 휴일 2.4일 증대를 전제로 함

3. 사회적 편익-비용 추정 및 비교 분석

가. 사회적 편익의 추정

1) 분석 방법 및 조사 설계

■ 사회적 편익의 정의

- 사회적 편익이란 근로자가 공휴일에 여가활동 및 휴식을 취함으로써 획득하는 만족감과, 공휴일에 근로를 함으로써 근로자가 취득하는 휴일근로수당과 같은 추가 소득을 의미함 (문화체육관광부, 2010c, p.190)
- 따라서 근로자가 공휴일의 근로를 조건으로 추가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수용의사금액(Willingness To Accept: WTA)은 근로자의 잠재적 편익이 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여가활동을 하기 위해 포기하는 추가소득

(Willingness To Pay: WTP) 또한 공휴일 여가활동에 대한 근로자의 잠재 편익으로 간주할 수 있음 (문화체육관광부(2010c, p.190)

■ 분석 방법

- 한글날 공휴일제도 시행에 대한 사회경제적 편익을 추정하기 위해 조건 부가치추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적용함. 즉, 근로자로 하여금 휴일을 통한 휴식과 근로를 통한 소득 획득 간 선택행위를 하는 상황을 설정하는 것으로 휴일의 편익을 추정함
 - 조건부가치추정법(CVM) : 일반적으로 비시장재화인 만족도 및 효용(편익)을 추정하는 방법으로는 본 연구에서는 공휴일제도 변화에 대한 응답자의 지불 의사를 통해 편익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을 적용함
- 공휴일제도 시행에 따른 국민 지불의사액(WTP)은 한글날 공휴일 도입시 휴일 여가활동 혹은 휴식을 위해 포기할 수 있는 소득(휴일근로 수당)의 지불 의사가 있는 조건 상황을 설정하여 분석함
 - 지불 의사액은 휴일 동안 여가문화관광 활동 혹은 휴식을 위해 포기 할 수 있는 소득(휴일근로수당)의 크기와 동일한 의미임

■ 조건부가치추정의 조사 설계

- 문화체육관광부(2010c)의 설문설계 방식을 준용하여 지불의사액(WTP)을 추정하기 위해 응답자에게 한글날 공휴일 지정과 관련된 비용-편익구조 상황을 설명하고, 의향이 있는 지불의사액을 응답하도록 함

<표 IV-6> 공휴일제도 시행 관련 이해관계자 비용-편익 구조 설명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의 경우 생산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휴무를 시행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추가근무를 시켜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한글날이 공휴일 지정될 경우 근무를 하지 않으면 여행이나 여가활동 등 개인생활을 할 수 있으나, 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평일 임금보다 높은 추가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응답자의 지불의사액(WTP)을 추정하기 위한 설문안은 <표 IV-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음. 설문조사 및 응답과정에서 추정결과의 유의성을 하락시킬 수 있는 각종 편의를 제거하기 위해 설문형식은 양분선택형(dichotomous choice format) 적용함
- 양분선택형 질문법은 응답자에게 연구 대상에 대해 특정 제시금액에서의 지불 의사 여부를 “예/아니오”로 물음으로써 가상적 상황을 설정
 - 양분선택형 질문법은 단일경계 양분선택형,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1.5경계 양분선택형으로 나누어짐

<표 IV-7> 지불 의사액 추정을 위한 설문 형식

한글날 공휴일 시행에 따른 휴일확충 시 여가활동 및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월 소득에서 (X)만원을 지불해야 된다면 귀하는 이를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 양분선택형 설문을 위한 초기 제시액 및 제시액 등급은 문화체육관광부(2010c)에 조사 설계를 근거로 설정하고 등급별 설문표본수를 100매로 조정하여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함
- 응답자별 사회경제적 특성이 지불의사액(WT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과정에서 응답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과 같은 사회경제변수도 동시에 조사함

2) 지불의사액(WTP) 분석결과

■ 제시금액에 대한 지불의사 비율

- 1만원에서 40만원까지 10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 당 100명씩을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이 중에서 무응답을 제외한 후 935매를 최종분석에 이용함. 각 등급별 설문 표본 수는 <표 IV-8>과 같음

- 지불의사액(WTP)의 경우 제시금액이 높을수록 지불의사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공휴일제도 시행에 따른 휴일확충 시 여가활동 및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월 소득에서 지불될 경우 제시금액이 높을수록 지불의사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IV-8> CVM 문항에 대한 응답자들의 반응

제시금액 (천원)	지불의사가 있습니까?		“예” 비율(%)	표본수
	“아니요” 빈도수(명)	“예” 빈도수(명)		
10	16	83	84	99
30	8	86	91	94
50	29	61	68	90
70	24	66	73	90
90	32	52	62	84
120	47	50	52	97
150	35	56	62	91
200	46	47	51	93
300	58	40	41	98
400	64	35	35	99
전체	359	576	-	935

■ 지불의사액(WTP) 추정 방법

- 후생척도로써 지불의사금액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음
 - 첫 번째 측정방법은 무작위로 제시되는 금액 A원을 0에서 무한대까지로 하여 추정되는 확률 누적면적인 지불의사금액의 평균(WTP mean)
 - 두 번째 측정방법은 무작위로 제시되는 금액 A원을 - 무한대에서 + 무한대까지로 하여 추정되는 확률 누적면적인 지불의사금액의 전체 평균(WTP overall mean)
 - 세 번째 측정방법은 식(4.1)과 같이, 지불의사금액의 절단된 평균(WTP truncated)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무작위로 제시되는 금액 A원을 극소값 제로 (0)원에서부터 극대값 Max.A(제시금액)까지의 범위를 고려하여 계산함. 즉, 추정확률을 최대제시금액에서 절단시키고, 그 이상의 면적을 제외하고 측정하는 방법임

$$\begin{aligned}
 \text{식(4.1)} \quad WTP_{truncated} &= \int_0^{Max.A} F_n(\Delta v) dA \\
 &= -\frac{1}{\beta} \ln \left[\frac{1 + \exp(a)}{1 + \exp(a + \beta Max.A)} \right]
 \end{aligned}$$

■ 분석 모형의 추정 결과

- 지불의사액(WTP)의 로짓모형 추정결과 유의수준 5%에서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교육수준, 소득, 그리고 제시금액으로 나타남
- 다시 말하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제시금액이 낮을수록 지불의사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 교육수준과 소득이 높을수록 지불의사는 높고, 제시금액이 낮을수록 지불의사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V-9> 지불의사액(WTP) 로짓모형 추정결과

변수명	회귀계수 (β)	S.E.	Wald	유의확률	Exp(B)
성별	-.158	.159	.978	.323	.854
나이	-.016	.074	.045	.831	.984
교육수준	.522	.139	14,126	.000	1.685
소득	.146	.077	3,568	.059	1.157
제시금액	-.006	.001	84,007	.000	.994
상수항	.150	.556	.073	.787	1.162

-2 Log 우도=942,139; Cox와Snell의R-제곱=.161; Nagelkerke R-제곱=.219

- 지불의사금액의 절단된 평균(WTP truncated) 방법을 적용 기준으로, 한글날 공휴일 지정 시 휴일에 근무하지 않고 여가활동을 하는 근로자가 자신의 소득 감소를 감수하고자 하는 지불의사 금액(WTP)은 1인당 208,000원으로 추정됨

측정 방법	1인당 지불의사액(원)
평균 지불의사액 (WTP_mean)	318,000
지불의사금액의 전체평균(WTP_overallmean)	292,000
절단된 평균 (WTP_truncated)	208,000

- 근로자가 1일의 여가활동을 위해 포기하고자 하는 소득의 크기를 공휴일의 효용 가치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한글날 공휴일제도 시행 전 근로자가 느끼는 공휴일 1일의 가치는 평균 208,000원임

3) 사회적 총 편익 추정 결과

- 문화체육관광부(2011)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의 한글날 공휴일 지정시에 여가활동의 비율이 81.2%, 휴일 근무의사 11.6%, 모름 7.2% 조사됨.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중 11.6%는 공휴일에 근로를 하여 추가소득을 얻으며, 81.2%는 여가활동을 하는 것으로 전제로 함

- 우리나라 근로자수(임금근로자)는 16,617,000명으로 설정함 (통계청, 2010년 3월 기준)

- 공휴일제도 시행 전 휴일 1일의 여가활동을 위해 포기하는 소득

= 시행 전의 공휴일의 사회적 편익 × 휴가일 수

= 1인당 지불의사액(WTP) × 근로자 수 × 여가의지 비율 × 추가공휴일 수(1일)

= 208,000원 × 16,617천명 × 81.2% × 1일(한글날 공휴일)

≒ 28,065억원

구 분	추가 휴일수	여가 참여비율(%)	사회적 총 편익 (억원)
조건상황-1	1 일	81.2	28,065.4
조건상황-2	1.2 일	81.2	33,678.5
조건상황-3	2.4 일	81.2	67,357.1

- 한글날 공휴일제도 시행으로 인한 휴일의 사회적 편익은 28,065억원으로 추정되며, 1인당 지불의사액(WTP)이 318,000원의 경우 공휴일의 사회적 편익은 46,092억원으로 추정됨

나. 공휴일 지정에 따른 기업체의 비용 추정

- 공휴일 근무에 따른 인건비 및 퇴직 충당금 추정은 문화체육관광부(2010c)의 선행 연구와 국회행정안전위원회(2010)의 한국경영자총연맹이 이용한 산식과 인건비 추가부담 및 퇴직금 충당액을 기초로 산출함
- 문화체육관광부(2010c)의 선행 연구와 한국경영자총협회(국회행정안전위원회, 2010)의 대체공휴일제도 도입시 예상되는 생산 차질액은 공휴일에 근무한다는 전제하에서 인건비와 퇴직금을 산출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 차질은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기존 연구와 문헌에서 산출한 생산 차질액을 기업체의 비용항목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본 연구에서는 공휴일 지정에 의한 기업체의 비용은 휴일근로수당과 퇴직 충당금으로 한정하여 산정함

1) 선행 연구 사례

■ 휴일근로수당 추가부담액

- 문화체육관광부(2010c)의 공휴일 법제화 및 대체공휴일제도 도입의 전제하에서 일요일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추가부담액에 대한 추정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사용한 동일한 산식을 적용하고 있음

산식(4.2) : 일요일 근무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추가부담

$$= \text{시간당 정액급여}^1 \times 50\%^2 \times 8\text{시간}^3 \times \text{교대제 일요일 근무일수}^4 \\ \times \text{전체 근로자수}^5 \times \text{교대제 사업장 비율}^6 \times \text{교대제대상 근로자 비율}^7$$

주) : <표 IV-9> 휴일근로수당 추가부담액 추정을 위한 근거 자료 참고

자료 : 국회행정안전위원회(2010).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2010.3.24

- 공휴일 법제화 및 대체공휴일제도 도입시에 교대제 일요일 근무일 수는 산식(4.2)에서 교대제 일요일 근무일수를 공휴일 추가로 인한 변동이 있을 경우 휴일근로수당 계산에 활용될 수 있음

산식(4.2) : 교대제 일요일 근무일수(연간)

$$= \text{연간일요일수} \times (1 - \text{교대제사업장의 통상주당 휴일 수} \div 7)$$

$$= 52 \times (1 - 2.23 \div 7)$$

$$= 35.4$$

- 일요일 근무에 따른 기업의 휴일근로수당 추가부담액을 추정하기 위해 활용한 각 자료의 근거는 <표 IV-10>에 제시되어 있음 (문화체육관광부, 2010c; 국회행정안전위원회, 2010)

<표 IV-10> 휴일근로수당 추가부담액 추정을 위한 근거 자료

	자료항목	자료근거
1	시간당 정액급여 (10,191원~15,160원)	노동부(2009).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고용형태별 통계
2	휴일근로수당 할증률 (50%)	근로기준법 제 56조
3	근로시간(8시간)	통상적인 일일 근로시간
4	교대제 일요일 근무일수 (연간 35.4일)	경영자총협회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경영계 입장」
5	전체 근로자 수 (10,037,527명)	노동부(2008). 「사업체노동실태현황」, 전국 산업별, 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6	교대제 사업장 비율 (9.56%~49.11%)	노동부(2007). 「실 근로시간 단축 저해요인 분석 및 향후 개선과제 마련을 위한 연구」
7	교대제 대상 근로자 비율(68.5%)	통계청(2008). 「사업체고용동향조사」 (2008)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0). 휴가문화 선진화 및 공휴일제도 개선을 통한 내수관광 활성화 방안

- 문화체육관광부(2010c)는 일요일 생산 활동을 위한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추가부담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의 계산식과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여, 기업규모 및 각 기업체 규모별 교대제 비율을 더욱 세분화하여 추정한 결과 추가부담액은 2조 6,615억원으로 나타남

<표 IV-11> 공휴일 법제화 및 대체공휴일제도 도입의 추가부담액

규모	사업체 수 (개)	전체 근로자수 (명)	교대제 사업장 비율 (%)	교대제 근로자 비율 (%)	교대제 일요일 근무일 수 (일)	시간당 정액 급여 (원)	일요일 근무의 휴일근로수당 추가부담 (억 원)	
5~9인	294,452	1,873,505	9.56	68.5	35.4	10,191	1,770	
10~29인	157,952	2,461,263					2,326	
30~49인	29,077	1,090,549					1,186	
50~99인	18,452	1,252,731	28.74			11,730	4,096	
100~199인	7,340	999,433					3,268	
200~299인	2,120	507,169					1,658	
300~499인	1,330	500,612	41.65				15,160	3,066
500~999인	694	474,319						2,905
1,000인이상	377	877,946						49.11
총계							26,615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0). 휴가문화 선진화 및 공휴일제도 개선을 통한 내수관광 활성화 방안, 195쪽

■ 퇴직금 총당 부담금

- 공휴일제도 개선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이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퇴직금 인상효과 역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동일한 계산식을 적용하여 추정함

산식(4.3): 평균임금 상승에 따른 퇴직금 추가부담
 =일요일 근무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추가부담 ÷ 12 × 근속년수¹⁾

주) : 1) 노동부(2008).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통계자료상의 문제로 인해 5~99인 사업장의 평균근속년수는 5~9인 사업장의 평균근속년수를, 300인 이상 사업장은 300~499인 규모 사업장의 평균근속년수를 사용하였음. 이는 실제 근속년수보다 다소 낮은 값을 토대로 비용을 추정하였음을 의미하며, 실제 부담액은 추정액보다 다소 높아질 수 있음
 자료 : 국회행정안전위원회(2010).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 기업 규모를 6단계로 세분화한 후 각 기업규모별 퇴직충담금 추가부담액을 계산한 결과 1조 6,106억원으로 추정됨

<표 IV-12> 공휴일 법제화 및 대체공휴일제도 도입시 퇴직금 추가부담액

규모	일요일 근무의 휴일근로수당 추가부담 (억원)	월평균추가 부담(억원)	근속 년수(년)	퇴직총당금 추가부담(억원)
5~9인	1,770	148	4.4	649
10~29인	2,326	194	4.7	911
30~99인	5,283	440	5.9	2,597
100~299인	4,926	411	6.8	2,792
300~499인	3,066	255	8.1	2,070
500인 이상	9,245	770	9.2	7,088
총계				16,106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0). 휴가문화 선진화 및 공휴일제도 개선을 통한 내수관광 활성화 방안, 195쪽

- 공휴일 법제화 및 대체공휴일제도 도입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을 추정하여 합산한 결과, 4조 2,722억원으로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 2010c), 이것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추정한 5조 2,286억원보다 9,564억원 낮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생산 차질액 부문

- 생산차질은 휴일로 인해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을 경우 생산차질이 발생하게 되며, 휴일근무를 전제로 인건비를 기업의 비용에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차질액은 기업의 비용발생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기업의 비용 산정에서 인건비와 생산차질액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은 인건비의 이중 계산이 됨
- 국회행정안전위원회(2010)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제시한 기업의 생산차질액은 대체공휴일제도 도입으로 확충된 공휴일에는 모든 기업들이 생산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계산된 것임. 이 자료에 따르면, 출하액 기준으로 볼 때 대체공휴일이 1일 발생 시 생산차질액은 3조 5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13> 공휴일제도 개선에 따른 생산차질액

단위 : 명, 억원

종업원 규모	대체공휴일 1일 증가 시 생산 차질액
10~19인	2,121
20~49인	3,568
50~99인	2,904
100~199인	3,261
200~299인	1,692
300~499인	2,335
500명 이상	14,689
계	30,57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0), 휴가문화 선진화 및 공휴일제도 개선을 통한 내수관광 활성화 방안, 198쪽

2) 한글날 공휴일 지정에 따른 인건비 산출

■ 인건비 산정기준

- 문화체육관광부(2010c)와 국회행정안전위원회(2010)에서의 한국경영자총연맹 측의 공휴일 법제화 및 대체공휴일제도 도입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 추정에서 적용한 산식(4.1), 산식(4.2), 산식(4.3)을 활용하여 한글날 공휴일 지정에 따른 네 가지의 조건 상황을 설정하여 각각의 조건 상황에 따라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출함

■ 조건 상황별 인건비 산정

- 한글날 공휴일 지정 관련 네 가지 조건 상황하에서 기업에서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를 조건-1의 경우 752억원, 조건-2의 경우 902억원, 조건-3의 경우 1,804억원으로 추정됨
- 조건-4의 경우 선행연구 문화체육관광부(2010c)를 참조해 볼 때 공휴일 법제화 및 대체공휴일제도 도입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휴일근

로수당 및 퇴직금의 합계는 4조 2,722억원으로 나타났으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추정한 5조 2,286억 원보다 9,564억원 낮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문화체육관광부, 2010c)

<표 IV-14> 조건 상황별 인건비 산정 결과

(단위: 억원)

구 분		휴일근로 수당(A)	퇴직충당금 (B)	소계 (A+B)
조건-1	한글날 만 공휴일지정	751.9	455.0	1,206.9
조건-2	한글날 공휴일지정 + 한글날만 대체공휴일	902.2	546.0	1,448.2
조건-3	한글날 공휴일지정 + 전체 공휴일 대체공휴일	1804.5	1092.0	2,896.5
조건-4	한글날 공휴일지정 + 전체 공휴일 법제화	26,616.3	16,106.4	42,722.7

다. 경제·사회적 편익 및 비용 비교 분석

- 공휴일제도 개선에 따른 편익의 경제적 효과로, 휴일 여가활동을 위한 민간소비지출 증가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및 고용증가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사회적 편익으로 휴일확충 및 여가활동에 따른 근로자 만족감 등이 있음
- 비용으로는 공휴일 제도시행으로 발생하는 추가적인 임금 부담과 이에 따른 퇴직 충당금 부담이 있음. 휴일에 근무한다는 전제하에서 기업의 생산 차질 손실을 산정하는 것은 이중 계산이 됨으로 기업의 손실에서 생산 차질액은 제외함
- 조건상황별 편익-비용 분석 결과, 한글날 공휴일이 시행될 때 확충되는 휴일 1일당 편익효과 (조건상황-1)를 추정한 결과 총 편익은 4조 6075억 원이며, 세부 편익으로 한글날 공휴일 여가관광문화 활동을 위해 지출하는 민간소비지출 증가에 따른 총생산유발효과(경제적 편익) 1조 8,065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17,919명으로 추정됨. 지불의사액(WTP)으로 추정된

한글날 공휴일제도 도입에 대한 근로자 만족도(사회적 편익) 2조 8,065 억 원으로 추정됨

- 주요 쟁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조건상황-3의 경우와 한글날 공휴일 지정에 의한 편익을 11조 581억 원을 기준으로 볼 때, 비용은 2,896억원으로 순편익은 10조7,684억 원으로 추정됨

<표 IV-15> 한글날 공휴일 지정의 편익과 비용 종합

단위 : 억 원, 명

구분		조건-1	조건-2	조건-3	조건-4
		한글날 만 공휴일지정	한글날공휴일 지정+대체공 휴일	한글날공휴일 지정+전체공휴 일 대체공휴일	공휴일 법제화
편익 부문	생산유발 효과(A)	18,010.0	21,612.1	43,224.2	-
	고용창출 효과(명)	17,919	21,503	43,005	-
	사회적 편익(B)	28,065.4	33,678.5	67,357.1	-
I. 소계(A+B)		46,075.4	55,290.6	110,581.3	-
구분		조건-1	조건-2	조건-3	조건-4
		한글날 만 공휴일지정	한글날공휴일 지정+한글날 만 대체공휴일	한글날공휴일 지정+전체공휴 일 대체공휴일	공휴일 법제화
비용 부문	인건비 (C)	751.9	902.2	1,804.5	26,616.3
	퇴직총당금 (D)	455.0	546.0	1,092.0	16,106.4
	생산차질액*	-	-	-	-
II. 소계(C+D)		1,206.9	1,448.2	2,896.5	42,722.7
순편익 (I-II)		44,868.6	53,842.4	107,684.8	67,858.6

주)* : 생산 차질액은 휴일근무로 생산 차질 손실은 없는 것으로 전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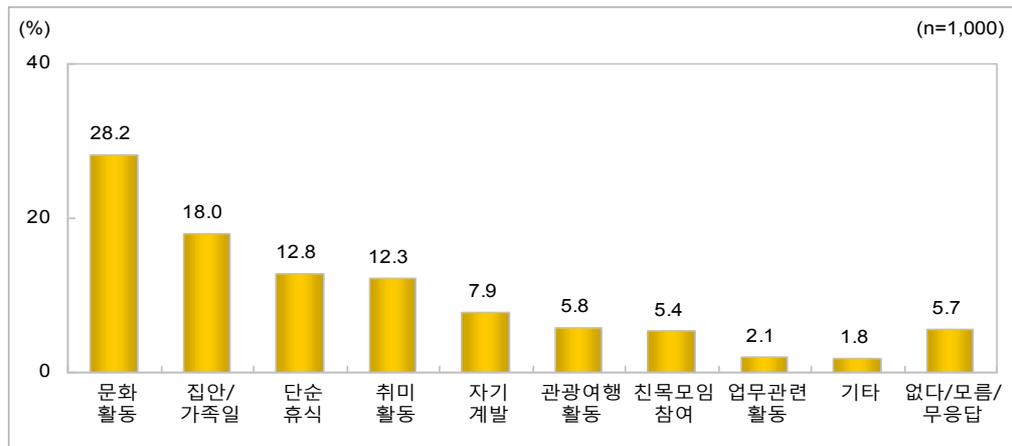
- 조건-4의 상황인 한글날 공휴일 시행과 공휴일을 법제화 했을 경우 기업추가 총비용은 4조 2,723억원인 것으로 추정됨(국회행정안전위원회, 2010).

4. 사회문화적 효과 분석

가. 여론조사 결과

■ 문화·여가·관광 활동 기회 증대

- 문화체육관광부(2011)의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휴일 동안 주로 하게 될 활동을 묻은 결과 ‘문화활동’ (28.2%), ‘집안/가족일’ (18.0%), ‘단순휴식’ (12.8%), ‘취미활동’ (12.3%)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기계발’ (7.9%), ‘관광여행활동’ (5.8%), ‘친목모임 참여’ (5.4%)와 ‘업무관련 활동’ (2.1%)은 10%미만으로 응답되었음
- 한글날 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휴일 수 증가는 사람들의 문화활동, 취미활동, 자기계발 등의 기회와 휴식, 관광여행활동 등의 여가 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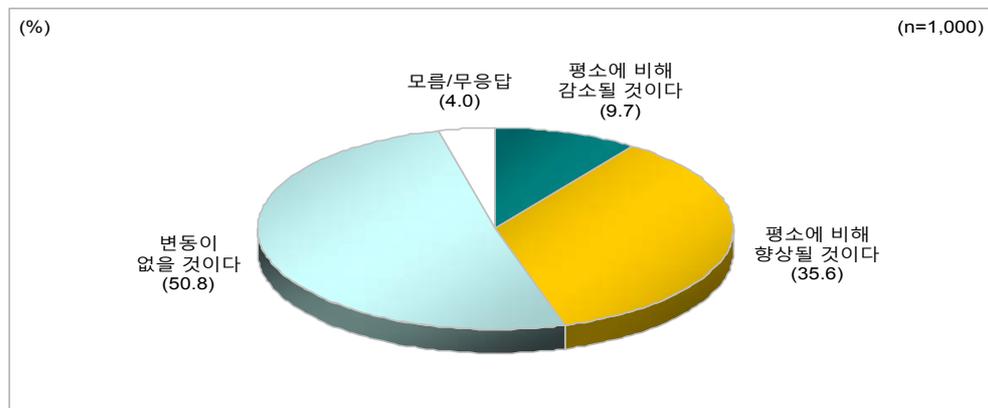
[그림 IV-3] 한글날 공휴일 지정시 주 예상 활동

■ 한글날 공휴일 지정 시 업무집중도 증대

-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 될 경우 휴식이나 여가관광활동 등으로 인한 업무집중도(노동생산성) 변화에 대해 ‘변동이 없을 것이다’ 는 응답이

과반인 50.8%로 조사되었음

- 한편, ‘평소에 비해 향상될 것이다’ 는 응답이 35.6%로, ‘평소에 비해 감소될 것이다’ (9.7%)에 비해 3배 이상 높게 응답되었음
- 따라서 노동생산성이 약화된다는 의견과 모르겠다는 응답에 비해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평소에 비해 향상된다는 의견이 6.3배 높게 나타나므로 한글날 공휴일 지정으로 생산성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거나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됨
- 모든 계층에서 ‘변동이 없을 것이다’ 가 가장 높아 한글날 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업무집중도 및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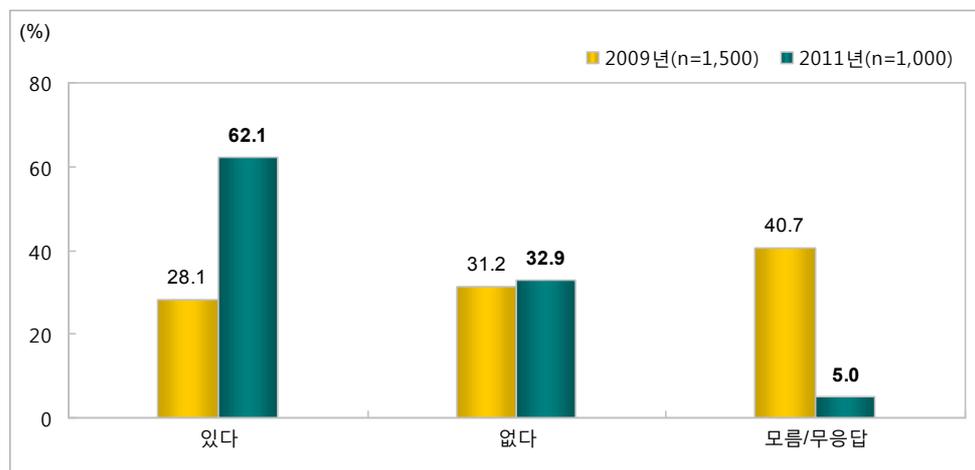
[그림 IV-4] 한글날 공휴일 지정시 업무집중도 예상

■ 외국어로 된 상징구호 및 정책용어 개선

- 최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이미지 개선 및 브랜드화 추진 전략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외국어 상징 구호나 정책 용어를 사용함.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2.1%가 쉬운 우리말 대신 외국 용어의 경우 이해하기 어려웠거나 낯설어서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다’ 고 응답함 - 반면, ‘없다’ 는 응답은 32.9%였으며, ‘모름/무응답’ 은 5.0%로 나타났음
- 2009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불편한 적이 ‘있다’ 는 응답은 2009년

28.1%에서 2011년 62.1%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없다’는 2009년 31.2%와 비슷한 수준인 32.9%로 외국어 상징 구호와 정책용어로 불편함이 증가되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지 향상, 브랜드화를 위해 외래어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 고유의 글과 말인 한글과 한국어의 사용률을 떨어뜨리고 가치와 소중함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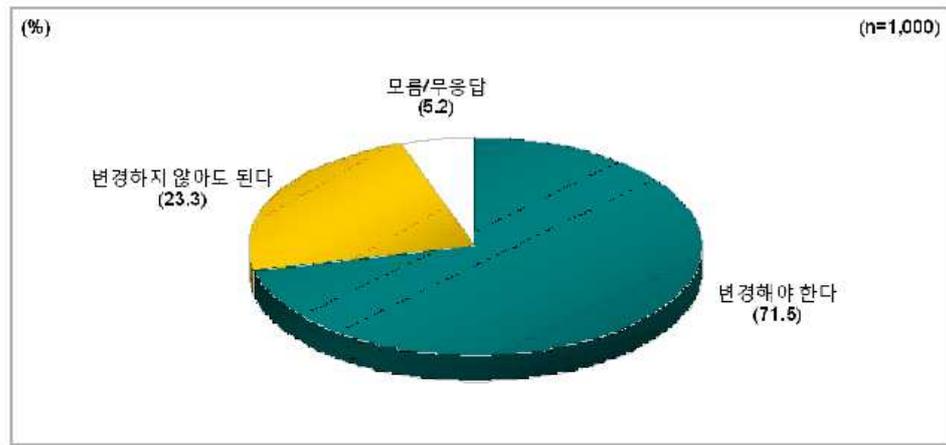


[그림 IV-5] 외국어로 된 상징구호 및 정책용어 사용문제

- 이러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외국어 상징 구호나 정책 용어를 한글로 변경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일반 시민들은 ‘변경해야 한다’는 응답이 71.5%로,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23.3%에 비해 3배 이상 높게 응답되었음

- 한편, ‘모름/무응답’은 5.2%였음

-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정책용어는 공적인 용어로 모든 사람의 이해가 편해야 함. 따라서 쉽고 아름다운 우리말로 교체 필요성이 제기됨



[그림 IV-6] 외국어로 된 상징구호 및 정책용어의 교체 필요성

나. 사회문화적 효과 분석

■ 한글과 한국어의 인식 고취 및 자긍심 증대

- 한글은 현존하는 수천의 문자 가운데 창제 연월일과 창제자를 알고 있는 문자로 사회문화적 상징성을 지니고 있어 전문가들은 한글날 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교육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 함
 - 현재 공휴일 미지정으로 인해 다양한 한글 행사들이 개최에 제약을 받고, 일반 국민들은 행사 참여의 기회 상실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음
- 한글날 공휴일 지정으로 개최되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및 행사는 한글은 자음 19개(된소리 포함)와 모음 21개만으로 기타 언어 발음 및 의성어의 구사가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문자라는 것을 다양한 사람들에게 알리는 기회가 될 것임
 - 공휴일 재지정을 통해 개최되는 행사는 한글이 거의 모든 발음을 자음과 모음으로 표현 가능(일본 300, 중국 400, 한글 8800)한 풍부한 표현력을 지닌 문자임을 홍보 할 수 있는 기회 증가
- 이러한 한글과 한국어의 가치는 우리나라 문해률*이 99.0% 수치로 알

* 국제 연합 개발 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에서 조사한 2007/2008년 리포트에 따르면 우리나라 문해율로 문해율이 낮을수록 문맹률이 높음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문맹률이 낮는데, 이는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쉽게 배우고 터득할 수 있는 우수한 글자임을 증명하는 것임
- 한글은 한자처럼 뜻을 생각하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빠르게 읽을 수 있는 표음문자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문맹률이 낮음
- 한글의 가치의 한 예로 한글이 한국의 문맹률 0%에 근접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 점이 인정되어 유엔(UN)은 문맹퇴치에 이바지 한 사람들을 기리는 상 이름을 '세종대왕상(King Sejong Prize)'으로 명칭하여 시상

■ 문화유산으로 한글의 가치 제고

-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단순히 노는 날을 하나 더하자는 것이 아니라 법 제1조의 경사스런 날을 국경일로 정한다는 정의에 부합하는 한글날을 국경일로 지정하고자 함. 한글날 공휴일 지정으로 민족 문화 발전을 다짐하는 국민 잔치날로 삼아 국민에게 생기와 자신감을 불어넣어야 함
- 한글의 독창성, 과학성, 우수성에 대한 대내외 홍보를 통해 국민으로 하여금 문화민족으로서의 문화유산으로 자긍심 고취가 기대됨
 - 한글은 유네스코(UNESCO)의 훈민정음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평소 우리글과 말을 사용하면서 가치와 우수성을 고찰하는 계기는 적음
 - 국민들의 한글의 가치와 우수성에 대한 인식이 낮지만 한글이라는 우리말과 글은 우리 민족 문화의 요체이고, 문자 창제는 국가 건립과 동등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음
 - 한글날 공휴일 지정으로 개최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는 한글과 한국어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발생하고 한글의 가치를 대내·외에 홍보하는 기회 마련
 -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면 국민들에게 한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 민족사에 가장 빛나는 문화유산으로 기리는 날로 승화시킴으로써 국민의 자긍심 향상

■ 외래어 확산으로 인한 한글 경시 풍조에 경종

- 외래어 확산과 신조어의 급증으로 한글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저하되어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으로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최 증가는 한글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의 기회 마련
 - 공휴일로 지정되면 한글날 행사에 참여의도가 있는 국민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국민들의 한글 행사 참여의도와 욕구를 증대 시킬 수 있어 한글에 대한 바른 인식을 고취시킴
 - 한글은 한국 및 모든 세계 현상(삼라만상)과 가치를 가장 효율적으로 표현 가능한 문자임을 교육할 수 있는 기회
- 영어 위주의 교육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모국어의 중요성을 학생들에게 일깨워줌으로써 국가와 민족문화에 대한 자부심 및 애국심 고취
 -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이 아닌 한글날은 영어 중심의 교육현실에서 한글날 기념을 통해 느낄 수 있는 모국어의 우수성 체험기회가 박탈됨
 - 한글날의 공휴일 지정은 한글의 가치를 되새기는 날로 맹목적 영어 위주의 편향적 폐해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임
- 외래어 남용과 한국어 신조어 등장으로 인한 지역, 계층 간 분열된 사회의 통합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한글의 파괴와 외래어 남용 등으로 통일 이후 남북한 언어가 다르게 쓰이면 우리 사회의 통합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한글을 우리의 민족과 통일을 위해 가꾸고 발전시켜 나가야 함

<표 IV-16>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외국어 정책용어

자치단체	외국어 명칭	내용
서울특별시	어반 테라스	마포~원효대교간 한강변 접근로 조성사업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한강변 경관 및 조경 개선사업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서울시를 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
부산광역시	그린 부산	부사신을 친환경 무공해 도시로 타바꿈시키기 위한 사업
	문탠로드	해운대~청사포간 달맞이길 산책로 조성사업
광주광역시	트라이아웃센터	금형산업 실험·연구·개발 지원기관
	솔라시티센터	태양광수소에너지 연구시설
전남도	갤럭시 아일랜드 플랜	서남해안 섬 통합개발 사업
충북도	3아웃 7업 프로젝트	3가지 낡은 관행을 버리고, 7가지 중점 성과 과제 선정해 업무 효율성 제고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0b), 21세기 새로운 어문 정책의 방향

■ 한글관련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 한글 관련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로 한국어의 위상강화와 교육 프로그램이 개최로 일반 국민들이 올바른 한글을 구사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
-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이 아닌 날에 개최되는 관련 행사 및 프로그램의 개최수와 참여도는 차이가 남
- 한글날에 개최된 프로그램 사례로 ‘목판으로 만나는 한글 문화유산展’이 있음
 - 문화예술위원회의 공모사업 중에 하나인 이 행사는 2009년 10월 6일부터 11일까지 약 6일간 전주 한옥마을에서 한글날을 맞아 개최되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함
 - 한글날을 맞아 개최된 이 행사는 세계기록문화유산인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는 열린 전시와 체험전이 전주에서 개최되어 방송·언론의 관심이 높았으며 이를 통해 고전 소설의 대표작들을 다시 볼 수 있었음
 -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전주 한지의 우수성과 지역문화에 뿌리내린 문화계승에 의의를 갖고 다양한 문헌들 속의 한글 판본체의 시대적 흐름 비교 전시를 통해 한글의 소중함을 다양한 계층에게 보다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

■ 휴가권리 확보로 국민여가복리 향상

- 한글날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승격하고, 대체 공휴일제도를 도입하여, 헌법의 행복추구권에 해당하는 공휴일을 통한 휴식권을 보장
- 한글날 공휴일 지정으로 인해 국민의 여가시간을 증대하고 국민국내관광을 활성화함
 - 2000년대 들어 국민국내관광이 증가하였지만 국민의 여가시간 부족으로 국내 여행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 요인으로 작용함
 - 한국관광공사의 ‘2008년 국민여행실태조사’에서 국내 숙박여행(65.2%)과 당일 여행(70.9%)을 가지 않는 주된 이유로 여가시간 부족을 주된 요인으로 나타남(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9)

- 한글날의 공휴일 지정으로 인하여 국민의 휴일 수 증가는 국내관광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 국민여행실태조사에 근거할 때 국민의 국내관광 활성화를 어렵게 하는 한계 요인 중 여가시간의 부족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의 휴일 수 부족은 국내관광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한글날 공휴일 추가지정은 여가시간 부족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임
- 대체휴일제 도입에 관한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에서도 휴무일 수 증가 시 평소 주말 대비 관광활동은 늘어날 것으로 조사됨
 - 휴무일 수가 증가하면 평소 주말보다 관광활동의 비중을 늘릴 것이라는 직장인이 72.1%임
 - 한글날 공휴일 지정과 함께 대체휴일제가 도입되면 관광, 문화활동, 체육활동, 자기계발 순으로 활동이 증가한다고 나타남

■ 근로자의 후생 및 삶의 질 향상

- 자기계발 및 학습활동의 여유시간 확대는 노동생산성 증대는 사회적 편익 기여
- 공휴일 수 하루 증가로 인해 장시간 노동시간에서 벗어나 자아 실현할 수 있는 여유시간 확대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됨
 - 앞선 일반국민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 여론조사에서 76.3%가 찬성하여 ‘문화활동, 집안/가족일, 휴식, 취미활동 등’의 활동을 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으나 공휴일로 미지정 된다면 삶의 질 확대 기대에 대한 국민으로부터의 실망감이 형성될 것임
- 공휴일로 지정되면 가족들과 함께 한글날을 기쁨으로써 가족화합에 기여
 - 핵가족화가 진행됨에 따라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기회가 점차 줄어들는데 공휴일로 지정되면 가족과 함께 한글날 행사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어 가족화합의 기회가 증가
 - 특히 교대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만성피로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짧고, 가정 및 주변 경조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삶의 질 확보가 미흡하여 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휴식권과 행복추구권을 확보
- 증대되는 휴일 수 증가로 인해 여가와 일의 균형적인 삶의 추구가 가능함

■ 한류 문화 확산으로 인한 한글의 수요 증대

- 한류는 외국인 한글 및 한국어 사용인구 증대 확산의 계기가 되었음
 - 드라마, 영화, 그리고 음악 등으로 시작된 한류열풍은 한글과 한국어 확산에 큰 기여를 함
 - 다양한 국적과 계층의 사람들이 한류 문화 이해를 위해 한글과 한국어를 배우며 한국 문화의 상징으로 승화됨
- 한글관련 문화산업 관심이 증대되면서 한국문화산업의 하나의 아이콘으로 개발하여 브랜드화 필요성 제기
 - 한브랜드와 같이 한글을 문화상품화 하여 국가브랜드의 한 방향으로 발전가능성 있음
- 문자와 언어는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는 도구로써 외국인에게 한글은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필수적 수단으로 사용됨
 - 한글과 한국어의 교육으로 한글과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이해할 수 있음
- 한글은 언어 및 역사학, 민족학 분야에 한정되어 접근되어 왔으나 한글날 공휴일 지정을 통한 행사는 한글문화 보급을 위한 예술, 문화산업, 관광 등의 다양한 문화적 홍보 매개체가 될 것임

■ 다문화 가정의 소통

- 한글날 행사 및 프로그램 개최는 한글이라는 매개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과의 소통의 기회
- 또한 ‘자음과 모음, 아름다운 책 이야기’ 라는 프로그램의 개최 사례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의 형태를 실험적이고 창조적으로 제시해 한글의 예술성으로 관람자와 소통의 장을 마련
 - 한글이라는 주제와 함께 전시된 북아트는 한글의 예술성을 실험할 수 있는 계기 및 한글이 가진 예술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
 - 다문화가정의 어린이들과 다문화 도서관에서 진행된 북아트 워크숍은 한글과 북아트를 통해 예술인과 어린이, 한국과 다문화 간의 소통과 사회적 기여를 가능하게 함

5. 국격제고와 국가홍보효과

가. 한국의 국가브랜드

■ 한국의 국가브랜드지수

- 국가브랜드지수 조사결과 종합순위는 미국이 1위, 이미지 기준 종합순위는 프랑스가 1위를 차지하고 대한민국은 실제 19위, 이미지 기준 20위에 오름(삼성경제연구소, 2010)

- **브랜드** : 브랜드(Brand)는 어떤 경제적인 생산자를 구별하는 지각된 이미지와 경험의 집합이며 보다 좁게는 어떤 상품이나 회사를 나타내는 상표, 표지로 숫자, 글자, 글자체, 간략화 된 이미지인 로고, 색상, 구호를 포함함. 브랜드는 특히 기업의 무형자산으로 소비자와 시장에서 그 기업을 나타내는 가치를 나타내어 마케팅, 광고, 홍보, 제품 디자인 등에 직접 사용되며, 문화나 경제에 있어 현대의 산업소비 사회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짐(자료 : 위키피디아, www.wikipedia.org)
- **국가브랜드** : 국가에 대한 호감도, 신뢰도 등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최근에는 국력의 전통적 요소인 군사력, 경제력(Hard Power)보다 국가의 품격, 이미지(Soft Power)가 국가브랜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추세임(자료 : 국가브랜드 누리집, www.koreabrand.net)

- 대통령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와 삼성경제연구소가 공동으로 개발한 국가브랜드지수 SERI-PCNB NBDO 모델은 총 50개국을 비교대상으로 삼아 실제(통계데이터 125개)와 이미지(36개 문항, 26개국 오피니언 리더 1만3,5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

SERI(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PCNB(Presidential Council on Nation Branding) NBDO(National Brand Dual Octagon)의 Dual은 실체와 이미지이고, Octagon은 8개 부문(경제/기업, 과학/기술, 인프라, 정부효율성, 전통문화/자연, 현대문화, 국민, 유명인)이며, 실체와 이미지를 동일문항으로 대비하여 실체와 이미지 간의 차이 분석을 통한 격차 보완이 가능한 세계 최초의 국가브랜드지수 모형

- 한국은 OECD 평균과 비교했을 때 2009년에 비해 실체는 97에서 99점으로, 이미지는 89에서 93점으로 상승됨
- 이러한 약소한 국가브랜드 이미지 상승은 격차 해소 中 · 원전수출, 김연아 선수를 비롯한 동계 올림픽의 쾌거, 월드컵 축구 16강 진출, K-Pop위 열풍, G20 의장국으로서 외교정책 등이 이미지 개선에 영향을 미침

<표 IV-17> 2010년 SERI-PCNB NBDO 국가브랜드 종합 순위

순위	SERI-PCNB NBDO			
	실체		이미지	
	국명	2009년	국명	2009년
1	미국	1	독일	5
2	독일	2	캐나다	8
3	영국	4	일본	2
4	프랑스	3	미국	6
5	일본	5	영국	4
6	스위스	7	스위스	7
7	호주	9	프랑스	1
8	스웨덴	6	스웨덴	3
9	캐나다	8	이탈리아	10
10	네덜란드	10	호주	11
비고	한국(18)	19	한국(19)	20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2010). 국가브랜드지수 조사 결과

- 2009년 국가브랜드 조사결과 ‘대한민국’ 브랜드 이미지는 OECD국 평균과 비교 시 97%로 근접했으나 이미지는 89%로 저평가 됨
 -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실체와 이미지 모두 열세
 - 국가브랜드위원회는 OECD국 평균 수준을 목표(2013년 달성)로 설정하고 대한민국 브랜드 제고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
- 한국은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캐나다 등 G7국가와 비교해보면 실체와 이미지의 격차가 나타나 국가 브랜딩이 시급함
 - 한국 국가브랜딩 개선전략으로 OECD국 평균에 도달하지 못하는 부분의 실체를 개선은 국가브랜드 전략의 기본임
 - 전통문화는 세계인이 한국을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매개체이기 때문에 한글을 문화와 역사적 유산으로 지속적인 발굴 노력이 필요함

- 한글을 국가브랜드 발전전략의 한 아이콘으로 사용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너지 방안 모색, 실행전략을 구상
 - 한글을 통한 국가브랜드 전략 방안 모색을 위해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 합치
 - 한국 브랜드 강화를 위해 한국인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한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해외홍보 주요 포인트 방향을 제시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 구상
 - 한글뿐만 아니라 국가브랜드 실체와 이미지 종합 진단의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한국 국가브랜드 제고

■ 한국의 국가브랜드 위원회

- 국가브랜드위원회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전략을 통해 한국의 대내외적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국가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2009년 1월 22일 설치된 대한민국의 대통령 직속 기관임
- 국가브랜드는 국민, 상품, 기업에 대한 평가에 결정적 영향을 끼쳐 중요시됨
 -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면 우리나라 기업과 상품이 세계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세계인으로부터 존중과 사랑을 받게 됨

<표 IV-18> 국가브랜드위원회의 기능

기능	세부 내용
국가브랜드 관련 범정부적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 국가브랜드 제고 활동의 중장기 목표 비전 전략 제시 - 국가브랜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및 연차별 실행계획 심의 조정
국가브랜드 정책 사업의 효율적 집행 지원	- 관련 정책 사업의 조정을 통해 사업 중복 및 예산 낭비 방지 - 국가브랜드 사업 성과에 대한 분석 평가를 통한 환류 시스템 구축
민간협력 및 국민의 참여를 확대·강화	- 국민 제안을 통해 아이디어 및 정책발굴 - 브랜드가치 제고에 기여한 모범사례 선정, 시상 등 국민적 관심 확대

자료 : 국가브랜드위원회 누리집. www.koreabrand.net

- 대한민국이 기여하는 나라, 존중 받는 국민, 함께하는 사회, 세계적인 기업이라는 비전 및 전략아래 OECD 평균 수준의 국가브랜드 파워 달성
 - 2013년까지 국가브랜드 가치 세계 15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한국의 국가브랜드 위원회는 한브랜드 사업의 하나로 한글의 브랜드화·산업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나. 한글 및 한국어를 통한 국격제고와 국가홍보효과

■ 한국 문화의 상징

- 독일의 문호 괴테는 ‘국어는 그 나라의 정신’ 이라고 언급할 만큼 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이고 가치관이며, 품격을 말해줌
- 문화관광부(2005)의 「한국문화상징 홍보 및 전달체계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10대 문화 상징 중 한글 대표성에서 김치·불고기와 함께 4.4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기여도와 활용성면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얻음

<표 IV-19> 10대 문화상징의 대표성·기여도·활용 가능성

항목	대표성	기여도	활용가능성
한복	4.3	4.1	4.2
한글	4.4	4.0	4.2
김치·불고기	4.4	4.3	4.4
석굴암·불국사	3.6	3.3	3.7
태권도	3.9	3.9	4.1
고려인삼	4.1	4.0	4.1
탈춤·탈놀이	3.5	3.2	3.7
종묘제례악	3.4	3.2	3.5
설악산	3.2	3.0	3.4
세계적 예술인	2.9	3.0	3.4

자료 : 문화관광부(2005). 「한국문화상징 홍보 및 전달체계개선방안」

-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한글’은 한민족의 가장 값진 문화유산이자 세계 최고의 과학적 문자로 국가브랜드로서 적합하다고 언급됨. 따라서 한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중심으로 국가 인지도 제고 방안이 요구됨(김현, 2008)

- 한글은 한국과 한국인임을 알리는 가장 정확하고 단순하면서도 뚜렷한 소재임
-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문화적 이미지로서 국가 경쟁력 강화의 주역이 될 수 있음
- 알파벳이 영미권의 문화를 대변하듯 한글이 한국의 문화를 대변할 수 있는 브랜드화가 된다면 국가브랜드를 만들고 국가이미지를 구축하기에 가장 적합

■ 한글의 국가브랜드화

- 한글날 공휴일 지정에 따른 국가브랜드 제고 및 국제적 효과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됨
 - 한글은 한국과 한국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상징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브랜드 구축을 위한 노력이 적음
 -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글의 가치 확산을 위한 한글산업화 지원 부문은 전체 예산중 2010년 100백만원에서 2011년 0원으로 지원을 중단함
 - 한글의 문화산업적 가치 인식 부족과 이에 따른 브랜드화 과정의 미흡
 - 한글이 한국과 한국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상징으로 국가 브랜드 구축을 위한 매개체로 유도 방안 모색
- 한글날 공휴일 지정을 통한 온 국민의 한글 축제화는 한글 및 한국어의 세계화 홍보기회로 활용
 -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면 모국어 관련 공휴일 지정 사례로 한글 사용에 대한 국제적 인식이 확산
- 2007년 9월 27일 국제특허협력조약의 국제공개어에 한국어와 포르투갈어가 포함되어 한국어의 위상이 높아짐
 - 국제공개어는 기존에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중국어, 아랍어 등 8개였으나 한국어, 포르투갈어가 추가 지정됨

■ 한류를 통한 한글과 한국어 확대

- 한류는 한국의 국가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기여함
 - 최근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음식, 화장품, 한글, 라이프스타일 등과 같은 한류 콘텐츠가 다양화 되고, 한류의 확대로 외국인들이 한글 등을 배우도록 동기 부여 됨

- 한글날에 개최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세계인에게 한국 문자와 문화의 독자성을 전파하는 기회
- 한류와 연계하여 한글의 해외 보급 확대, 한글문화 콘텐츠 개발로 한글 위상 강화 및 문화전파의 필요성 제기
 - 한류문화 확산을 통해 자연스러운 한글 및 한국어의 해외 전파 추진
 - 한류 및 다문화사회가 되면서 한국어에 대하여 외국인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어 보급에만 머무르고 한글을 통한 한글문화 전파는 미미함

■ 한글 프로그램을 통한 한글의 조형성 홍보

- 한글날 공휴일 지정으로 다양한 축제 개최와 한글 문화관 건립 등으로 한글이 가지고 있는 조형적 미학과 정보기능을 발전시킴으로서 한글과 한국 문화의 세계적 지평을 넓히며 한글을 국가브랜드로 알리기 위한 강력한 전달매체로 사용함(김현, 2008)
- 2009년에 실시된 ‘한글꼴로 세상과 대화하기’ 프로그램은 한글꼴의 아름다움과 한글을 여러 작품의 형태로 표현됨을 보여주었음
 - 한글꼴의 창의적인 형태를 한국을 찾는 다문화권 외국인들과 일반시민에게 두루 보여줌으로써 한글의 아름다움을 널리 소개할 기회를 가짐은 물론 우리민족 최대의 자긍심과 혼이 담긴 한글을 예술 표현의 한 장으로 승화시킴
- 문화예술사업위원회의 공모사업 중의 하나인 ‘또 하나의 한글, 별의 문자展’은 다양한 관람객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관심이 두드러져 한글이라는 점 및 점자의 아름다움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음
 - 한글날을 기념하여 개최된 한글 문자전은 기호적 문자인 점자를 감각적 이미지로 상형화하여 작품을 전시하고 점자를 직접 배워보고 점자와 묵자가 함께 수록된 그림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이 행사는 외국 관광객이 많은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되어 전시 효과가 극대화 되었고, 외국인에게 친숙하지 않은 한글이 점자라는 점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시킴

■ 한글 문화콘텐츠의 상품화

- 한글 문화콘텐츠의 상품화는 한글의 적용 확대를 제고하고 민족문화 창달의 의미를 되새김
- 최근 한글의 디자인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일부 예술가를 중심으로 한글을 활용한 작품이 시도됨(한글문화연대 누리집. www.urimal.org)
 - 한글문화연대, 한글사랑운동본부, 대학생 한글디자인 연합 동아리 한울 등이 한글무늬를 이용한 상품 개발과 보급에 주력하고 있음
 - 이상봉은 2006년 파리콜렉션에서 한글을 모티브로 한 작품을 선보였으며 침구, 아파트현관문, 핸드폰, 프랭클린 플래너 다이어리 등에서 한글을 접목한 디자인을 발표하고 유통 중임
 - 행남자기는 한글의 아름다움과 또 다른 가치에 주목하여 도자기 디자인에 접목하고 세계인과 소통하는 문화적 아이콘으로 개발함



- 한글을 언어적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한글의 산업화 차원에서 문화상품화하려는 시도가 민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업체 간 교류가 거의 없고 비영리, 소규모 업체가 대부분임에 따라 하위문화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의 개선방안 모색(김현, 2008)

■ 한글의 세계화 세종학당의 정책 추진을 통한 한글 전파

- 한글의 세계화와 세종학당을 통한 한글 및 한국어의 세계화를 위해 정부의 한글 사업에 대한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추진 정책 마련
- 재외국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전파하기 위한 한글 교육기관 운영
 -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과 자녀들이 모국어를 습득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지원
 - 다문화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기관을 통해 한국문화 및 한국어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한글의 세계화 기반 마련

■ 한글의 문화관광자원화

- 한글 관련 자원을 발굴하고 스토리텔링을 부여하여 관광상품화 방안 모색
 - 광화문 광장에 세워진 세종대왕 동상은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외래 관광객에게 인기 있는 명소로 관광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한글을 주제로 스토리텔링 부여
 - 관광문화산업에서 한글을 이용한 콘텐츠 개발로 한글 문화 보급
- 한글날 지정으로 다양한 행사 개최를 통해 한글의 발전 계기를 마련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며 국가 브랜드 구축과 새로운 여가자원으로 활용되는 방안 모색(김현, 2008)

■ 장시간 근로 국가 이미지 전환

-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많은 노동 시간을 통해 경제개발을 이룩한 국가라는 이미지가 있음
 - 실제 OECD 조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근로자는 가입국 중 제일 많은 노동 시간을 가지지만 생산성은 떨어지고 근로시간과 생산성은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아님

- 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여가생활 기회 확대와 개인 근로자들의 휴식권 행복추구권 보장
 -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으로 휴일 수의 증가와 자유로운 연차 사용 분위기는 장시간 근로시간 국가라는 이미지를 벗고 삶과 노동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나라로의 이미지 전환 계기가 됨

■ 내수경기 활성화로 인한 국가 경제 증진

- 공휴일 지정 및 대체휴일제도 도입은 근로자들의 여행 및 여가활동 기회 향상으로 이어져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국민관광수요를 성장시키는 기회
 - 공휴일 수 증가는 국내관광수요를 증진시켜 내수경기 활성화를 이끌어 내고 휴식과 자기계발 기회 확보를 통해 노동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음
- 대외적인 홍보나 상품화 방안의 모색뿐만 아니라 한글 축제와 프로그램 개최로 인한 국내경제 파급효과 발생
 - 관광파급효과 외에도 축제 개최를 통한 소비촉진, 고용 증진 등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것임

6. 소결

■ 관련 주체별 예상 편익-비용 및 경제적 효과

- 한글날 공휴일 지정으로 관련 주체별 예상 편익 및 비용은 가계부문과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근로자는 여가시간 증가로 복지가 향상되어 삶의 질이 향상되지만 여가문화 활동에 따른 가계지출이 증대됨. 기업과 산업 부문, 관광사업체는 매출액 신장, 연관 산업의 파급효과 등으로 신규 고용창출, 소득 증대에 따른 국민경제 활성화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반면에 기업체에서 공휴일 추가근무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생산차질 등의 기업 손실이 예상됨
- 한글날 공휴일이 시행될 때 확충되는 휴일 1일당 편익효과를 추정된 결과 총 편익은 4조 6,075억원이며, 기업체 비용은 순 편익은 4조 6,075억원으로 분석됨. 주요 쟁점의 대상이 되는 ‘한글날 공휴일 지정과 공휴일 법제화’를 시행할 경우 기업체의 비용은 4조 2,722억원으로 공휴일 1일 추가의 편익 4조 6,075억원을 기준으로 볼 때, 순편익은 3,353억원으로 추정되어 경제적인 측면에서 기업체에서 반대할 근거로 기업체 손실 부문은 설득력이 낮은 것으로 보여짐

■ 한글날 공휴일 지정에 따른 사회문화적 효과

- 한글날 공휴일 지정은 한국인에게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소중함을 일깨우는 기회이고 외국인에게는 한류와 다문화 가정 증가된 한글 수요에 부응하는 프로그램과 행사 참여의 기회가 마련됨. 또한 국민들은 휴일 수 증가로 자기계발 및 여가 시간을 확보하여 삶의 질 향상과 가족화합의 기여하는 사회문화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한글날 공휴일 지정에 따른 국격 제고 및 국가홍보 효과

- 국어는 그 나라의 상징으로 민족문화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반영하는 근본으로 한글날 공휴일 지정은 한글의 가치와 중요성 환기와 한글의 세

계화를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 및 국격 제고의 기대효과를 예상할 수 있음. 우리나라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꾸게 한 한류와 연계하여 한글의 해외 보급 확대, 한글 문화콘텐츠 개발, 체계적인 한글 및 한국어 교육 정책으로 한글의 위상 강화 및 문화전파의 필요성이 제기됨

V. 한글날 공휴일 지정의 법률 및 규정 검토

1. 현행 법률 및 규정
2. 공휴일 관련 법률 및 규정 검토
3. 한글날 공휴일 지정 입법(안)

1. 현행 법률 및 규정

가. 국경일에 관한 법률(법령)

■ 역사적·사회적 의미로서의 국경일

- 일반 국민이 국경일, 명절 또는 국민의 집단적 가치의 장려를 위해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설 수 있는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 국경일의 법적 성격과 문제점 제기

- 우리나라의 국경일은 1949년 10월 1일에 「국경일에 관한 법률」로 법에 의해 정해져있으며, 한글날이 국경일로 추가된 1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국경일에 관한 법률(법률 제7771호, 2005. 12.29)」에 이룸
- 현행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의 경사스런 날’로서 3.1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만을 규정하고, 이와는 별개로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공휴일에 국경일 중 일부(제헌절·한글날 제외)와 일요일·신정·설날·추석·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어린이날을 제각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은 법체계상의 문제로 제기됨

<표 V-1> 현행 「국경일에 관한 법률」

법률 제 7771 호, 2005.12.29. 일부개정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1조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을 정한다.

제2조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제3조 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역사적·사회적 의미로서의 공적 휴일

- 공휴일은 전통 민속의 계승, 국가적 기원의 신성화, 국민계층에 대한 배려, 집단적 가치의 장려라는 측면이 강조되어 공휴일이 제정되고 운영됨
 - 공휴일은 법적 측면에서 모든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보장 또는 강제되지 않았지만, 사회구성원의 관념 속에서 자리 잡으면서 일반 국민의 휴일을 유도하는 역할을 함

■ 공휴일의 법적 성격과 문제점 제기

- 공휴일제도는 1949년 6월 4일 제정·시행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이며, 그동안 13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674호, 2006. 9. 6. 일부개정)」에 이룸
- 현행법상 공휴일은 최소한 법적의미에서는 특별권력관계가 있는 공무원에 한정하여 효과가 부여되고, 일반 국민에 대하여는 관공서의 휴무에 관한 사항을 공지하는 기능을 함
 - 공휴일에 관한 법제도가 근로관계일반을 규율하지 않고,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근로관계만 규율하는 점은 사법적으로 국가의 개입 또는 법의 규제를 최소화하려는 사적 자치 태도
- 일반 국민이 국경일, 명절 또는 국민의 집단적 가치의 장려를 위해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설 수 있는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관공서가 휴무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는 설득력이 떨어짐

* 최초의 공휴일로 규정되었던 내용을 살펴보면, 일요일·4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식목일·추석·한글날·기독탄신일·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이 규정되어 있음

<표 V-2> 현행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 19674 호, 2006.9.6, 일부개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중 3·1절, 광복절 및 개천절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 10의 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역사적·사회적 의미로서의 기념일

- 국가가 어떠한 특정한 날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식목일, 스승의 날, 국군의 날 등으로 해당 부처에서 주관 기념행사를 거행하며 그날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는 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 각종 기념일에 법적 성격과 문제점 제기

- 우리나라의 기념일은 1973년 3월 30일에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시행되어, 그동안 28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548호, 2010. 12. 27. 일부 개정)」에 이룸<별첨 3>

<표 V-3> 현행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 22548 호, 2010.12.27, 일부개정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및 기념주간 등의 제정과 그 기념일에 있어서의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의식 및 그에 부수되는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념일등) ①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과 그 주관부처 및 의식이나 행사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념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삭제 <1982.5.15>

제3조(기념식 및 행사) ① 제2조에 규정된 각종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이를 전국적인 범위로 행할 수 있으며, 주간이나 월간을 설정하여 부수행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1982.5.15>

② 삭제 <1998.7.25>

제4조(행사의 간소화등) 모든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엄숙하고 검소하게 행하여 당해 기념일의 의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기타 기념행사 금지) 정부기관은 이 영에서 정하는 이외의 어떠한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기념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사도 주관할 수 없다. 정부관리기업체의 경우도 또한 같다. 다만, 국경일의 기념행사는 예외로 하되, 그 기념행사에 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를 적용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 근로자의 휴일·휴가와 관련한 법률

- 민간기업의 경우 공휴일에 반드시 쉬어야 한다는 법률 규정은 없으며, 다만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원용하여 유급휴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 주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 근로기준법 제55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
 -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주휴일은 일요일이 아니고 사업장별로 근로환경에 맞게 주중 어느 요일이든 하루를 지정하여 주휴일을 부여하고, 주휴일에는 8시간분의 급여를 지급해야 함

■ 휴일 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 휴일 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

■ 연차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 연차 유급휴가는 최초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함
- 연차휴가는 3년 근무 시 1일 추가, 이후 매 2년마다 1일씩 추가함(단 연차휴가 상한선은 25일)
 -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하고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

■ 생리휴가(근로기준법 제73조)

-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명시되어 있음

2. 공휴일 관련 법률 및 규정 검토

- 2010.3.18 기준 18대 국회에 제안된 공휴일 관련 법안은 총 8건(의원입법)*에 이르고, 이중 공휴일 규정을 법제화 하는 법률안은 4건(제Ⅲ장 참조)
 - 각 각의 법안들은 공휴일 관련 법률제정 또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과의 연계 개정, 대체공휴일 도입 여부, 공휴일 수 확대 여부 등 다양하지만, 전체적인 핵심은 공휴일 수 확대 내지는 안정된 공휴일 수 확보가 목적임

가. 국경일 및 일부 기념일에 대한 공휴일 추가 지정

- 국경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가족들과 국경일의 의미를 되새기며 다음 세대에게 그 의미를 전달하고, 관련 행사 및 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참가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장치이므로 근시안적 정치 및 경제 논리가 아닌 시대의 국민정서에 부합해야함
-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이 아닌 날을 공휴일로 추가 지정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안이 제시되고 있음
 - 첫째, 국경일을 모두 공휴일로 지정하여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는 제헌절과 한글날을 추가하는 안
 - 둘째, 어버이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전통적인 미덕을 기리며, 어른 봉양과 경로사상의 확산을 위한 어버이날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
 - 셋째,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정한 휴급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여, 유급휴일 미수혜 근로자 및 공무원·교원 등에게도 휴식권이 공평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

* 2010년 기준 8건의 법안은 다음과 같음. 전병현(대표발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10.1; 강기정(대표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2009.5.1; 박상돈(대표발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09.6.11; 박선영(대표발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10.8; 박은수(대표발의),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2009.9.30; 양승조(대표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2009.5.6; 윤상현(대표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2008.12.9; 홍장표(대표발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7.22

나. 공휴일 제도의 법제화

- 국경일뿐만 아니라 공휴일 제도를 법제화하는 방안 제안 이유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통해 공휴일을 법으로 정하여 휴무 문제점 발생을 최소화
- 헌법의 행복추구권에 해당하는 공휴일을 통한 휴식권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근거하고 있는 것은 법치주의에 위배됨
- 따라서, 현행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대체공휴일 규정을 추가하여 현행 그대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로 제정 또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공휴일 규정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로 개정

다. 대체공휴일 도입

- 대체공휴일 도입의 제안 이유로 공휴일 중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과 추석의 경우 매 명절마다 3천만 명 이상의 국민이 대이동을 하고 있고, 토요일과 일요일이 명절과 겹치는 경우에는 과도한 교통 혼잡 비용과 국민적 불편이 야기됨
- 일정한 휴식을 통해 국민의 안정적 삶을 보장하고 노동의 효율성 증대
- 매년 최소 3일 이상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쳐 실제 공휴일수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 대부분의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체공휴일제도의 도입 필요성 제기
- 대체공휴일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안이 제시되고 있음
 -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 하루를 대체공휴일로 하는 안
 - 명절(설날·추석)에 한하여 공휴일이 토요일과 겹칠 경우 목요일을, 일요일과 겹칠 경우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하는 안
 - 국경일에 한하여 공휴일이 토요일과 겹칠 경우 목요일을, 일요일과 겹칠 경우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하는 안

라. 공휴일의 법제화 및 대체휴일제도 동시 도입

- 공휴일의 법제화와 대체휴일제도를 동시에 도입하면 안정적인 휴일 수 확보를 통해 국민의 휴식권과 행복추구권을 향상시킬 수 있으나, 휴일 수 과다로 인하여 경제적 비용 발생의 부정적 현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일부 근로자는 휴일 수 증대로 휴식권이 확보 할 수 있는 반면에 생산직, 서비스직 근로자들은 업무의 특성상 휴일에도 근무하는 상황에 놓여 상대적인 박탈감이 형성되어 불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마. 공휴일 법제화를 통한 쟁점(최춘규, 2010)

■ 협약자치 원칙의 제한 여부

- 헌법 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고 규정하여 근로조건의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음
 - 근로조건은 임금과 그 지불방법, 취업시간, 휴식시간, 안전시설과 위생시설, 재해보상 등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수령하는데 관한 조건들을 말함
 - 사용자에 비해 약자인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될 경우를 대비하여 헌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최저기준을 법률로 정하고 있음
 -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있음
-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법제화는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공무원의 휴일을 민간 기업에 강제하는 것이어서 “근로조건의 자율결정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근로자의 휴무는 사적계약의 영역으로 국가가 강제할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음

■ 근로기준법상 휴일제도와와의 충돌 문제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에 국한되지 않음
 - 취업규칙 등에 따라 특정 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여 실시하는 경우로 일요일 이외의 요일로 정하거나 계절에 따라 달리할 수도 있고, 부서나 직종 또는 작업조에 따라 요일을 달리할 수 있음. 그리고 이미 정한 요일을 변경할 수도 있고, 국경일이나 공휴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휴일로 지정할 수 있음
-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현행 공휴일 규정은 일요일을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계류중인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 된다면 주휴일은 일요일로 고정되어 버린다는 문제점 발생
 - 공무원이 근무하는 관공서와는 달리 개별기업의 휴일은 기업 내 노사관계나 영업방식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특히 일요일 영업을 불가피한 쇼핑·유통·365일 공장을 풀가동하는 장치산업 등 교대제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인 일요일이 아닌 평일 중에 하루를 주휴일로 부여할 필요성이 있음
- 근로기준법 제55조가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노사간 근로시간의 분배 및 휴일의 자율적 운영을 허용하는 것임
 - 일본과 호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 역시 민간의 휴일을 기업과 근로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음

■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입법 필요성

- 공휴일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공휴일은 곧 국민의 휴일로 여겨짐
 - 법적 의미에서 공휴일 규정은 ‘관공서의 휴무’ 내지는 ‘공무원의 휴일’을 의미하지만, 공휴일제도는 일반 국민의 사실상의 휴일제도를 선도해 오면서 발전되었고, 대다수 국민이 공휴일은 쉬는 날이라는 관념이 자리 잡고 있음
- 국경일이나 공휴일에 그 날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쉴 수 있는 근거가 대

통령령일뿐만 아니라 공무원 또는 관공서가 휴무하기 때문이라는 점은 설득력이 없음

- 일부 정부 기관 및 경제계의 경제발전 저해라는 논리로 국경일인 한글날이 공휴일에 제외되는 것은 문제임
- 헌법재판소가 휴식권은 포괄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와 같이, 국민의 휴식권과 연관되어 있는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의 근거 없이 대통령령으로 계속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임 범리에 위배될 문제점 존재
-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휴식권) 보장 및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공휴일 법제화’의 필요성이 제기됨

■ 대체공휴일 도입에 관한 적정성 문제

- 대체공휴일 도입에 관한 논의는 주 40시간제 도입이후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치는 경우가 다수 생기면서 제기되어온 문제
- 매년 3~6일 이상의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치면서 실제 공휴일 수의 보장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삶의 질을 추구하고 휴식을 통한 에너지 재충전으로 재상산성을 높이자는 것이 핵심
- 관광수요 증대와 내수활성화 효과를 강조하는 정부의 정책적 입장과 주휴일 및 일요일 규정의 충돌로 인한 부작용, 휴일 증가로 인한 생산차질, 취약계층근로자의 소득감소를 강조하는 경영계의 입장이 서로 얽혀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음
- 법정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으로 OECD 평균에 준하고 있지만, 실제 근로시간은 이를 현저히 상회하고 있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됨
 - 장시간 근로 관행의 개선과 근로문화 선진화 등 전체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만, 이에 선행해서 대체공휴일이 도입된다면 노동시간 단축 및 명확하고 안정된 휴일 수 확보 기능을 할 것임

3. 한글날 공휴일 지정 입법(안)

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 공휴일제도는 각국의 역사와 전통, 정치·경제체제, 사회·문화 환경, 노동관계, 국민성, 산업구조, 지리적 환경 등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전하였으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중에서 국가의 언어와 정신이 깃든 날인 한글날과 제헌절이 제외되어 있는 현재 제도는 문제가 있어 개정이 필요함
- 「국경일에 관한 법률」, 「공휴일에 관한 법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의 검토를 통한 대안 제시
 - ‘대체공휴일’ 제도의 도입 등으로 헌법의 행복추구권에 해당하는 ‘공휴일을 통한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한글날 공휴일 지정의 당위성을 경제적·사회문화적·국제적 효과와 긍정적 효과,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를 집단적 가치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나. 한글날 공휴일 지정 관련 입법(안)

■ 한글날 공휴일 지정에 관한 전제조건

- 한글날 공휴일 지정을 위해서 공휴일은 국가와 국민이 모두 경축하거나 기념할 수 있는 지정일로의 재검토후 개정(안)을 제시해야 함
 - 국민 전체의 집단적 가치에 대한 배려로 볼 수 있는 날의 공휴일 지정이 필요함
 - 현행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는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국민 모두가 한글의 가치를 기리고 경축해야함

■ 한글날 공휴일 지정에 관한 입법 (안)

- 2010년3월 기준 공휴일제도 개선 관련 의원 입법안을 검토 해볼 때 세 가지 측면에서 입법 발의가 될 수 있음 (<부록-1>,<부록-2>, <부록-3>: 의원 입법(안) 사례 참조)
 - 현행 공휴일에 한글날을 공휴일로 추가
 - 한글날 공휴일 지정 및 대체 휴일제 도입
 - 한글날 공휴일 지정 및 공휴일의 법제화

VI. 종합 결론

1. 한글날 공휴일 지정의 당위성
2. 향후 조치 사항

1. 한글날 공휴일 지정의 당위성

■ 문화기반으로서 한글 가치 극대화

- 1990년 공휴일이자 국경일이었던 한글날을 노는 날이 많아 경제 활동에 지장이 있다는 경제논리에서 기념일로 강등함. 우리글과 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한글날을 국경일로 추가 지정하자는 의견이 받아들여져 2006년 국경일로 격상되었으나 공휴일에 제외되어 국민들의 관심 저하 및 관련 행사 개최의 어려움이 발생됨
- 한글날을 국경일로 지정하자는 것이 단순히 하루 더 놀기 위한 날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겨레의 문화와 언어의 가치를 되새기며 동양 중심 국가가 되기 위한 문화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을 고려해야 함

■ 한글날 공휴일 지정의 국민 여론 증대

- 국민들은 한글을 우리글과 언어의 기본으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게 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여기고 있으며, 한글날 공휴일 지정 관련 조사 결과에서 찬성 의견은 조사대상자의 76.3%를 보임
-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한글날 공휴일 지정이 이루어지면 삶의 질 향상과 행복추구권 보장, 휴식으로 인한 노동생산성 증가가 나타날 것임
- 경제계에서 우려하는 휴일 수 증가로 인한 노동생산성 약화는 국민여론 조사 결과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한글날 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효과

- 한글날 공휴일이 시행될 때 확충되는 휴일 1일당 편익효과를 추정한 결과 총 편익은 4조 6,075억원으로 추정되며, 기업의 비용은 1,206 억원으로 순편익은 4조 4,868억 원으로 추정되며, 신규 고용창출 효과는 17,919명으로 추정됨.

- ‘한글날 공휴일 지정과 동시에 모든 공휴일의 대체휴일제’ 도입에 따른 순편익효과는 10조 7,684억원으로 추정되며, 고용창출효과는 44,005명으로 추정되어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기업체에서 한글날 공휴일 지정에 반대할 근거로 기업체의 손실 부문은 설득력은 낮은 것으로 보여짐

■ 한글날 공휴일 지정의 사회문화적 효과

- 우리 고유의 한글과 한국어라는 언어는 우리나라의 상징으로 민족문화 정체성과 가치관을 반영함. 이러한 한글 창제일을 공휴일로 추가지정 할 경우, 한글의 가치를 인식하면서 외래어 확산으로 인한 한글의 경시 풍조의 문제를 일깨울 수 있음. 한글 관련 행사와 프로그램 개최는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한글 위상강화 및 홍보 효과를 가져 옴

■ 국민휴가문화 고품격화 및 휴가 권리 보장

- 한글날 공휴일 지정에 의해 관련 행사 및 한글문화 축제화를 통하여 한글에 담겨 있는 정신과 사상의 인식확대로 국민휴가문화의 고품격화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연간 근로 시간이 상당히 많아 휴식과 행복 추구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음. 노동시간과 노동생산성은 정(+)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경제계에서 주장하는 휴일 수 증대로 인한 노동생산성의 저하는 발생되지 않음. 따라서 공휴일 추가지정은 근로자의 여행 및 여가문화활동 기회를 제공, 휴가권과 여가시간 확보를 통한 삶의 질을 고취시킴

■ 한국어의 세계화

- 언어와 연계된 공휴일 지정사례는 보고되고 있지 않으나 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언어와 문화를 홍보하고 확산을 위해 자국어 및 문화 보급 시설

을 정부의 예산으로 지원함. 국격 제고와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언어를 바탕으로 한 문화의 홍보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각 국은 국내·외 다양한 기관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이는 우리에게 언어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시사 하는바가 큼

■ 국가브랜드 가치로서 한글의 역할

- 최근 한류의 열풍과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로 인하여 한국어 수요가 증대되는 현상을 한글 사업과 연계하여 한글의 해외 보급 확대 매개체로 활용. 또한 한글 문화콘텐츠와 한글 축제를 개발하여 관광상품화 방안을 모색하고 한글 정책 통합으로 일관성 있는 한글 및 한국어 정책을 제시하여 한글과 한국의 경쟁력을 확보와 국가 브랜드 제고를 모색해야 함

2. 향후 조치 사항

■ 이해관계 주체간의 쟁점 조율

-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으로 한글의 가치와 중요성 되새길 수 있고, 휴가사용 효과로 발생하는 긍정적 파급효과와 삶의 질 향상을 주장하는 찬성측과 휴일 수 증가로 인한 추가인건비 지급과 생산성 저하라는 문제가 발생된다는 반대측과의 이견차이가 있어 조율이 필요함

■ 관련 법령 및 규정 검토

- 한글날 공휴일 추가 지정으로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대체공휴일 도입에 따른 국민의 휴식권과 안정적 삶의 보장으로 노동의 효율성 증대 효과 고려. 그러나 이해집단 간에 이견차이가 커 관련 기관의 추가적인 논의와 법률 검토가 필요함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김 현(2008). 한글문화관 건립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국립국어원(2007a). 국어발전기본계획 10대 추진 과제 연차별 재정투자계획
- 국립국어원(2007b). 세종학당 백서
- 국립국어원(2007c). 세종학당 설립 및 운영의 경제적 효과 분석
- 국립국어원(2008). 건국 60주년 기념 국어사랑 큰잔치 행사 결과 보고서
- 국회행정안전위원회(2010).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 문화관광부(2005). 한국문화상징 홍보 및 전달체계개선방안
- 문화관광부(2007). ‘한스타일’ 육성 종합계획
- 문화체육관광부(2010). 한국어 교육기관 실태 및 수요 조사
- 문화체육관광부(2010a). 2009 문화정책백서
- 문화체육관광부(2010b). 21세기 새로운 어문 정책의 방향
- 문화체육관광부(2010c). 휴가문화 선진화 및 공휴일제도 개선을 통한 내수관광 활성화 방안
- 문화체육관광부(2011). 한글날 관련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 삼성경제연구소(2008). 장시간 근로실태와 개선방안
- 삼성경제연구소(2010). 국가브랜드지수 조사 결과
- 생산성본부(2008). 생산성 국제비교
- 이규만·오흥재(2008). 주5일 근무제가 구성원의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 *경영교육논총*, 50.
- 이지평(2005). 주 5일제 확대와 가계소비, 「LG주간경제」, LG경제연구소
- 최춘규(2010).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 및 대체공휴일 도입에 관한 법적 쟁점 연구. *서강법학(12)*, 1.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9). 국내 관광수요 확대를 위한 휴가·공휴일 제도 개선방안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0a). 관광산업의 경제효과 분석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0b). 대체휴일제에 따른 파급효과 추정; 직장인 대상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 한글주간(2009). 세상을 담은 아름다운 그릇 한글 결과 보고서

2. 누리집

-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www.law.go.kr
- 국가브랜드위원회 누리집. www.koreabrand.net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
- 국립국어원 누리집. www.korean.go.kr
- 대한민국 국회 누리집. www.assembly.go.kr
- 브리티시 카운슬 누리집. www.britishcouncil.org
- 서울공자아카데미 누리집. www.cis.or.kr

알리앙스 프랑세스 누리집. www.alliancefr.org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누리집. www.jpof.or.kr
위키피디아 누리집. www.wikipedia.org
주한독일문화원 누리집. www.goethe.de/seoul
주한스페인문화원 누리집. www.spain.or.kr
주한이탈리아문화원 누리집. www.iicseoul.esteri.it
청년의사. www.docdocdoc.co.kr
한글문화연대. www.urimall.com
OECD(2011). www.oecd.org

부 록

<부록-1> 박영선 의원의 한글날 공휴일 지정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법률 제 호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① 국경일은 공휴일로 정한다. ② 국경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을,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공휴일로 한다. 다만, 국경일이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과 같은 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2> 윤상현 의원의 한글날 공휴일 지정 법률 개정안

법률 제 호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 광복절 및 개천절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1월 2일)
5.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6. 5월 5일(어린이날)
7. 6월 6일(현충일)
8.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8월 15일, 8월 16일)
9. 12월 25일(기독탄신일)
10.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하루를 공휴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3> 전병헌 의원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법률 제 호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간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 광복절 · 개천절 ·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31일, 1월 1일, 1월 2일)
	5.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6. 5월 1일(근로자의 날)
	7. 5월 5일(어린이 날)
	8. 6월 6일(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8월 15일, 8월 16일)
	10. 12월 25일(기독탄신일)
	11.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2.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하루를 공휴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글날 공휴일 지정에 관한 연구 설문조사 결과

I.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 한글과 한글날의 가치와 중요성 및 공휴일 지정의 파급효과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2. 조사 방법 및 대상

- 조사 방법 : 자기기입식 개방형 설문조사(회신은 이메일 및 팩스)
- 조사 대상 : 관련 부처, 경제계, 학계, 문화원 및 관광청
- 조사 표본 수 : 총 34부 회수

3. 조사 시기

- 2011. 5.25 ~ 2011.5.30(6일간)

4. 조사 항목

- 한글 및 한글의 가치
- 한글날의 역할과 기능
- 한글날 공휴일 지정에 대한 찬/반여부와 이유
- 한글날 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긍정적 기대 효과
- 한글날 공휴일 미지정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손실
- 한글이 국가 브랜드화 하기 위한 한글과 한국어의 발전과제

II. 조사 결과

■ 한글과 한글날 가치의 중요성

- 한글은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창제 원리와 함께 애민정신이 담겨있어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여겨짐. 최근 한글은 한류의 열풍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아름다운 조형성을 인정받아 다양한 상품에 사용되고 있어 한국의 문화콘텐츠로 한글의 가치와 중요성이 증대됨
- 한글은 창제 연월이 알려져 있는 문자로 한글 창제에 담겨 있는 애민정신, 실용정신, 자주정신이 담겨져 있는 민족문화의 정체성임. 한글의 창제로 인해 언문 불일치로 발생하는 의사소통의 불편함을 없앨 수 있음.
- 한글날은 문자인 한글 창제를 기념하는 날이지만 한글 창제 정신을 계승하고 우리말과 글 사용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함

■ 한글날 공휴일 지정의 사회문화적 효과

- 한글날 공휴일 지정은 한국인에게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소중함을 일깨우는 기회이고 외국인에게는 한류와 다문화 가정 증가된 한글 수요에 부응하는 프로그램과 행사 참여의 기회가 마련됨
- 또한 국민들은 휴일 수 증가로 자기계발 및 여가 시간을 확보하여 삶의 질 향상과 가족화합의 기여하는 사회문화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한글날 공휴일 지정의 국격 제고 및 국가브랜드

- 국어는 그 나라의 상징으로 민족문화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반영하는 근본으로 한글날 공휴일 지정은 한글의 가치와 중요성 환기와 한글의 세계화를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 및 국격제고의 기대효과를 예상할 수 있음.

- 우리나라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꾸게 한 한류와 연계하여 한글의 해외 보급 확대, 한글 문화콘텐츠 개발, 체계적인 한글 및 한국어 교육 정책으로 한글의 위상 강화 및 문화전파의 필요성이 제기됨

■ 한글날 공휴일 지정에 관련된 반대 의견

- 경제계는 전반적으로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과 관련하여 인건비 상승과 생산성 약화 등을 우려하는 의견을 제시함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의 법정공휴일은 미국 등 경쟁국과 비교해 비슷하거나 다소 많은 편임을 언급하며,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대책 마련 없이 그냥 휴일 수만 늘리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함
 - 글로벌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노동시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공휴일제 법률 제정은 기업투자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마저 어렵게 만들고, 민간의 휴일을 법으로 통제함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혼란 야기
 - 주5일 근무 시행으로 연간 104일을 쉴 수 있고, 법정 연차일수도 19일에 달해 법정 공휴일이 며칠이 주말과 겹친다 해도 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임

연구참여진



연구책임

이강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원

김혜선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최영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보조원

자문위원

고창운 건국대학교 교수

김슬옹 독서교육연구소 소장

김태균 경북대학교 교수

박동근 건국대학교 교수

이충기 경희대학교 교수

정달영 대진대학교 교수

정희원 국립국어원 어문연구팀 팀장

홍윤표 전 연세대학교 교수

담당

안미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사무관

김형배 문화체육관광부 학예연구사